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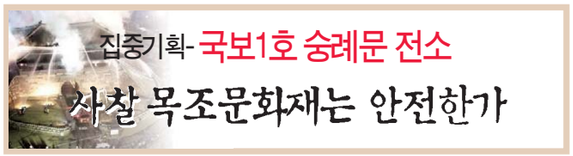
현대불교

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2004-8212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2월 20일(음력 1월 14일) 수요일 (주간) 제667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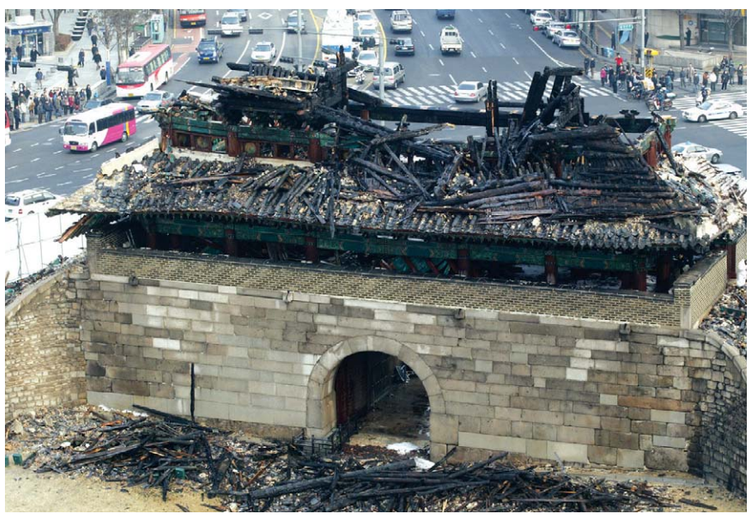
집중기획- 국보1호 숭례문 전소

사찰 목조문화재는 안전한가

국보 1호 숭례문이 2월 10일 오후 8시 50분 발생된 화재로 5시간여만에 전소됐다. 1394년(조선 태조 5년)부터 1398년까지 꼬박 5년이 걸려 지어진 숭례문. 모진 풍상에도 꿋꿋이 수도 서울의 정문으로 600여년을 살았다. 숭례문 화재로 "목조건축물 관리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국보 · 보물을 비롯 목조건축물 지정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찰건축물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방재대책 허술…화재 무방비

해인사 등 4곳 제외 대다수 사찰 소화시설만 겨우 갖춰





2월 10일 발생한 화재로 국보1호 숭례문이 소실됐다. 온 국민의 안타까움 속에 처참하게 타버린 국보1호(왼쪽사진)를 보며 사찰 목조건축문화재 보호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김제 금산사는 2월 14일 사중 스님과 관내 소방서 합동으로 소방 방재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박재완 기자·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체 국보 407개중 목조건축물은 23개. 이중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무위사 극락전, 법주사 팔상전 등 절반이 넘는 13개가 사찰목조건축물이다. 보물은 전체 1482개 중 목조건축물은 122개로 이중 사찰목조건축물은 67개다. 시도유형문화재는 전체 2105개 중 목조건축물 641개, 사찰목조건축물은 149개다.

1984년 화순 쌍봉사, 1986년 김제 금산사, 2005년 양양 낙산사, 2008년 고창 문수사 등 사찰에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았다.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피해는 국가적으로 사찰 목조건축물 방재 시스템 점검의 계기가 됐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해인사, 봉정사 등 4개 사찰에서 시범사업만이 진행 중이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일부 사찰은 사찰 · 종단 ·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으로 화재예방 및 방재시설 등을 잘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찰은 형식적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인사 대비로전의 경우 화재 발생시 자동감지시스템에 의해 국내 최고(最古) 목조불인 비로자나불이 지하 6m 안전공간으로 하강해 위험요소로부터 자동격리 되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췄다. 해인사와 함께 사찰 방재대책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무위사, 봉정사, 낙산사에는 권역별로 소화전이 설치되고 방화수림이 조성되는 등 방재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찰은 CCTV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소화기, 소화전 등 기본적인 소화설비만으로 형식적인 방재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경기도 A사찰처럼 소화기가 있어도 작동이 안되거나, 충북 B사찰처럼 법당 면적에 비해 소화기 대수와 용량이 부족한 곳도 있었다. 포항 C사찰은 소화전이 있어도 위치가 부적합했고, 호스가 체결이 안돼 화재시 무방비에 가까웠다. 이같은 현실은 사찰목조건축물에 대한 방재대책 마련이 예산 타령만 할 때가 아님을 대변하고 있다.

전문가들에게 대책을 묻자 숭례문 처마로 솟던 불길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소방개념전환부터 정밀실사, 법령정비, 화재예방, 화재감지, 예산확보, 매뉴얼 마련 등.

2년 전 숭례문 개방에 반대하며 전망대 설치를 제안했던 김동현 위원(문화재위원회, 前 동국대 교수)은 "일반인들 출입이 잦은 사찰 목조건축물은 숭례문과 달리 접근을 차단해 보존할 수 없다. 일본 고야산이나 중국 자금성처럼 오직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방재대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관련기사 3면, 4면, 27면> 조동섭 기자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 불자 선수에 장학금 지원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회장 이기흥)는 스포츠계 발전과 불자체육인 발굴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체육인불자연합회는 2월 20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국가대표를 비롯한 5명의 불자 선수들에게 총 7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지난해 10월 창립한 체육인불자연합회는 매년 각 지역의 중 · 고등학생 체육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불자 학생들을 발굴 · 지원해 왔다. 15개 광역시도 지부별 장학금 수여식은 2월 말부터 3월 초에 걸쳐 지부별로 진행된다.

한편, 체육인불자연합회는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출전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후원회를 조직하고 국가대표선수촌 및 북경 올림픽대회 경기장을 격려 방문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여수령 기자

▶◀ 哀悼詩

숭례문이 불타다니

-청화

저런!
저런!
저런!
숭례문이 불타다니.
반만년
우리의 숨결로 쌓아온 높은 탑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게
숭례문이 불타다니.
무엇이냐
한날 마른 나무 토막처럼
숭례문을 태우는 저 불은.
혹 지금 머리에 이고 있는 하늘의
해와 달을 가리우는
우리들의 먹구름인 것이냐.
꽃을 물고 날으는 학이 아니라
도처에 꿀 꿀 꿀
땅을 뒤집는 돼지소리 뿐이더니
아 저런! 저런! 저런!
울리는 종도 없이
숭례문을 태우는 불.
우리 조금씩 화상을 입고
물을 마시며 불을 보자
불이 온 곳을 보자.
저것은
오천년의 무수한 細筆로 그린
이 나라 혼의 얼굴
묵은 한지에 배인 불빛같은 얼굴
아 그 얼굴
숭례문이 불타다니
숭례문이 불타다니.



<약력>
1977년 불교신문,
197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
現 조계종 교육원장.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허허당의 세상만사

■ 획

새가 하늘을 날 때 오직
제 몸에 붙은 날개 하나뿐이듯이
수행자가 의지 할 곳은 오직
제 몸에 붙은 등뼈 하나뿐이로다.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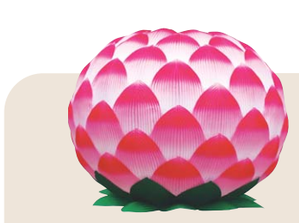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축접등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만월등(주름등)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조계종은 지금 선거 중

본사주지 · 종회의원 보궐 잇달아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의 선거 열기가 뜨겁다. 제5교구본사 보은 법주사와 제14교구본사 부산 범어사,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는 2월 말과 3월 초에 걸쳐 주지후보와 중앙종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개최한다.

지난해 주지선출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제주 관음사(주지 원종)는 2월 22일 14대 중앙종회 의원 2명을 선출하기 위한 산중총회를 연다. 지난 2006년 치러진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관음사는 후보등록 과정의 종법위반 논란으로 후보자를 선출하지 못했었다. 이번 재선거에는 도종(월라사 주지) 법정(불굴사 주지) 승언(흥부암) 진우 스님(관음사 총무국장) 초격(파주 보광사 주지) 현강(보리사 주지) 혜민(범어사 기획국장) 스님이 후보등록했으나 진우 스님이 입후보를 철회해 6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본사주지 선출은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와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에서 이뤄진다.

범어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경선)는 오는 3월 6일 오후 1시 범어사 보제루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입후보 등록기간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로 공지했다. 현재 정여 스님(부산 여여선원 주지)과 상운 스님(중앙종회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범어사동산문도회는 지난 1월 31일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능가 스님에 대한 문장착좌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선거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어 범어사(주지 대성)는 2월 23일 오후 3시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차기 주지 선출 논의를 위한 문중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후보 단일화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주사는 3월 10일 산중총회를 열기로 하고,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입후보등록을 받는다. 현재 중앙종회의원 노현 스님(각화사 태백선원장)과 前 충주 세계사 주지 법명 스님, 성천 스님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문중 합의를 통해 주지후보를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2월 23일 각 문중별 대표 50명이 참석하는 사찰운영위원회에서는 주지후보단일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10·27법난 특별법' 17대 국회서 제정될 듯

국회 국방위 '10·27 법난 특별법안' 상정



국회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2월 13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10 · 27 법난 피해자 특별법안' 요약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17대 국회 임기 중에 10 · 27 법난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성곤)는 2월 13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0 · 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서면 검토해 상정했다.

권대수 수석전문위원은 "두 법률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이미 1년여에 걸친 조사활동을 통해 조사결과와 권고사항도 발표됐고, 피해 보상에 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도 있어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며 "만일 입법을 할 경우에는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위원은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의견 수렴 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추계도 선결 과제라 판단돼 우선 명예회복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입법보다는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10 · 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지켜본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상정안 의결까지는 법안 심사소위를 비롯해 국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 다섯 차례 정도의 회의를 남겨주고 있다"며 "현재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중 일부가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대표발의를 한 안명옥 · 윤원호 의원 등을 중심으로 법안 상정 취지를 잘 이해시켜 이번 임기 중에 의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도 2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10.27법난 특별법은 정권이 불교계에 저지른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불자들 신행문화 정착에 큰 기여

월간 '불광' 2월호로 지령 400호 맞아 행사



잠실 불광사(회주 지홍)에서 매월 발행하는 <불광(佛光)>이 이번 2월호로 지령(誌齡) 400호(사진)를 맞았다. 1974년 11월 창간호를 낸 지 정확히 33년3개월 만의 일로 단 한 번의 휴간 없이 꾸준히 발간됐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월간 <불광>은 그동안 초심자들에게 교육과 신행을 지도하는 신행잡지로서 불교계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양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호평 받고 있다.

<불광>창간은 광덕(1927~1999) 스님의 '문서 포교'에 대한 발원에서 시작됐다. 광덕 스님은 1974년 서울 종로 3가 대각사에서 불광회를 창립해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 운동에 앞장섰다. 이 실천 운동을 문서로 상징화 한 결정물이 바로 <불광>이었다. 필진들도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 질 정도로 쟁쟁했다. 경봉 운허 석주 성철 일타 고산 지관 스님을 비롯해 양주동 이어령 서정주 이숭녕 이기영 등 당대의 선지식들과 지식인들이 참여했다. 또한 '해탈에 이르는 길' '노사의 운수시절' 등 수행담과 전국 사찰 탐방, 불교예법 등이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우수한 필진과 세련된 디자인, 참신한 기획으로 불자들의 지적욕구와 의사소통을 총족 시켜준 <불광>은 1994년 '제 3회 문공부 선정 우수 잡지'와 2005년 '한국잡지협회 선정 우수 잡지'로 선정돼 표창 받은 바 있다.

한편 월간 <불광>은 400호 발간을 기념해 2월 27일 오후 6시30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축하 · 나눔의 밤' 행사를 마련한다. (02)420-3200

김주일 기자

"동국대 로스쿨 탈락 시정 돼야" 한 목소리

집회 · 대책회의 · 종단 모임 성명 등 줄이어

그간 동국대 로스쿨 탈락에 성명서 발표로 그쳤던 교계가 설 연휴 이후 항의 집회와 대책회의를 갖는 등 대응 움직임이 활발하다.

2월 11일 동국대 교수회(회장 정재형)와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전순표), 동국대 석림동문회(회장 현보) 등으로 구성된 동국대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항의 집회에는 법타 스님(은해사 주지)과 종호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이운영 사무총장(동국대 총동문회)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예비인가 선정이 교육여건과 지역균형발전의 조화를 무시했다 ▲로스쿨 정원 2천명 선정의 근거 ▲5개 권역 분류로 역차별 당한 피해대학의 대책마련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의 부당함 등 이번 로스쿨 예비선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로스쿨 도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로스쿨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월 12일에는 지역단위로는 처음으로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의회가 로스쿨에서 탈락된 동국대의 부당함을 토로하며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신년하례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2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52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단체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여수령 기자

33개 관음사찰 순례 관광 상품 개발된다

국내 33개 관음사찰을 순례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개발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한국관광공사(사장 오지철)와 공동으로 '33개 관음사찰 순례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은 2월 1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다.

이번 순례상품은 연간 80여만 명에 달하는 일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총 4~5회에 걸쳐 국내 33개 관음사찰을 참배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33개 사찰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하게 된다.

여수령 기자

봉은사 2008년 첫 재정공개

지난해 사찰 세입세출 내역을 공개해 재정 투명화 바람을 일으켰던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2008년 1월 세입세출 내역을 발표했다. 봉은사는 올해부터 매달 정기 신도임원 법회를 통해 전월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2월 13일 열린 신도임원 법회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월중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억3600여 만원, 불공 수입 4억8700여 만원, 불전수입 1억1400여 만원 등 모두 12억 여원이다. 지출은 법요행사비 5500여 만원, 인건비 2000여 만원, 관리운영비 1억2300여 만원, 목적사업비 1억4100여 만원 등 모두 6억6790여 만원이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지사 : (062)268-150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 (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2008학년도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서울,부산]

불교대학 최초 명상학과 개설 / 대학원 과정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개설 / 법사과정(3년제)신설

2008학년도 입학생 전원에게 50% 장학 혜택이 주어집니다

모집과정
● 대학 과정(서울 · 부산)
◇입문과정(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불교학과 (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명상학과(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대학원 과정(서울 · 부산)
◇불교학과(서울·부산) : 야간 00명 [주 2회 출석]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법사 과정(서울 · 부산)
◇법사과정(서울·부산) : 주·야간 00명 [3년제, 주 2회 출석]

강의시간 ●주간 - 오후 2시 ~ 4시 40분까지 ●야간 - 오후 7시 - 9시 40분까지

지원자격 ● 대 학 과 정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일반 불자 및 직장인 환영)
● 대학원과정 : 불교학과 - 불교 교양 대학 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상담학과 졸업자, 상담심리과정 이수자
● 법 사 과 정 : 불교전법활동을 원하는자. 포교원,사찰을 운영하고자 하는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7년 12월 1일 ~ 2008년 3월 3일
● 입문·대학·대학원 전형 : 서류 전형

입학식일시 ● 부산대원불교대학 : 2월 23일(토) 오후2시 대원불교대학2층 큰법당
● 서울대원불교대학 : 2월 24일(일) 오후2시 다보빌딩 3층 다보사 큰법당

특 전 ● 법사과정 졸업 후 법사고시에 응시, 합격자에 한하여 법사수료증을 수여
● 불교전문심리상담사 1,2급 자격증부여
● 명상전문지도사 1,2급 자격증 부여

학과목소개
● 대학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개론. 인도불교사. 불교의식의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반야사상.부파불교의 이해. 불교경전 강독. 유식사상. 중국불교사상. 정토사상. 화엄사상. 선사상. 한국불교사상.
◇명상학과 : 불교명상학의 이해. 종교명상학의 이해. 선의이론. 명상교수법. 명상학연구. 간화선의 이해. 위빠사나수행의 이론과 이해. 인도불교명상의 이론과 이해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불교와 심리. 상담의 실제. 상담심리학의 기초. 집단상담의 실제. 성격심리학. 불교학개론. 초기불교의 이해. 반야사상. 불교와 마음치료. 불경과 상담, 발달심리학. 상담실습. 심리평가. 유식사상. 화엄사상
● 대학원과정
◇불교학과 : 초기불전강독. 중관학연구. 부파불교연구. 정토사상연구. 초기불교연구. 유식학연구. 대승불전강독. 화엄사상연구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상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상담면접 및 실습. 집단상담실습. 심리검사. 상담자교육. 인지치료및 이해. 청소년상담및 실습
● 법사과정
◇불공의식. 장례의식. 사찰습의. 설법연구. 설법이론. 설법실수 사찰경영론. 신도관리론. 종무행정론 외

특 전 ● 서울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3층 ☎ 02)707-1072, 706-1571
● 부산 : 부산 금정구 장전동 382-3 ☎ 051)583-7811

※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등록금 납부 시 카드 결제 및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Daewon never sleeps ◉ (재)대한불교진흥원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2008년 봄 대원정사 문화교양교실

2008년도를 맞이하여 행복도량 대원정사에서는 불자 및 일반인을 위하여 각 분야의 최고 강사진으로 구성된 고품격 문화강좌로 회원님 한분 한분께 다가가는 최고의 서비스로 새로운 문화교양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또한 행복도량 대원정사는 회원님들의 애정과 정성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드리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대원정사 문화교양교실 안내
▶ 개강 : 3월 초 ▶ 종강 : 5월 말 ▶ 월회비 : 3만원 ▶ 장소 : 대원정사 불교문화회관1층 ▶ 문의 : (02)754-1613

※ 대원정사 문화교실회원(월회비 3만원)이 되시면 모든강좌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으며 초하루기도 시 무료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 전	오 후	저 녁
월 요 일	불교경전강의:아함경(디가니까야) · 시간 : 10시 30분	사찰요리(선재스님) : 오후 2시 30분 와인강좌(헬렌 김) : 3시 30분	
화 요 일		커피강좌(권장하교수) 오후2시30분 다도(최미영강사) : 2시 꽃꽂이(강경희강사) : 3시 30분	
수 요 일	문화답사 · 박물관기행 (최광자): 매월 첫째주 · 불교문화답사(지장스님) : 매월 둘째, 셋째주	떡, 궁중요리,푸드스타일, 어린이 음식 강좌 · 오후 2시 · 강사 : 이희경강사	
목 요 일	차명상(지장스님):오전10시30분 요가(김경희강사):11시 30분	노래연습(합창) : 오후 1시 생활명상/차명상 : 오후 2시30분/지장스님분	생활명상/차명상(지장스님) 오후 7시 30분
금 요 일		아로마테라피(박준아 강사) : 오후 2시 경락/지압(박지혜강사) : 오후 3시 30분	
토 요 일		생활명상 집중수련 : 오후 2시 부터 · 매월 3주 (월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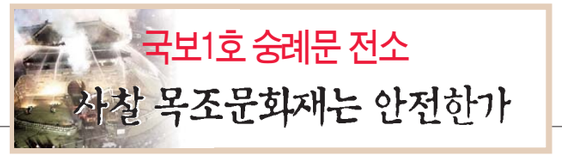
❖ 대원정사 문화교양 교실 강사진 소개
· 사찰요리 : 선재스님 / 선재사찰요리연구원장
· 커 피 : 권장하 교수
· 와 인 : 헬렌 김(와인전문회사 에스텔라 대표)
· 다 도 : 최미영 강사
· 꽃꽂이 : 강경희 강사
· 문화답사 : 박물관기행(최광자), 차문화, 불교문화답사(지장스님)
· 요가 : 김경희(불교방송다보원 요가강사)
· 생활명상 / 차명상 : 지장스님 (대원정사 주지, 초의차명상 원장)
· 아로마테라피 : 박준아 (경기대 민간요법 석사과정, 아로마테라피 샵 운영)
· 경락의 신비 : 박지혜 (중의대 졸업, 경기대 대체의학대학원 석사과정)
· 떡,궁중요리,푸드스타일,어린이 음식강좌 : 이희경 강사 (궁중요리사전문가, 푸드스타일리스트)

▣ 2008년 봄 웰빙 일요특강
▶ 장소 : 후암동 대원정사 1층 큰법당 ▶ 시간 : 일요일 오전 11시

순 서	일 자	강 좌 내 용	강 사
1차	3월 9일	사찰요리	선재스님(선재사찰요리 연구원장)
2차	3월 16일	불교음식에 깃든 정신	김응철교수(중앙승가대 교수)
3차	3월 23일	우리문화의 얼과 정신(문화답사)	이세용(우리문화 해설가)
4차	3월 30일	자비명상	묘운스님(행복명상원장)
5차	4월 20일	홍차의 효능과 맛있게 마시는 법	정영숙 교수(부산여대교수)
6차	4월 27일	생명과 환경 윤리	이재돈 신부(카톨릭대학 교수)
7차	5월 4일	우리 전통음식의 맛과 비결	향적원사장(전통짱아치 연구원장)

행복도랑 ◉ 대원정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02)754-1613 / 754-9171
팩스 (02)771-6796
www.idaewon.or.kr

2월 10일 발생한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참사는 전체 지정문화재의 35%를 보유하고 있는 불교계에도 적지 않은 충격과 교훈을 남기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발행한 <2004년도 화재통계연보>에 따르면, 사찰화재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해마다 5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교계는 1984년 발생한 화순 쌍봉사 대웅전(보물 제163호) 화재와 1997년 회암사 선각왕사비(보물 제387호) 화재, 2005년 산불로 인한 양양 낙산사 화재 등으로 수많은 성보가 잿더미로 변하는 참사를 겪었다. 하지만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예산부족 탓 방재시스템 구축 '미비'

사찰 방재대책 현황·문제점


관촉사 소방차.


마곡사 소방시설.

대형사찰선 첨단 시설 구비 · 대다수는 소화기 비치 수준
화재시 행동지침 이해 · 산간지역 사찰 소방로 확보 시급

▲불교계 방재대책 실태는=양양 낙산사 화재로 낙산사동종(보물 479호)을 비롯한 성보를 잃은 불교계는 이후 방재대책 수립에 힘써왔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2006년 전국 30여개 주요사찰을 대상으로 방재대책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주요사찰 방재대책 현황조사 보고서>로 발간했다. 또한 일본을 방문해 사찰 방재시스템을 현장 조사하는 한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함께 화재예방 등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도 앞장섰다.

이후 2007년과 2008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각각 15억과 17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해인사, 무위사, 봉정사, 낙산사 등 4개 사찰에 대한 방재대책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찰의 문화재 실태를 파악한 후 권역별 소화전 설치, 수로 및 안전선 확보, 방화수림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마무리되어야 할 방재대책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해인사의 방수포 시설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는 등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일선 사찰에서의 화재예방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을까?

낙산사 화재 이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찰들은 소화기와 소화전, 화재감지기와 CCTV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화재 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역 소방서와 연계해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사찰 내에 소방차를 배치하는 곳도 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를 폐기처분하는 대신 대흥사와 백련사, 무위사 등 지역 사찰에 배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재대책 역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이 본지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계종 교구본사나 대형사찰의 경우 첨단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화재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산간 지역에 위치한 사찰은 소방로 확보조차 쉽지 않은 형편이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조계사(주지 원학)는 30여 대의 소화기를 비치한 것은 물론 10여 대의 CCTV로 24시간 법당과 경내를 살피고 있다. 주간에는 종무원이, 야간에는 경비인력 4명이 방범활동을 펼친다. 이세용 총무과장은 "조계사 법당을 24시간 개방함에 따라 신도들이 법당에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다"며 "화재 시 소방서에서 5분 내 출동이 가능하며 자체 점검과 정기 방재훈련을 통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주문을 포함한 법당을 대상으로 화재보험도 가입해 놓은 상태다.

김천 직지사(주지 성응)는 국고보조금 1억 4000만원을 투입해 2005년 방재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완 정비했다. 소방서가 직지사에서 1시간 거리이므로 자체적인 소방시설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숭례문 화재 이후 2월 14일 방재시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소화기 20개 정도를 보강할 예정이다.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는 자체 예산 1억원으로 배전반을 마련하는 등 전기시설 관리에 나섰다. 또한 대웅전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문제는 자체 화재보다 산불이다. 산불이 사찰로 옮겨 붙을 경우를 대비해 1년에 2회씩 소방서, 군부대, 동사무소, 구청 등과 함께 합동 소방훈련 실시하고 있다.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는 주지스님을 대장으로 하는 자위소방대를 구성했다. 국장스님들과 종무원이 포함된 자위소방대 내에는 문화재 반출반을 비롯해 급수조, 소화전조, 소화기조 등 담당분야를 세분화 해 전문성을 더했다.

2월 26일 소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예산 수덕사(주지 옹산)는 현재 50톤 분량의 저수탱크를 250톤으로 늘리고 수압을 높일 수 있는 펌프장치도 설치할 계획이다. 역시 자위소방대를 구성해 비상시 대처능력 향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강화 전등사(주지 혜경)는 지난해 탱화 등 문화재의 2차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친환경 소화기 10여대를 추가로 도입했다. 현재 경내 CCTV는 낙뢰사고로 보수 중이며, 소화전과 수조탱크 역시 노후화돼 보수할 예정이다. 박석암 기획팀장은 "인근 지역이 사적(史蹟)으로 지정돼 소방도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근 길상면 소방서에서 5분내 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4대 기도성지로 연간 참배객이 끊이질 않는 강화 보문사는 섬 내의 의용소방대와 함께 수시로 출동훈련을 하고, 마애불 주변의 산불 예방을 위해 소화전 점검을 겸한 화재예방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야간에는 굴법당을 제외한 경내 전각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각 전각마다 화재보험을 가입해 뒀다.

▲사찰 방재대책 무엇이 문제인가=조계종이 2006년 발간한 <주요사찰 방재대책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사찰의 방재대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일부 사찰에서는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을 갖추고 상황훈련을 실시하고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상당수의 사찰은 소화전 몇 개와 소화기를 비치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찰이 산간 지역에 위치해 소방용수가 부족하고, 소방차가 도착하더라도 소방로 확보가 어려워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 많은 형편이다. 거의 모든 사찰이 설치해 둔 소화전도 동선과 화재진압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치되어 있거나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화재 시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방화수림을 불에 타기 쉬운 수종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과의 안전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예도 있어 오히려 피해를 확대시킬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숭례문 화재참사에서도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이 진압방식을 두고 논란을 벌이다 국보를 전소시킨 예에서도 볼 수 있듯, 문화재 소방개념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화재 발생 시 행동지침에 대한 이해와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압노즐 등 특수소방설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여수령 김강진 조동섭 기자

◆사찰 화재 발생 현황

발생일	사찰명	피해정도
1984년	화순 쌍봉사	보물 제163호 쌍봉사 대웅전 전소
1984년	예천 용문사	대장전(보물 제145호)을 제외한 모든 건물 전소
1986년	김제 금산사	방화로 추정되는 불로 보문 제476호 대적광전 전소
1997년	회암사 선각왕사비	산불로 보물 제387호 선각왕사비 몸돌이 화기(火氣)에 노출
1997년	문경 김룡사	원인불명의 화재로 대웅전, 지장전 제외한 전각과 전적류 소실
2003년	원주 구룡사	전기누전으로 대웅전(강원도유형문화재 제24호) 소실
2005년	양양 낙산사	보물 제479호 낙산사 동종을 비롯한 전각들이 불에 탔으며, 낙산사 칠층석탑과 사리탑이 화기에 노출
2008년	고창 문수사	한산전과 한산전 내 문화재급 편액 등이 전소

<자료제공=조계종 발간 '주요사찰 방재대책 현황조사 보고서'>

"목조문화재 화재 연속적 발생 우려"

기고 전기사랑실천연합 임행균 사무총장

'숭례문이 불타고 있다'는 뉴스를 듣는 순간 철렁 가슴이 내려앉는 것과 동시에 "제발 불국사, 해인사 그리고 쌍계사 등 아름답고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무사해야 할 텐데"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숭례문 화재에서 보듯이 목조건축물은 일단 점화된 후에는 진화가 매우 어려워 가능한 화재 발생 요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목조건축물 화재 원인 대부분이 전기화재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전기설비가 무분별하게 시설된 채 방치되고 있어 소중한 문화유산이 화재로 소실되는 제2, 제3의 숭례문 비극이 예견되고 있다.

전기화재에 취약한 목조건축물의 전기설비 개선을 위해 조사 · 연구해 온 전기기술인으로서 불국사, 해인사를 포함한 전국의 주요 목조건축물들이 전기화재에 심각하게 노출되어있는 실태를 잘 알고 있다.

목조건축물의 구조적 · 문화재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무분별한 전기설비의 설치는 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빈번한 전기화재 발생, 산불피해로 확산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화재건축물은 전기배선의 안전한 은폐시공이 어렵고, 문화재 원형 훼손이 엄격히 제한돼 일반 건축물에 비해 특수한 기술적 검토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별도의 기술적 · 제도적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전기설비가 설치 및 관리되고 있어, 전기화재 발생 우려가 높다. 초기 점화 시 가연성이 매우 높은 PVC전선이나 PVC전선관 배선을 주변 소나무에 마치 빨래 줄처럼 동여매는 등 전기화재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기누전으로 인한 경주 불국사 화재사고 같은 전기원인화재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끊임없이 소실되는 참담한 현실에서도 화재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현재 화재의 원인이 되지 않는 배선공법을 비롯해 목조건축물에 적합한 전기설비공법이 개발되어 있다. 전기화재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된 부적합 전기설비의 교체를 비롯해 목조건축의 특수성에 적합한 전기설비를 위한 법적 · 제도적 환경구축이 절실하다.

숭례문 화재라는 비극적 사건이 전국 전통사찰을 비롯한 목조건축물 전기설비 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대책 마련 실천의지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의회
종교편향으로 이루어진 로스쿨 예비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의회는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에 소재한 조계종 말사 주지와 조계종 승려들의 모임으로써 지난 2월 9일 정기회의에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선정 내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회의를 통해 우리들의 입장을 지면을 통해 밝히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회원 사찰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불교계를 무시한 부당한 결정임을 알리고 재심사를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종교편향 정책이 근절되고 상처 입은 불자들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종립 동국대학교는 자타가 공인하는 100년 전통의 민족사학이며, 60년 법학대학의 역사를 지닌 명문사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인의 산실인 동국대학교가 배제되었다는 것과, 사법시험 합격자수 전국 16위로 200명의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한 대학을 제외하고 오히려 극소수의 법조인을 배출한 대학이 선정된 점 등의 결과를 볼 때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치 논리를 개입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2. 우리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의회 회원 일동은 지역균형이 중요하다면, 다종교 한국사회에서 종교적 형평성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1700년 불교전통문화가 국민정서에 깊숙이 배어 있으며, 2천만의 최대 종교 인구를 가진 불교 종립대학이 선정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의 종립대학들이 2~3곳씩 선정된 것을 보면 국가 정책의 종교편향이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불교 법조인 양성의 기회를 위태롭게 하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

3. 불교계의 명문사학 동국대학교가 지역균형 발전의 명분 속에서 심사에서 배제되었다면, 소위 일류대를 제외하고 로스쿨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던 중위권 대학들은 처음부터 불이익을 안고 있었을 것이므로 지역적 안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각 권역별 대학 평가 점수 결과를 공개하여 예비인가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선정과정을 밝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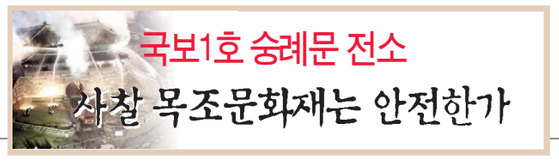
우리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의회 회원들은 이와 같은 로스쿨 정책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종단 차원의 불교계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할 것을 안건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정부당국은 졸속한 심사와 종교편향 결정으로 이루어진 로스쿨 추진을 재점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재심사를 통해 오는 9월로 예정되어 있는 본인가에서 추가로 선정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불기 2552(2008)년 2월 12일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의회 회원 일동

대한불교수도원(주지 설곡), 용화사(주지 각연), 관음사(주지 현진), 화장사(주지 무진), 화림사(주지 각의), 연꽃피는절(주지 자행), 법인정사(주지 무아), 한국사(주지 지원), 광덕사(주지 일봉), 보문정사(주지 묘정), 평화사(주지 선현), 혜은사(주지 덕산), 안심사(주지 현인), 지장사(주지 상락), 월명사(주지 동찬), 광제선원(주지 원행), 청수사(주지 정념), 광명선원(주지 현문), 성무호국사(주지 동광), 호국충룡사(주지 상찰). -무순-

1984년 화순 쌍봉사 화재는 부처님 오신 날 밤 법당 안 촛불이 쓰러지며 순식간에 대웅전 전체를 화마가 휩쓸었다. 그 이후에도 사찰 및 문화재 화재는 이어졌다. 2005년 양양 지역 산불로 불에 탄 낙산사가 대표적 사례다. 숭례문 화재로 목조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사찰의 화재방지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문화재 화재가 소실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불교목조 건축문화재를 지킬 방법은 없을까? 우선 법률 정비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현재 문화재의 소방 방재시설과 관련된 조항은 '문화재보호법 제88조(화재예방 등)' 뿐이다. 소방설비를 구축해야 한다는 원론에 머문 상황에서, 문화재 보호와 특수소방설비 등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보1호 숭례문 전소
사찰 목조문화재는 안전한가

법률·시설 보완 인식 전환 시급

사찰 방재대책 방안 모색

세부적인 법률 정비 등에 앞서 문화재에 대한 소방개념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계종 문화부장 수경 스님은 "(인명 구조와 재산 보호를 위한) 현재 화재진압 개념으로 설치된 사찰 소방설비를 (문화재 보호를 위한) 화재예방 및 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 보존개념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열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도 "화재진압에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화재를 감지하고 신고하는 것이 너무 늦다. 화재감지 후 통보하는 무인자동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분희 행정관(조계종 문화부)도 "방재설비를 모두 갖추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화재감지시스템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 방재설비를 위한 예산확보도 절실하다고 사찰건축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계종이 문화재청으로부터 2007년과 2008년 각각 15억원과 17억을 받았지만 이 돈은 해인사, 낙산사 등 4개 사찰 방재대책시스템 구축에 사용됐을 뿐 전체 사찰목조건축물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불교계 자체 예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해 교계 한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은 무조건 국고 보조로 해결하겠다는 교계인식부터가 문제다. 사찰 관람료 중 예치금을 이용해서라도 소방 방재시설을 완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 확인 결과 관람료 중 예치금 대부분이 사찰 불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방재대책 관련 예산편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동현 위원(문화재위원회, 前 동국대 교수)은 "국가 차원의 대책과는 별도로 종단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교계 차원의 정밀실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현재 완료된 국보, 보물 등 건조물 124건에 대한 조사를 전 사찰구조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실태 파악 후 사찰 환경에 맞는 방재대비 매뉴얼 작성도 필수다. 김봉열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에 대해 "전체 사찰을 아우른 매뉴얼이 아니라 각 사찰별 혹은 유형별로 작성된 매뉴얼이 필요하다. 총론이 아닌 각론이 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대책들과 별도로 사찰건축문화재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애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조동섭 기자



일본 고야산 단상가람 어영당의 상향식 수막 시스템의 작동 모습. 국내 사찰 목조건축물에도 수막 설비를 응용·적용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사찰 목조건축물 화재보험 가입한다면?

得 거액 복원 비용 보장 든든

失 보험료 사중살림 큰 부담

숭례문 소실에 따른 복구비용이 약 200억원으로 알려지면서, 거액의 복원비용이 필요한 사찰 목조건축물 특성상 화재보험가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사찰목조건축물은 보험가입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동부화재 김정기 주임은 "산중 사찰에 화재가 발생하면 전소되기 쉽다. 때문에 적은 금액을 받고 거액을 보장해야 하는 보험사로서는 위험부담이 커 인수를 꺼리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화재보험은 계약 전 실사를 통해 보험가액을 정한다. 사찰 방재시설 등도 참고 된다. 따라서 사찰 방재시설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보험료 할인에 도움 된다. 동부화재가 사찰에 특화해 판매중인 '사찰 종합보험'은 2008년 2월 현재 96건이 가입됐다.

반면에 사찰 목조건축물 보험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분희 행정관(조계종 문화부)은 "문화재는 훼손 후 복원해도 원래 가치를 되찾기 힘들다"며 보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행정관은 "방재시설을 위한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가입보다는) 방재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조동섭 기자

화재감지·진압 설비 완벽 구비

일본의 문화재 방재관리법

문화재 방재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는 일본도 한때 '숭례문 참사'와 같은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다. 1950년 7월 2일 교토에 위치한 긴가쿠지의 긴가쿠(金閣)가 방화로 소실된 것이다.

긴가쿠지는 1397년 건축돼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록된 일본이 자랑하는 문화유적지다. 당시 화재는 21살 행자승이 범인으로 실연의 아픔으로 사회에 복수하기 위해 저질러진 참사였다.

이보다 앞선 1949년 1월 26일에는 나라현에 위치한 호류지 금당(金堂)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구려 승려 담징이 그린 금당벽화 대부분이 소실됐다. 화재는 벽화 모사 작업을 하던 한 연구원이 사용하던 전기담요가 원인이었다.

긴가쿠지와 호류지 2곳의 화재 이후 충격에 빠졌던 일본은 대대적으로 문화재 방재시스템을 정비했다. 일본의 문화재 방재시스템은 일본 전체 문화재의 9%가 소장된 와카야마현 고야산으로 대표된다.

고야산 소방시스템은 1965년 수립된 계획으로 조기경보체제, 소방선로 등 문화재 방재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췄다. 일본 사찰문화재 방재시스템은 화재진압이 아닌 화재감지와 화재시 문화재 격리를 기본 개념으로 한다.

어영당(御影堂)에는 상향식 수막시스템이 설치 돼 화재시 건물 외부에서 위쪽으로 물이 뿜어진다. 수막 커튼은 화재진압보다 옆건물 혹은 산불 등 외부 화기가 해당 건물로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숭례문의 주검을 바라보며



기고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연구원장

숭례문의 화재의 현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매일 일간지들은 몇 페이지 씩 대서특필하고 있다. 화재가 일어났던 날 나는 이침 일찍 통도사로 향하고 있었다. 괘불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그 날 저녁 TV 뉴스에서 30여분에 걸친 자세한 보도를 접했다. '나라의 대문'이 무너지는 장면은 나라가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다. 전국이 초상난 집처럼 적막감이 흐르는 듯했다. 나는 세 가지 면에서 이 국가적 비극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것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선 방화범 개인의 국가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2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기의 토지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불을 질렀다고 한다. 토지와 단독주택에 상응하는 4억의 보상금이 1억에 그치자 수차례 탄원했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어도 패소했다. 아마도 그 후 그는 집이라도 장만했는지 70세 된 노인이 끼니를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 이 없는 듯하다. 결국 모든 것이 정부의 실정에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찰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토가 공사판으로 자연이 극도로 훼손되고 있다. 무자비한 약육강식의 세태에서 약자의 억울함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호소할 데 없는 그들의 원한이 얼마나 클 것인가. 불교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하나는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것이다. 문화예술 관련 부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개인적 이익과 권력에 관심이 있을 뿐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이 없다. 문화유산을 올바로 연구하고 이해하고 대중에게도 전달한다면 모두가 문화유산에 대하여 애정을 갖게 되며, 따라서 올바로 관리하려는 의무감을 자연히 갖게 될 것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로 가르치는 곳이 별로 없으니 악순환은 계속 될 뿐이다. 숭례문의 경우, 신문지상에 언급되는 것은 막연한 애탄뿐이다. 어느 학자 한 사람 이 숭례문의 예술적 가치를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저 궁궐 건축의 하나로 가장 오래된 조선초기의 건축물이라느니 웅건한 건축이라느니 하는 내용뿐이다. '문門'이란 중요한 상징을 띤다. 사찰의 '일주문(一柱門)', '사천왕문(四天王門)', '불이문(不二門)' 등을 거치는 것은, 절대적 진리인 법계라는 세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일종의 통과의례 절차를 겪는 과정이다.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면서 영화(靈化)되는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는 절대적 진리의 세계에 결코 들어 갈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숭례문은 우리나라의 궁성에 들어가는 정문(正門)이며 대문(大門)이라는 상징성을 띤다. 즉 하늘의 아들이란 천자(天子)의 위상을 지닌 세속적인 절대적 존재가 거주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징을 모르니 애정이 생길 리 없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건축은 이번 화재로 얼마나 다른 나라에 없는 건축적 요소들을 구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건축은 지붕에 용의 얼굴을 장착했다. 또 기와에는 연꽃을 장식했다. 그리고 공포(?包)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형상화한 모양인 영기문(靈氣文)을 띠고 있다. 용과 연꽃은 모두 물을 상징하고 있으며 공포도 물에서 일어나는 신령스러운 기운이어서, 우리 조상들이 삼국시대 이래 얼마나 화마(火魔)를 무서워했는지 알 수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현대장비를 모두 동원하여도 불을 끄지 못한 것을 보면, 예부터 우리의 건축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그 화마를 방지하려는 간절한 염원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온갖 상징을 띤 조형들로 심혈을 기울여 건축을 최고의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려 했는지 오히려 증명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의 건축에서 용을 일본인들이 가르친 대로 귀면(鬼面)이라 부르고, 연꽃을 단지 장식이라 인식하고, 공포를 공허하게도 번잡한 소의 혀 바닥이라 부른다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없다.

이번 화재는 정부의 실정과 학문적 오류 등 총체적인 정체성의 상실에서 일어난, 하늘의 응징이라 할 수 있다.

"정체성 잃은 시대에 대한 응징"

"우리 불교대학과 함께해요"

새 학기 맞는 부산·경남 불교대학들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

부산 경남에 포진한 불교대학들이 새해를 맞아 정진의 열정을 불태우는 불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교대학들은 신도자격증과 포교사 고시 응시 자격 부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자들을 위한 양질의 시스템과 다양한 강좌들을 마련하고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무자년 한 해 주목받는 불교대학 강좌들을 소개한다.

양산 통도사 불교대학(학장 정우, 055-382-7182)은 3월 6일 입학식을 하고 개강한다. 통도사 불교대학이 다른 불교대학과 다른 점은 다름 아닌 우수한 강사진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강사를 배출한 통도사 승가대학의 영향으로 다른 불교대학과 차별화된 모습을 자랑한다. 15년 동안 매해 300여명 졸업생을 배출한 통도사 불교대학은 초급자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기초 교리반에서부터 경전반 및 전문반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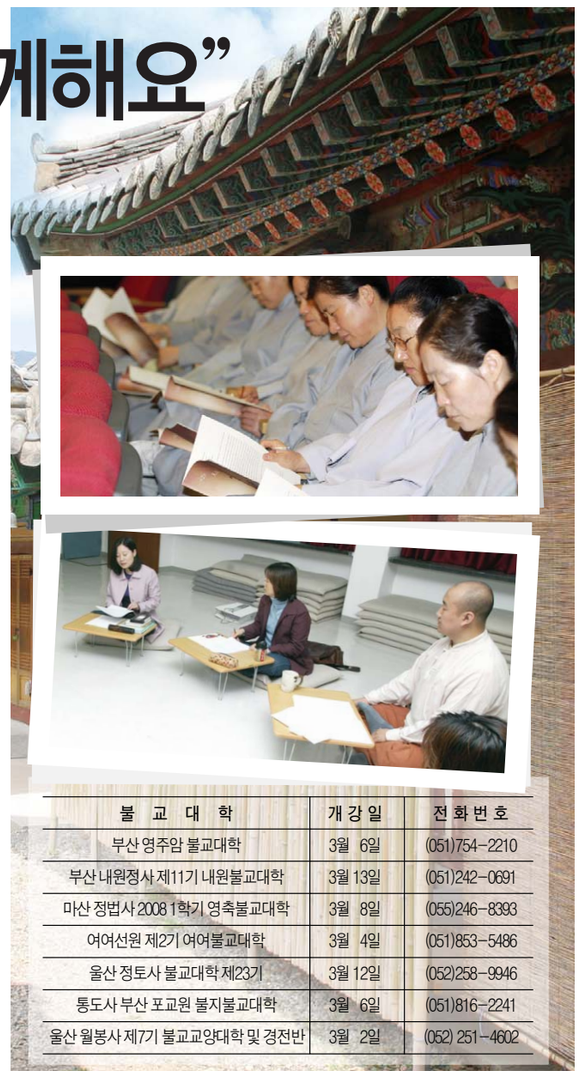
부산 범어사 금정불교대학(학장 대성, 051-866-7277)은 1월 19일 포교신도단체임원대회에서 그동안 진행한 학사 프로그램과 포교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20년 전 개교한 범어사 금정불교대학은 불교대학을 마친 후에도 동문회 활동 및 범어사 참선반을 통해 신행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불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08년 새 학기에는 전문교육기간, <육조단경> <금강경> <법화경> <불교유식학개론> <원각경>등 교과목을 개설해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마감은 2월 22일이며 입학식은 3월 2일 오후 2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강선태, 051-711-0108)은 기초교리반, 불교학과 등 경전공부 뿐 아니라 전통의식반, 한문반, 수화교실 등 문화 강좌도 개설하고 있다. 특히 수화교실 수강생에게는 수화통역사 시험에 응시하도록 추천함과 동시에 청각 장애인 포교 및 봉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전국적으로 많은 포교사를 배출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접수 마감은 3월 8일이다.

부산불교교육원 여래사 불교대학(학장 원범, 051-466-4080)은 경전공부와 함께 수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수업 전 매일 108배로 절 수행을 하며 수업을 마치기 전 참선 실수 시간을 가진다. 여래사 불교대학은 올해 제1기 불교학과, 제38기 불교입문자 과정, 종우 스님의 명법문 명강의 경전과정, 제3기 기초 참선 과정, 제5기 다도반 마음다루기와 다도 등 다양한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다. 접수마감은 3월 10일이다.

부산 고심정사 불교대학(학장 원택, 051-464-8450)은 부처님의 생애, 성철 스님의 사상, 사찰 예절, <반야심경> <금강경> 강의를 원택 스님, 각성 스님과 각 분야 박사급 교수들이 강의한다.

하성미 기자



불 교 대 학	개강일	전화번호
부산 영주암 불교대학	3월 6일	(051)754-2210
부산 내원정사 제11기 내원불교대학	3월 13일	(051)242-0691
마산 정법사 2008 1학기 영축불교대학	3월 8일	(055)246-8393
여여선원 제2기 여여불교대학	3월 4일	(051)853-5486
울산 정토사 불교대학 제23기	3월 12일	(052)258-9946
통도사 부산 포교원 불지불교대학	3월 6일	(051)816-2241
울산 월봉사 제7기 불교교양대학 및 경전반	3월 2일	(052) 251-4602

부처님의 제자로 성장 발원

제1기 홍법사 영·유아 수기법회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2월 13일 '제1기 홍법사 영·유아 수기법회'를 봉행했다. 수기법회는 부처님과 제자의 인연을 맺기 위해 봉행하는 법회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정수리를 만지며 현생에는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준 것에서 유래를 찾는다.

홍법사는 이번 수기법회를 위해 삼보사찰의 청수를 길어 7일 기도 후 관정수기용으로 사용하는 정성을 보였다.

주지 심산 스님은 "수기법회를 봉행한 것은 어려서부터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당당한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며 "지혜광명의 자비심을 내며 시대의 큰 기둥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유아수기를 하고 있다.

이번 수기법회에는 8개월 된 쌍둥이 백지현, 지혜양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어머니 윤나영(30)씨는 "쌍둥이들이 함께 이렇게 수기를 받을 수 있어 기쁘다"며 "행사 진행 중 우리의 소원을 적어 넣어둔 타임캡슐을 5년 뒤에 열어보고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수기법회에서는 3세 이하의 유아 25명과 2명의 태아를 포함하여 총 27명이 수기를 받았다.

하성미 기자

원효센터 '대승기신론' 강좌 열어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은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의 화엄종, 천태종, 선(禪), 정토종, 진언종 등 여러 종파에 영향을 끼치고 불교 발전에 이바지한 대승불교 해설서다. 특히 원효 스님이 주석한 <대승기신론 해동소(海東疏)>는 현수 스님의 <기신론의기(起信論義記)>, 혜원 스님의 <대승의장(大乘義章)>과 함께 3대소(大疏)라 일컫는 명저로 중국에서도 기신론 연구의 기본문헌으로 삼을 정도로 뛰어나다.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해동소>만을 심층 연구 강의하는 부산 수미산 아미타도량 원효센터(주지 공파)가 대승기신론 강의 수강생을 특별 모집한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기신(起信)은 말 그대로 믿음, 신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신심을 시작으로 발심하고 지속적인 정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공파 스님은 <대승기신론>은 믿음은 변하지 않는 발심의 근원이라 강조하며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개강은 2월 27일이며 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된다. (051)611-3808

하성미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정토사 덕진 스님

발원과 정진의 생활화 위해 노력

부처님의 가르침 쉽게 한글로 계단 없는 절, 접근 편리하게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사진) 가던 날은 무자년 정초기도 입재일이라 이른 아침부터 정토사 법당은 많은 불자들로 가득했다. 울산에서 어린이 지도자 양성과 어린이 법회를 27년간 지속하는 등 어린이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덕진 스님은 한문불교의식을 우리말로 바꾸는 등 각종 포교로 워낙 바쁘신지라 잠깐 인터뷰를 하는데도 미안함이 앞섰다. 하지만 정초기도 입재 중인데도 편안한 웃음으로 시간을 내어 주셨다.



덕진 스님은 "시민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고 신행생활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종 불공 및 기도 법회를 우리말로 진행해, 불자들이 의식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찰의 주련도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토사의 역할을 밝혔다.

스님은 사찰의 건축도 권위보다는 접근성이 편리하게 했다. 일반 사찰의 경우 웅장함을 강조하기 위해 대웅전을 높이지만, 정토사는 계단을 없애고 마당에서 바로 대웅전 문과 일치하게 하여 몸이 불편한 불자들도 쉽게 부처님 전으로 가게 배려했다.

스님은 문서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교천자문>을 출판했다. 한, 중, 영, 일어 4개 국어로 번역 수록된 이 책은 경전 8종 가운데 나오는 한 자를 뽑아 엮어 해외불자들도 부처님의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스님은 오랫동안 사찰 기도법회와 천도재, 각종 기도의식과 청소년, 어린이, 교도소, 병원 등 포교 현장에서 직접 쓴 발원문 80여 편을 용도별로 분류하여 <발원문 108선집>을 엮었다. 발원과 서원을 통해 현실 속에서 자신을 바르게 지키고, 수행을 곧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책을 엮은 취지를 밝혔다.

울산에서 최초로 조계종 신도전문 교육기관으로 인가받은 정토사 불교대학은 오늘날 정토사의 토대를 마련하게 해주었다. 벌써 23기를 모집하고 있는 불교대학은 1년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지역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동문들로 구성된 '밝은 세상' 정토사 자원봉사팀은 매일 신정동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실천을 이곳에서 회향하고 있다. "행정 처리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어서 요즈음은 복지관에서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다"며 스님은 잠시 여유로운 웃음을 띠었다.

스님과 어린이 포교는 불가분의 관계다. 창건 후 어린이 법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법회를 열고 있으며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을 엮임한 스님은 어린이 포교에 매진하는 이유를 묻자 "어린이 불심은 평생을 간다. 공양, 인사하는 법등 어릴 때 가르쳐야 실천이 빠르다"며 동심불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스님은 인터뷰를 마치자 바로 차를 몰고 복지관을 향했다. 스님의 몸이 왜 그리 가냘픈지 오늘따라 그 이유를 알게 하는 날이다.

오세룡 부산지사장

2008학년도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모집

대한불교 총본산 조계사에서는 2008학년도 불교대학·불교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동국대학교·중앙승가대학 등에서 강의하시는 스님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하여 수행과 실천을 하는 불자로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교대학

※특전 조계종 종단에서 실시하는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 부여(졸업생에 한함)
매학기 성적우수 및 신행봉사 관련 포상

교육과정(2년 4학기제)

1학년 1학기 : 아함경, 인도불교사, 불교윤리, 불교문화 2학기 : 금강경, 중국선종사와 참선기초, 대승불교
2학년 1학기 : 대승기신론, 한국불교사, 불교사회복지 2학기 : 화엄경, 포교방법론, 육조단경과 선실수

모집분야
주간반 : 월·화 오전 10:30~ 12:30 / 모집정원 60명
야간반 : 월·화 오후 7:00 ~ 9:00 / 모집정원 60명
토요반 : 토요일 오후 3:00 ~ 6:00 / 모집정원 60명

입시요강
응시자격 : 조계종 사찰 신도, 조계종 사찰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이수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기본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접수기간 : 2008년 1월 2일(수) ~ 2008년 2월 말
면 접 : 추후 공지 **입학식** : 3월 2일(일) **개강일** : 3월 3일(월)
*입학원서 다운로드 : 조계사홈페이지(www.jogyesa.org)

불교대학원

교육과정(2년 4학기제)
1학기 : 선사상연구, 비교종교학 **2학기** : 중관사상, 현대사상과 불교
3학기 : 유식학, 한국불교사상 **4학기** : 법화사상, 불교원전강독

모집분야
주간반 : 월요일 오후 2:00 ~ 5:00 / 모집정원 40명
야간반 : 월요일 오후 7:00 ~ 10:00 / 모집정원 40명
토요반 : 토요일 오후 3:00 ~ 6:00 / 모집정원 40명

입시요강
응시자격 : 조계종 사찰 신도
조계종 1년제 이상 불교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일한 학력 이수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불교대학 졸업증 사본1부
접수기간 : 2008년 1월 2일(수) ~ 2008년 2월 말
면 접 : 추후 공지 **입학식** : 3월 2일(일) **개강일** : 3월 3일(월)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교무국 전화 02)720-1390 팩스 02) 720-1391

국경의 벽 넘어 자비의 손길을…

불교계 해외구호사업 현황과 참여방법



저소득 국가에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은 '생명의 손길'이 될 수 있다. 사진은 지구촌공생회 해외 마을공동우물사업 모습.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지구촌공생회 등 활동 활발

해외구호 활동 참여하려면 수행력·사명감 필수

배가 고파도 식량이 부족해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 교육은커녕 무엇인가 되겠다는 '꿈'조차 사치스러운 사람들. 이런 상황은 흔히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본다. 흔히 말하는 저소득 국가의 대다수가 힘든 환경을 이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프로그램 말미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도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나라에 대한 어려운 사정을 전하고, 그들을 돕자고 하면 곧잘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우선 나라 안 가난 구제부터 신경쓰자는 뜻일 것이다.

세계동포주의 등의 거창한 개념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해외구호사업은 여러 가지로 당위성을 가진다. 불자라면 중생을 제도하고 자비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해외구호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중생의 범주를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모든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구호사업을 펼치고 있다.

불교계 내 해외구호활동도 꽤 활발한 편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지난 1월 '조계종 국제자원봉사단'을 모집했고 오는 3월 몽골과 스리랑카로 각각 3명씩 파견한다. 몽골에 파견될 봉사자들은 지난해 12월 울란바토르에 새로 설립된 조계종다목적복지센터 방과후 공부방, 마을공동도서관 등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스리랑카에 파견될 봉사자들은 지난 2004년 쓰나미 피해지역인 스리랑카 콜롬보 조계종복지타운에서 지진해일 피해로 발생된 고아들을 돌보고 컴퓨터·한국어·어린이 교육 등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복지'를 표방하며 올해 10주년을 맞은 진각복지재단은 국내 사업도 알차게 하고 있지만 국제구호사업도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은 JGO(the Joy of Genuine Oneness:진정으로 하나 되는 기쁨)센터를 스리랑카와 네팔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리랑카 JGO센터는 네곰보지역 컴퓨터 훈련센터와 카타나 인근 지역 만 4~5세 아동 보육시설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는 약 100명의 지역 아동을 돌보고 있다. 진각복지재단 장용철 사무국장은 "올해 스리랑카 JGO센터를 확대해 유치원 정원을 증원시켜 교육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불교국제구호 단체로 꼽히는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케냐 등지에서 해외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지구촌공생회는 마을공동우물사업과 교육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마을공동우물사업은 식수가 없거나 오염된 지역에 제대로 된 물을 공급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생활을 지켜낸다는 의미가 있다.

이남재 사무국장은 "우물 1000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325개의 우물이 완공됐다"며 "앞으로는 케냐 마사이족의 식수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들이 사는 지역에 8개의 우물을 파나갈 예정"이라 설명했다. 교육사업의 경우 캄보디아에는 영화사에서 후원한 영화초등학교를, 라오스에는 화계사의 후원으로 화계초등학교를 신축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청의 지원을 받아 라오스 비엔티엔 지역에 청소년센터를 설립, 이 지역 청소년들이 영어·한국어 등의 어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토회는 해외구호단체인 한국JTS(Join Together Society)와 함께 인도를 필두로 네팔 몽골 캄보디아 등 아시아 10개국에서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JTS 사업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인도 비하르 주 불가촉천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자타아카데미'다. 1994년 설립된 수자타아카데미에서는 유치원과 초등과정, 기술과정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맹 퇴치 및 지역인재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국제구호활동에 관심이 생긴다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손쉬운 방법은 금전적 지원이다. 이는 물품 후원, 후원신청, 1:1 결연 등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장활동을 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저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 없이 나섰다가는 현장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쉽게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김동훈 팀장은 "해외구호활동가를 뽑을 때는 불자들의 경우 수행력을 많이 보게 된다"면서 "구호활동가에게는 학력·능력 이전에 조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사명감을 갖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김강진 기자

국제구호활동, 더 궁금하다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www.mahayana.or.kr) (02)723-5101
-지구촌공생회(www.gooodhands.or.kr) (02)455-9596
-한국JTS(www.jts.or.kr) (02)587-8995
-진각복지재단(www.jgo.or.kr) (02)942-0144

"불교사회복지 세분·전문화 필요"

조계종 중앙신도회 심포지엄 개최

불교사회복지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한마디로 답할 수 있을까. 불교사회복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현장에서 접목시켜야 할까.

불교사회복지의 외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사회복지학 지침서를 발간하기 위해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날마다좋은날이 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심포지엄을 열었다.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김용택 교수를 좌장으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북교대학(佛教大學) 사회복지학부 박광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 성운 스님·한림대 사회과학대학 나병균 학장·동국대 인도철학과 김호성 교수·광진노인복지관 신재원 부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박광준 교수는 <법화경> <화엄경> 등 다양한 불교 경전을 예로 들며 불교복지 실천지침을 경전에 근거해서 찾으려고 노력했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불교사회복지론' 강의록을 만들기 위한 연구의 일부"라며 "불교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영역 중 사회복지서비스 부문과 가장 깊이 관련돼 있으므로 다양한 사회복지 수혜자들을 세분화 시켜 분야별 불교사회복지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발표자들은 "불교사회복지만의 특화된 빛깔, 사업이 필요하며 불교사회복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강진 기자



언젠가부터 복지현장에 가면 불교계 봉사자들의 활동이 꾸준히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들 봉사자들의 주축은 아무래도 50대 주부들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든 꼭 나타나는 '짱가'와 같은 남자 봉사자가 있다. 그는 바로 김용철(50·사진)씨다. 김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도움의 손길 필요하다면 어디든 바로 달려가야죠"



매주 일요일 태안서 기름제거 작업

"자원봉사자들의 쉼터 만들고 싶어"

김씨를 만난 곳은 불교환경연대 사무실이었다. 그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 봉사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불교환경연대에서는 봉사단 단장을 맡을 계획이라 한다.

"제가 원래 환경 쪽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집에 없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조미료, 흰설탕, 샴푸, 세제 이런 거 안 써요."

환경을 사랑한다는 그는 요즘 태안 기름유출 사건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부터 현장에 쫓아가 기름띠 제거에 효과적인 물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던 그다. 어떤 재질이 기름을 잘 흡수하는지 테스트 하고, 천연 효소로 기름때를 녹여낼 방법이 있나 고민하고. 요즘도 그는 별 일이 없는 한 일요일 마다 태안으로 달려간다.

김씨는 봉사하는 데 있어 머무름이 없다. 누군가 자신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달려가니 말이다. 개신교니 천주교니 하는 종교의 차이도 조계종이니 아니니 하는 종단의 차이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다.

"시간 되면 다 가서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내 손이 필요하다는데요."

그가 처음 봉사활동에 눈을 뜬 것은 부천 석왕사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부터였다. 어느 해인가 새해를 맞으며 보성 스님이 "내 가족이 아닌 타인을 위해 살아보라"고 법어한 것이 그의 가슴에 와 닿았다. 그 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정진'팀, 희망의 러브하우스, 환경운동연합 등 몇 군데 단체에 꾸준히 나가면서 자신의 봉사활동 지평을 넓히게 됐단다.

활동 이력만 봐도 알 수 있듯 김씨는 무척 부지런하다. 사회복지재단 봉사자 교육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기술교육까지 받아왔다. 그러다보니 할 줄 아는 것도, 기술도 무궁무진하다. 집짓는 기술에 물 정화 기술까지 갖추고 있는 김씨, 이렇게 부지런하고 정보 수집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김씨는 "시간을 잘 쪼개 쓰면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면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뭐든 도전해보는 것이 도리"라고 힘주어 말한다.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의 그는 원예도 좋아한단다. 고등학교 때는 온 동네 마당을 제집처럼 화단으로 꾸미기도 했단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지붕까지 화단으로 이었다고.

"사실 농고·농대에 진학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없었어요. 요즘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그는 현재 사는 집을 정리하고 귀농을 준비 중이다. 터 잡기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기는 하지만 귀농은 그에게 있어 평생소원이자 숙원이다. 그렇다고 개인적 욕심으로만 귀농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시골에 터를 잡고 제 손으로 집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터전으로 꾸며보려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발마사지 기술 등을 총 동원해 누가 와도 좋은 마음으로 쉬어갈 수 있는 시골집을 만들겠습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불교지도법사 과정(3년)
2008년도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과 목	일 시	개 설 경 전	교 수
불교학과 (정규,통신 각30명)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불타관	노권용 교수
		화엄현담①	정엄 스님
근본불교학과(주간,통신 각2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금강경⑤	최봉수 교수

2. 모집방법 및 전형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시간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월 1일 ~ 3월 6일(목) [서류전형]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불 교 학 과 : 3월 3일(월), 4일(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3월 6일(목) 오후 4시

4.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5.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대학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3년과정)
2008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동산불교대학은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불교장례문화학과> <불교미술학과>, <사찰음식문화학과>, <요가삼밀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 불교학과(200명) • 불교다도학과(30명) (포교사,법사과정)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3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30명) • 요가삼밀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2월 1일 ~ 3월 16일 • 입학금 : 250,000원

전형방법	개강일시
서류전형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학과정규반) : 2월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불교학과주간반) : 2월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다도학과,포교사과정) : 3월 4일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다도학과,법사과정) : 3월 11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 례 문 화 학 과) : 3월 4일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 (미 술 학 과) : 3월 4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한 문 학 과) : 3월 6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사찰음식문화학과) : 3월 5일 • 매주일요일 오후1시30분 (요 가 삼 밀 학 과) : 3월 16일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대학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2008 학년도 불교한글의식교육원 불교의식법사과정(2년)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과 정	기간	요 일	법 사	내 용
• 토요정규반	2 년	매주 토요일(오후 3시~5시40분)	심만춘스님,문종순법사	이론,실기
• 수·목정규반	2 년	매주 목요일(오후 12시)	민병홍법사	실 기
• 범 패 반	2 년	매주 금요일(오후 3~5시)	인각스님	실 기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토요반 30명(2년) • 범패반 30명(2년) • 수·목반20명(2년)	• 한글불교의 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1통 • 반명함판사진3장	3월 12일 수요일 까지	• 매주 토요일(토요반) 오후 3:00 ~ 5:40 •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야간반) • 매주 목요일 낮 12시 (목요반) • 매주 금요일오후 3:00 (범패반)

3. 개강일시 3월 8일(토) 오후 3시 (토요의식반)
3월 6일(목) 낮 12시 (목요의식반)
3월 12일(수) 오후 7시 (수요의식반)
3월 8일(금) 오후 3시 (범 패 반)

4.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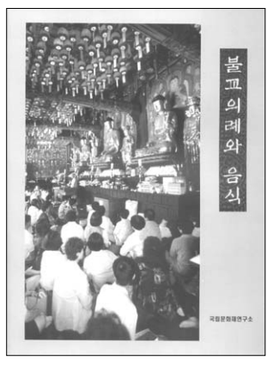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원 •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의식교육원

천도재와 우란분재에는 어떤 음식이 쓰일까?

국립문화재연구소, '불교의례와 음식' 출간

연구소 조사팀과 전문가들 동참 · 현장 중심의 기록

일반인들 접근하기 어려운 사찰음식에 정보와재미



종교의례는 어느 것 하나 종교적인 혹은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 불교의례에는 작게는 기복이, 크게는 광도중생(廣度衆生)의 의미가 담겨 있다. 범패와 염불이 주를 이루는 불교의례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양물이다. 재 올릴 때마다 불단과 영단에 가득한 음식들을 보며 어느 재에 무슨 음식이 쓰이는지, 의례마다 음식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음식들은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놓을까? 하는 궁금증은 누구나 가져봤을 법하다.

그동안 불교의례 관련 책자를 꾸준히 발간해 학계에 풍부한 학술연구 정보를 제공했던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가 발간한 <불교의례와 음식>은 이런 고민에 대한 보고서다.

연구소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봉원사와 진관사, 공주 갑사 등 전통사찰을 방문해 내용을 기록하고 사진자료를 남겼다. 자료조사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팀과 함께 박상국 원장(한국문화유산연구원)과 김상보 교수(대전보건대), 심효섭 실장(가천박물관 학예실) 등 전문가가 동참했다. "이제까지의 연구소 발간 자료가 이론에 치중돼 있었다면 이번 자료는 현장 중심의 기록"이라고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말한다.

불교의례 중 대표적인 천도재와 우란분재를 소재로 서술된 보고서는 <불교의례와 음식>이라는 제목처럼 크게 의례와 음식 부분으로 나뉜다. 천도재는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유교 제례의 음식이 가짓수나 상차림 배선 등 형식에 엄격함과 달리 불공(佛供)은 수미산을 형상화할 목적으로 단을 보다 화려하고 장엄하게 꾸미는데 치중한다. 불단에 올리는 공양물은 꽃, 과일, 쌀, 차, 향 등 다섯가지로 제한된다. 또 장엄한 기교가 담긴 고임음식을 통해 공양물의 높이를 달리해 상위와 하위의 우열을 나눈다.

우란분재는 음력 7월 보름에 부처님께 공양해 조상의 혼령이 사후세계에서 구원받기를 기원한다. 우란분재의 음식은 부처님이 목련에게 말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방 불보살의 힘을 빌려야 한다. 7월 15일이 되면 다양한 맛으로 구성된 5종의 과(果)를 준비해 이것을 분에 담아 시방 대덕에게 공양하라"는 내용에서 유래됐다. 때문에 우란분재에 사용되는 음식은 대웅전, 대적전, 팔상전, 지장전 등 제불보살의 힘을 빌기 위해 5종의 과일을 올린다. 조상을 위해서는 세속적인 음식인 각종 나물과 전 · 탕이 추가된다.

의례는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며 (모시는) 대상을 불러온 뒤 음식을 제공한 다음 보내 드리는 순으로 진행된다. 혼을 모실 때 '연(輦, 가마와 비슷한 도구)'을 이용하기도 했고, 초대받지 못한 혼을 위해 별도의 제물상을 차리는 것도 불교의례의 특징이다.

제물은 예전에 직접 경작된 것으로 올리기도 했지만 요즘은 보통 구입해서 쓴다. 올려지는 음식은 나물, 채소, 두부 등으로 만들어진 각종 무침과 전이 주류다. 사찰별 특징이라면 봉원사 영산재는 절편에 '암(庵)'자를 박아 '옴자떡'을 올린다.

책은 제물 외에도 스님들의 일상식과 그에 관한 조리법 등을 다뤘다. 두부전중, 다시마튀각과 깻송아리 부각, 강판(콩나물과 다시마 부신 것)을 얹은 밥 등 소위 웰빙식으로 손색이 없는 먹거리가 담겨, 불교의례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찰음식에 대한 정보와 재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연구소는 이번 발간된 책자의 원문을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Tip 재(齋)와 제(祭) 어떻게 다를까?

불교에서는 재를, 유교에서는 제를 지낸다. 불교의 우란분재, 기일재, 중음의 행사 등은 추모의식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영혼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러줌으로써 재를 올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법문을 듣는 죽은 영혼이 함께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유교의 제는 조상의 영혼에 예를 갖춤으로써 가호를 바라는 성격이 짙다. 또 제사는 참여자간 소속감과 일체감을 강조해 유교적 가족체계를 잇는 역할을 한다.

'부처님은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을 장려했다'

구병진 박사, '불교사상에 근거한 경영패러다임 연구' 통해 발표



국내 최고의 대기업인 삼성그룹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는 요즘, 기업의 가치와 기업활동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다. 이런 가운데 불교적 시각에서 현대의 기업활동을 다룬 학위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2월 22일 동국대에서 학위를 받는 구병진 박사(사진)의 학위청구논문 '불교사상에 근거한 경영패러다임 연구'는 불교적 관점에서 서구 철학에 기인한 현대 경영사상을 통째로 흔드는 것에서 시작됐다.

구 박사는 ▲이윤극대화 ▲경쟁 ▲고객만족경영 ▲혁신 패러다임 등으로 요약되는 현대 경영사상이 인간의 물질적 생활은 향상시켰지만 정신적으로도 긍정적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대 경영사상을 불교 이념에 대입해 조목조목 비판한 그는 불교경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 박사가 말하는 불교경영은 주주행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 개념으로 기존 현대 경영이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과 비교된다. 구 박사는 "주주행복의 극대화는 불교의 열반과 일맥상통한다"며 "경영의 목표가 이익이 아닌 행복에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행복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자리이타 경영 ▲윤리 경영 ▲변화주도 경영 ▲윤회 경영 ▲지혜 경영의 다섯가지를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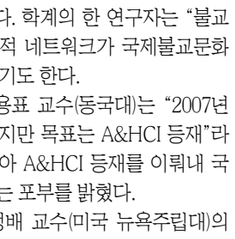
팔만사천법문에서 다소 생소한 '경영 패러다임'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구 박사의 화려한 경력 덕분이었다. 구병진 박사는 서울대 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미 펜실베니아대 워튼스쿨 연구원과 국민은행 경제연구소 실장 등을 두루 지내고 현재 (주)교양과 행복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론과 실제에 달통한 경영학 인재로 알려져 있다.

구 박사 논문심사를 한 김용표 교수(동국대)는 "불교에서 통찰을 얻어 불교경영의 저변확대를 이룬 논문"이라고 말했다. 구 박사를 지도한 박경준 교수(동국대)는 "기존 경영학에서 만족할 수 없던 한계 해결을 위해,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논문이다. 희망의 경제, 상생의 경제에 대한 해답을 불교에서 찾은 논문으로 응용불교학 분야에서 특기할만한 좋은 논문"이라고 평했다. 이제 불교경영학이 온전한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과학적 방법을 통한 실증적 검증만이 남게 됐다.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

(7)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iabtc.buddhapia.com

한국불교 세계로 알려



학회 운영자들은 학술지 발간이 많이 어렵다고 한다. 수준 있는 콘텐츠를 모으기가 어렵고 학회 운영 재정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무가지로 배포되는 학술지 발간 비용을 마련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이유다. 악조건 속에서도 몇몇 학회들은 국제화된 시대에 발맞추겠다고 야심차게 영문저널을 냈지만 1~2회 단발성에 그치기 일쑤였다.

이런 가운데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회장 송석구: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가 2002년 창간한 국내 첫 영문불교학술지 'Buddhist Thought & Culture' 제10집(사진)을 발간했다.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는 한국불교학의 세계화를 목표로 국제원효학회, 동국대학교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사업단, 한국불교학회 등의 구성원과 제휴해 2002년 1월 창립됐다.

세계 4번째 영문불교저널이기도 한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의 학술지는 한국불교에 관한 영문자료가 드문 현실에서 세계 150여 개국 학술기관과 도서관에 배포돼 한국불교를 알리는 '가뭄 속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제2집에 특집편으로 게재된 원효사상 관련 논문들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등에서 한국불교학 강의로 채택됐다. 미국 하버드대, 예일대, 컬럼비아대 등은 정기구독 중이다.

학술지는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표 교수(동국대)를 비롯해 미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 스리랑카 등 11개국 23명의 저명 불교학자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한다. 학계의 한 연구자는 "불교학 연구를 위해 구성된 범세계적 인적 네트워크가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표 교수(동국대)는 "2007년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에 선정됐지만 목표는 A&HCI 등재"라며 제10집 발행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A&HCI 등재를 이뤄내 국제적인 저명학술지로 발돋움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2월 발간된 제10집에는 박성배 교수(미국 뉴욕주립대)의 '원효:서양에 가다-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Wonhyo: Coming to the West—Yet No One Recognizes Him)'와 청고 스님(미국 한마음 국제 문화원)의 '한암 스님의 서한: 깨달음 이후의 수행과 은거(he Letters of Hanam Sunim:Practice after Enlightenment and Obscurity)' 등 9편의 논문과 서평이 실렸다. (02)2260-3835 조동섭 기자

Tip A&HCI는?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의 약자로 톰슨 사이언티픽이 제공하는 예술 및 인문과학논문인용색인을 뜻한다. 발간의 적기성, 국제적 편집 표준, 국제적 다양성 등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등재가 가능하다. 한편 톰슨 사이언티픽은 연구에 도움되는 여러 분야의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영리법인으로, 톰슨 사이언티픽이 제공하는 SCI(과학인용색인)와 A&HCI는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웰빙의 상징 사찰음식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찰음식문화학과 신입생 모 집

1. 개설취지
웰빙시대가 요청하는 사찰음식의 정신은 생명존중의식과 수행식으로, 사찰음식의 체계적 연구 및 사찰음식의 전문가 양성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지도 교육합니다.

2.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3기생)



3. 개강일시 : 3월 5일(수) 오후 2시

과 정	기 간	요 일	내 용	지도교수
사찰음식 문화학과 (30명)	기본과정 1년 (2학기과정)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겨절별 사찰음식	정산스님 외 교수진

수행요가의 상징 요가삼밀지도자과정(2년)
요가삼밀학과 신입생 모 집

1. 개설취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건강중심의 요가, 보다 자아완성을 위한 본질적인 요가를 교육하면서 더 나아가 신,구,의 삼밀수행차제를 나타내는 진언, 수인, 관법의 밀교의 수행을 통한 불교요가 지도자를 양성하기위한 과정입니다.

2. 요가삼밀학과 (2년과정)



3. 개강일시 : 3월 16일(일) 오후 1시 30분

기간 · 요일	과 정	지도교수
지도자과정	· 요가과정 요가이론,요가수트라,요가생리학,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아사나실습,요가자기진단법,요가운동처방법	요가:안지용교수 밀교:허일범교수
매주일요일 (오후1시30분)	· 밀교과정 밀교상징체계,무드라이온,한국전언문화,만트라원리, 밀교위식체계,만다라사상,티베트밀교,밀교명상법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02)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3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의개요(3개월 과정)

1.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봄반)
2. 교육장소	동산 법당(동산불교회관)
3. 개강일시	3월 5일(수요일) 오후 7시
4. 교 과 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 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 재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7. 입 학 금	90,000원(3개월)
8. 지원자격	제한없음

불교한문학과
주역(왕필주) 강좌 신입생 모 집

1. 개설취지
한문은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고전과 한문 불교경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한문의 적용과 한문의 독해력 배양이 필수입니다.
국제화, 세계화되는 중국어의 기본인 한문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2. 교 과 목
◆ 불교한문학과(3년과정) ※정규반.통신반

교과목	주역①, 주역②, 노자①, 노자②, 삼국유사①,삼국유사②,한자입문 · 중국고전① · 중국고전② · 한국고전① · 한국고전② · 불교경전① · 불교경전②
지 도	· 임채우교수(원광대) · 황안웅교수(원광대) · 김형중(동대부고 교법사) · 심재동교수(동국대)

3. 개강일시
2008년 3월 6일(목) 오후7시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 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일 주 문



안양교도소서 설맞이 행사

안양교도소불교종교위원회 회장 현성 스님은 2월 7일 안양교도소 재소자 3000여명과 전직원에게 떡국대중공양을 베풀고 합동차례를 봉행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 스님은 2월 22일까지 서울시 거주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02)466-6242



사찰문화연구원에 지원금 전달

대한불교진흥원 홍승희 이사장은 2월 12일 사찰문화연구원(대표 신대현)에 '전통사찰총서' 보완 발간 지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앙굿따라니까야 완간 봉정식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은 2월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앙굿따라니까야 완간 봉정식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02)2631-0881

"전방위적인 복지포교 위해 최선 다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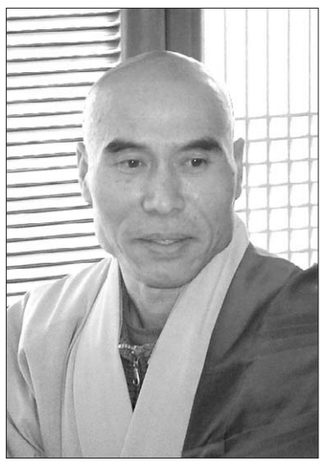
신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임명장 전달식을 열고 대오 스님(고양 흥국사 주지)을 신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에 임명했다.

대오 스님은 "평소 복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심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역자원봉사 모임인 천수천안 활동을 해보니 교계가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소신을 밝혔다.

스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가 중요하다. 교계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최우선적으로 고령화돼 가는 사회에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노인 복지, 청소년 복지 등 연령별 복지 제공은 물론 장애인과 미혼모, 이주민 노동자 등 사회 소외계층 전부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복지 포교에 전력을 다하겠다. 대중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갖춰 부처님 자비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늘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우선 스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110개 위탁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 · 감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위탁기관의 투명성 제고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으뜸이라는 이미지를 주도록 재단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오 스님은 1980년 합천 해인사로 출가했다. 자운 스님을 계사로 1981년 통도사와 1984년 해인사에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봉암사와 수도암 등에서 25안거를 성만했고 조계종 종정 예경실장을 역임했다. 현재 고양시 흥국사 주지, 자원봉사 모임 사단법인 천수천안 이사장, 중앙종회 의원직에 재임 중이다.

조동섭 기자

외국인 국제문화교류축제 열려



2월 6~8일,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함께 어울린 '외국인과 함께하는 국제문화교류축제'가 열렸다. 유네스코가 주최하고 월빙아시아(대표 바수무쿨)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아시아문화교류센터와 광주 보은사, 미륵사, 원각사, 광주과학기술원 등에서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재암 불교대학 입학식



소요산 자재암 불교대학(학장 법해)은 2월2일 동두천시내 자재암 포교원에서 제7기 입학식을 거행했다. 자재암 신도와 졸업생들이 참석한 이날 입학색에서 법해스님은 "새롭게 맞이하는 학인들이 열심히 닦아 참된 불자로 거듭나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충북불교대학 졸업식



용화사 부설 충북불교대학(학장 각연)은 2월 13일 제13기 졸업식을 봉행하고 101명의 졸업생 대표 임홍근씨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했다. 각연 스님은 "수행과 전법, 회향을 자기화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학생회장 이석재씨는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10년 동안 불교대학을 수강한 홍도식씨가 특별상을 수여 받았다. 혜철 충청지사장

어르신들을 위한 효 노래잔치



경도재활요양병원(이사장 이윤환)은 1월 31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가수분과위원회 예천분회(회장 황윤석) 주최로 '어르신들을 위한 효 노래잔치'를 개최했다. 어르신 100여 명은 예천분회 소속 가수인 황윤석, 황재창, 양준모씨의 흥겨운 노래 공연과 불자들이 직접 준비한 공양으로 잠시 아픈 몸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법계장학금 수여식



운문사서 수여식

현의 스님 외 5명

법계장학회는 2월 11일 청도 운문사에서 제6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제6회 법계장학회 수상자에는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현의(선학 · 불교미술) 도은(불교학과) 스님과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설해 스님을 비롯해 일본 하나조노대학 대학원 원영 스님, 중국 청화대학교 대학원 법정 스님, 미국 뉴욕주립대학 윤희주씨 등 총 6명이 선정됐다. 선정자에게는 1인당 2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 스님의 법호를 따 설립된 명법계장학회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학업선정이 우수한 불자를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위안부 지돌이 할머니 별세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원장 원행)에서 기거하던 지돌이 할머니가 2월 6일 오후 5시 경기 양평 효병원에서 타개했다. 향년 86세.

지 할머니는 경북 경주 출생으로 1945년 방적공장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중국 흑룡강성 동령현 석문자 위안소에서 23세에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았다. 해방이 되어도 귀국하지 못한 채 중국에 남아있던 지 할머니는 나눔의집에서 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찾던 중 1997년 생존이 확인돼 일시적으로 귀국했다. 2000년 6월에는 영구 귀국, 나눔의 집에 머물러왔다. 발인은 2월 8일 효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으며 장지는 광주 나눔의 집 추모공원에 마련됐다.

한편 나눔의집은 3월 1일 오전 10시 '나눔의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3.1절 행사 및 '故 지돌이 할머니 추모제'를 거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1부 지신밟기, 2부 지돌이 할머니 추모제, 3부 평화와 나눔의 나무심기 등으로 진행된다.(031)774-4461 김강진 기자

인사 **불교TV 보도국장에 변대용 씨**

불교TV는 2월 11일 신임 보도국장에 변대용씨(前 만불신문 편집국장)를 임명했다. 변대용 국장은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불교신문 편집국 차장, 만불신문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다.

"소림사 불교 정신 한국에 널리 보급"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덕산 총무원장



"한국에선 처음으로 지난 1월 중국 소림사 방장 스융신(釋永信) 스님에게 16명의 종단 스님들이 수계를 받고 돌아와 종단 이름도 소림선종으로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소림사에서 선을 주창하신 달마선사의 선풍진작 정신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생각입니다."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덕산 총무원장은 제 2의 창종 정신으로 소림사의 정신과 문화를 한국에 대중화시키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에 덕산 원장 스님은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스융신 방장을 비롯해 소림사 무술시범단 등 30여명을 한국으로 초청, 19일 신촌 봉원사에서 영산재 공연 관람과 소림사 무술 시범 공연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숭산 소림사는 달마대사가 불교의 근본이 참선을 통한 깨달음이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9년 동안 토굴에서 면벽수도를 통해 많은 불제자의 신망을 얻었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수년간 달마대사의 향훈을 느끼기 위해 소림사를 드나들며 수행하던 중 방장 스님에게 제자가 되고 싶다고 간청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 하셨습니다."

덕산 원장 스님이 이번 소림사 방장 스님을 초청한 것은 수계에 대한 보답 차원도 있었지만 스승의 사찰인 소림사 스님들에게 한국 불교문화를 각인시켜 주자는 취지가 컸다. 또한 2월22일 서울 인사동에 개원 예정인 소림문화원 한국본부도 소림사 스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덕산 원장 스님은 올 3월부터 소림불교문화원에서 소림무술과 기공, 참선 등을 일반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며, 5월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안잔치와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제도 마련한다. 김주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부설 **운문유치원 개원 및 입학식**

모시는 글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청정도량 운문사에서는 부처님의 뜻에 따라 운문유치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운문유치원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아름다운 마음씨와
지혜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정화할 꽃눈들이 모이는 귀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불씨가 되도록 뜻을 세운 자리에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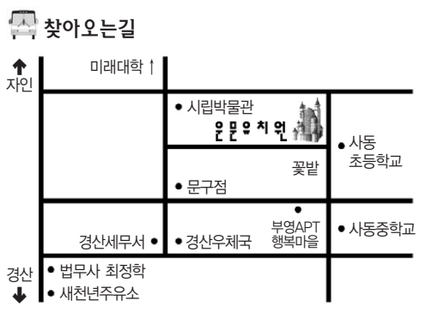
2008년 2월 20일

운문사회주 명성 합장
운문유치원 원장 안무영



■ 일시 : 2008년 3월 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운문유치원(경산시)
■ 전화 : 053)802-2525

찾아오는길



운문사부설 운문유치원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655-2번지
(버스노선 100, 200-1, 399)



BBS 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모두 한 마음 입니다”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기도 순례회’ 김포 애기봉서 2월 12일 첫 출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20여 성직자들로 구성된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기도순례회’가 2월 12일 김포 애기봉서 100일간의 장정에 나섰다. 사진은 김포읍내를 향해 걷고있는 순례회 모습.

100일 동안 한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등 도보 순례
각 종교 20여 성직자 “운하 건설 반대 취지 알리겠다”



2월 12일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고 했다. 바람막이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에서조차 세차게 불어대는 강풍 때문에 체감온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최전방 김포 애기봉은 상황이 더 어려웠다. 차가운 강바람이 두툼하게 입은 방한복을 뚫고 살 속을 파고들어 잠시도 서 있기가 힘들 지경이다. 하지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성직자들과 신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애기봉 전망대에서 진행된 ‘100일 도보순례 출정식’ 현장의 열기는 추위를 녹이고도 남을 만큼 뜨거웠다.

이번 도보순례는 한반도 대운하건설에 반대하는 일종의 ‘침묵시위’였다. 스님, 목사, 신부, 환경운동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기도 순례회’는 오후 1시 출정식에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개발지상주의에 대한 성찰과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

이어 인천생명평화기독연대 공동대표 윤인중 목사는 “이번 순례기도회는 600km에 이르는 험난한 고행의 길이라 생각된다”며 “그 여정 속에서 설사 모욕과 욕을 먹는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평화로운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김규봉 신부(창조보전 전국모임 사무처장)는 “우리는 그동안 경제와 돈이라는 자본주의 논리에 빠져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겨왔다”며 “하느님의 유산인 우리 산하가 이토록 파괴된다는 현실에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도보순례에 참여한다”고 고백했다.

법륜 스님(정토회 이사장)도 인사말을 통해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도보순례까지 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하지만 떠나는 이 길이 생명을 경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서 계도시키는 기회가 되길 발원한다”고 기원했다.

순례단 단장인 이필완 목사(당당뉴스 발행인)는 출정기원문을 통해 “대운하가 몰고 올 국토파괴가 두렵고, 끝없는 갈등과 투쟁과 국론 대분열의 소용돌이가 두렵다”며 “인간들의 이기적인 행복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짓밟는 야만적인 행위가 하루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출정식이 끝날 무렵에는 천주교 문정현 · 문귀현 신부와 김지하 시인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참석해 200여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지하 시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한편으로 조심스러워지기도 한다”며 “하지만 전국토를 희생물로 바치면서까지 운하 건설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으며 불길한 생각마저 든다”고 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출정식이 끝난 2시부터 순례단은 애기봉 전망대 관리사무소를 출발해 후평 1리 복지회관까지 2시간 여 동안 도보순례의 첫 일정을 소화했다. 경찰차의 안내를 받으며 아스팔트 도로 길옆을 따라 한 줄로 도보를 한 순례단이 지나갈 때마다 소문을 듣고 환영나온 지역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이들의 힘든 여정에 격려로서 힘을 실어주었다.

이번 순례단에 참여한 성직자들은 환경과 생명 운동 분야의 국가대표급 실천자들이었다. 우선 불교계에서는 전북 부안에서 서울까지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삼보일배를 했던 수경 스님(화계사 주지)을 비롯해 생명평화탁발순례를 5년째 하고 있는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지관 스님(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개신교에서는 이필완 · 양재성 · 김민해 · 차홍도 목사가, 천주교에서는 최상석 · 김경일 · 이동훈 신부 등 그동안 지리산 일대에서 생명 운동에 동참했던 성직자들이 이번 순례길에 나섰다.

도보 순례단은 100일 동안 한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유역을 도보로 따라가며 노숙과 자급을 원칙으로 하루 15~20km씩 이동한다. 또한 도보 순례지 중간마다 ‘지역민들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도보순례는 불교환경연대에 3일전에 접수하면 1일동안만 동참이 가능하며 순례 진행 상황은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홈페이지(www.saveriver.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무 지팡이를 짚고 순례를 시작한 수경 스님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 때문에 말없이 이 땅에서 사라질지 모를 모든 뭍 생명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번 순례의 큰 목적”이라고 힘찬 목소리로 각오를 밝혔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기원전부터 시작된 전법의 역사

해외불교칼럼



불교는 기원전 약 2세기부터 서양 포교에 나서며 유럽 등지의 역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사진은 2세기경에 제작된 부처님의 초전 법륜상. 간다라미술로 라호르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기원전 약 2세기부터 서방으로 떠난 불교의 전법사절단은 명실공히 동서 대화합의 메신저였다. 알렉산더의 창검으로 피바다가 된 유라시아 남부루트가 이제 선근공덕 회향의 길로 닦인 것이다. 공존과 원융을 가르친 서방전법사절단은 먼 훗날 15세기 이후 복음전파니 선교니 하며 지구촌 곳곳에 적개심과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린 국제해양조직폭력배와는 본디 '씨알'부터 다르다. 예컨대, 그 식민지침탈의 앞잡이들이 중남미전역에서 저지른 집단강간은 메스띠소라는 거대 혼혈인종의 출현과 가족질서파괴라는 처참한 상처를 남겼다. 이는 분리수거조차 불필요한 그 인간오폐물들이 지닌 과대망상적인 선민의식과 추악한 위선의 찌꺼기 중 하나다.

소위 십자군전쟁이란 집단히스테리 이래 줄곧 필살의 광기를 번뜩이는 숱한 '종교전쟁', 그리고 포그럼과 홀로코스트라는 대량학살은 지금껏 보스니아, 중동 등지에 되풀이된다. 불교는 전법하던 안하던 언제 어느 곳에서도 신앙을 빙자한 야수적 만행을 자행한바 없다. 최근 들어 동서양의 석학과 지식인들이 공히 인정하듯, 불교는 고매한 '종교외교'를 통해 연기상생(緣起相生)의 이상과 자비희사의 실천철학을 두루 펼쳐왔다.

그리스-인도불교의 전법사절단은 기원전 2세기 중엽에 인도에 통일제국을 형성한 아소카대왕의 제위 시 더욱 체계화됐다. 그는 사절단들이 지중해연안의 알렉산더 제국의 복속지역까지 친선 전법하도록 칙령으로 하달했다. 또한 그는 그리스 계와 여러 속국 출신으로 다국적 전법사절단들을 구성하여 아테네와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누스 왕에 보냈다. 그리고 현 알바니아에서 발칸반도의 여러 왕국들을 경유, 아프리카북단의 리비아와 이집트의 프톨레미 2세 등에게도 공식 파견했다.

아소카 대왕의 위대한 전법공덕을 기리는 기념비들은 아직도 일부 남아있으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등에서는 법륜이 조각된 묘비도 발굴됐다. 또한 소승불교인 테라베다, 즉 당시 그리스어 음역으로 테라페우테라 일컫는 불교교단의 사원들이 설립됐던바, 로버트 린센 등 관련 석학들은 그 불교시설들이 후일 기독교전파의 거점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원전 1세기 경 그리스속령이던 유태왕국의 자나에우스 왕이 법륜을 새긴 왕관을 머리에 쓴 주화가 현지에서 출토됨으로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현 이스라엘 일대도 불법의 영향권에 들었음을 명증하는 것이다.

당대의 현지정황을 잠시 돌아보자면, 유태교는 외세에 편승한 두 세력으로 크게 나뉘었다. 그 하나가 현재의 점령자인 그리스 세력에 빌붙은 사두게 파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점령자인 페르시아 세력에 붙었다가 알렉산더에게 페르시아제국을 멸망시키자 졸지에 찬밥 신세가 되고만 바리새 파였다. 참고로, 바리새란 낱말은 파르시, 즉 페르시아를 누군가 괴상하게 우리말로 옮긴 것이지만 읽는 이들의 편의상 그대로 쓴다.

아무튼 이 두 파는 기원전 63년, 이번엔 로마제국이 유태를 점령할 때까지 서로 물고 뜯는다. 기독교사의 신빙성을 전제하건대, 이는 예수가 태어나기 불과 60여 년 전의 일이다. 그 두 파의 틈새에 낀 것이 미미한 제3세력인 에세네파였다. 금욕절제와 중립온건노선을 택한 그들은 정복과 교역루트를 통해 유태 땅까지 들어온 불교의 영향을 이전부터 적잖게 받은 데다, 이젠 왕관에 법륜이 새겨질 만치 불연이 유태 땅에 더욱 깊어진 것이다. 따라서 에세네파 성향의 예수가 불법의 영향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는 것이 저명한 비교종교학자인 드와이트 고다드 등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그의 탐구저서인 '예수는 불교의 영향을 받았나?'에 대한 답변은 자명해진다.

지중해 권역과 그리스-인도불교문화권의 교류는 5세기 헬탈족 등의 침략으로 약화된 후, 8세기 전후 이슬람세력이 대거 동진함으로서 거의 차단된다. 그러나 그리스-인도계의 정치적 독자성은 10세기까지 유지되며, 인종과 문화적 잔재는 지금껏 인도 북서부 오지에 남아있다. 기원전의 지중해 연안전법 당시, 로마제국에도 불교가 전해졌으나 그 부분은 생략하겠다. 오늘날의 서구전법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며 단지 오랫동안 끊겼던 법맥을 다시 이어가는 뜻 깊은 중창불사이자 우리 젊은 불자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편역:성휴 스님 / 출처: '종교와 진실' '헬레니즘 불교와 불교적 기독교' 외

할리우드 여배우 코트니 러브 약물 중독 이기고 불자의 길로

마약중독과 기내소란, 양육권 및 저작권 분쟁에다 심지어 가장 옷을 못 입는 미국여류명사에 오르는 등 여러 악재에 치어온 여배우 코트니 러브는 최근 경건한 불자 스타인 올랜도 블룸의 도움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됐다고 밝혔다.

그녀는 올랜도 블룸이 매일 자신과 함께 염불을 올리고 12단계의 불교식 영적 수행을 지도해주며 자신의 삶을 곧게 붙잡아준다고 말했다.

"그는 당당한 불자로서 품위를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내 아픈 몸과 마음을 새로이 만들어줘요."

지난해 그녀는 불교에 입문한 이래 극심한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고 있다고 스스로 언론에 공개한바 있다. 2004년 영국의 국제 불교운동본부에서 불자로 첫걸음을 내디딘 올랜도 블룸은 평소에도 할리우드에서 가장 마음씀씀이가 넉넉하고 선량한 스타들 중 하나로 호평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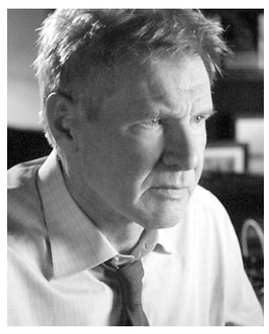
자택에 법당과 불단을 모신 그는 쓰나미 등 각종 재난구제에도 거액을 희사하는 등 앞장서며,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시사행사에는 떠돌이 개를 데려오는 등의 인도주의적인 자비행으로 할리우드 연예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출처 : HSN

"취미생활도 구도과정의 일부"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해리슨 포드 ❹



해리슨 포드 처사님에게 여기자가 이어 물었다.

"포드씨께선 불교수행자들이 그렇듯 매우 통제된 생활을 하시나 봐요?"

"글쎄요, 통제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규칙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지내신다면 특별히 집착하시는 것도 없겠죠?"

"저도 보통사람인데 왜 매달림과 머무름이 없겠어요?"

"아, 그렇군요! 집착이란 매달림과 머무름이죠. 그럼 표현을 좀 달리해서 여쭤보죠. 어떤 특별한 관심사나 취미를 갖고 계신지요?"

경비행기 몰고 홀로 여행 즐겨 창공에서 고요히 자아 성찰을

"네, 제가 특별히 몰두하는 건 비행기 조종입니다."

"아, 그 얘긴 저도 들었어요. 근데 왜 그걸 즐기시며 거기서 얻어지는 건 또 뭘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게 하늘은 또 다른 선방이며, 비행 역시 참선수행입니다. 선승들이 적막한 산사에서 삼매경에 들듯 저는 허공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아를 고요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또한 비행조종기술의 힘든 반복훈련은 마치 울력과 같은 구도행각이자 즐거움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는 어릴 적에 손수 책상과 의자 등을 만드는 목공일을 즐겼듯 비행에 관련된 각종 기기의 작동도 프로급이다. 게다가 그저 하늘에 떠있는 게 좋다는 이유로 각종 헬리콥터도 능숙하게 조종하는 그는 자기가 사는 잭슨 홀 산악지대의 산림보안관들과 협력해서 산불화재 예방에도 나서고 조난자들을 수색 구출도 한다.

"난 제트기엔 별 관심이 없어요. 조종석의 계기판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게 너무 많아 마치 책상 앞에서 시험공부를 하는 기분이거든요."

여섯 대의 구형 개인비행기를 가진 그는 이런 말도 했다.

"난 남들이 거의 쳐다보지도 않는 구닥다리 기종이 아주 맘에 들어요. 린드버그 정도의 조종술이면 누구든 몰고 다닐 수 있는 털털이 날틀에선 따스한 정감이 베어나죠."

워낙 타고난 집중력에다 부단한 참선수행으로 심신이 두루 단련된 그는 어느 비행 전문지에 이런 말을 했다.

"특히 소형 경비행기는 색다른 맛이 있다. 언제든 내가 가고픈 데로 가서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으니까."

다시 기자가 묻는다. "그럼 주로 선생님 혼자서 비행을 하시나요?" 사생활도 영화 속의 인디아나 존스를 얼마간 닮은 그는 늘 천진하고 호기심이 가득한 만년 소년이다.

"그래요. 모든 걸 툴툴 털어내고 혼자 훌쩍 떠난다는 건 진짜 느긋한 행복이죠."

조종사 해리슨 포드에게서 얼핏 생텍쥐페리를 떠올린다. <야간비행> <남방 우편기> 그리고 밤하늘의 별처럼 곱고 아련한 <어린 왕자>란 불후의 창공 문학을 펼치고 사라진 영원한 어린왕자 생텍쥐페리가 그러했듯, 해리슨 포드 또한 디지털적인 스피드보다는 아날로그적인 낭만을 즐기는 완벽한 자유인이다.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I will practice everyday, ten or more hours a day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하루에 열 시간 이상 수련할 겁니다

A martial arts student told his teacher earnestly, "I am working very hard to attain your martial standards. How long will it take me to master it." The teacher's reply was casual, "Maybe, ten years." Impatiently, the student said, "But I want to master it faster than that. I will work even harder. I will practice everyday, ten or more hours a day if necessary. How long will it take then?" The teacher thought for a moment and said, "20 years at least."

무도 수련생이 사범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사범님의 무술의 경지에 이르고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사범이 대수롭잖게 대답했다. "아마 십년쯤." 다급해진 수련생이 되받았다. "그런데 전 그보다 빨리 해내고 싶거든요. 더 열심히 날마다, 필요하다면 하루에 열 시간도 넘게 수련할 겁니다.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사범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최소한 이십 년."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2008학년도 구룡사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신입생모집안내

본 의식원은 불교전통의식을 기초에서부터 시작하여 상주권공과정까지 여법하게 봉행 할 수 있도록 체계 있게 교육하는 범음범패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의식인 범음범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사찰에서 행하는 각종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배우실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입학을 바랍니다.

•••••• 입학 안내 ••••••

- 모집학과 : 범음범패과정
- 입학자격 : 종단 및 승속에 관계없이 배우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가능
- 교육기간 : 2년 과정
- 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구룡사(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236-5)
  053)982-1417 /팩스 053)982-1417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수강신청서(본교 소정양식).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 접수기간 : **신입생 3월 4일까지** (청강생 수시접수)
- 강 주 : 상진스님(보우승가대학 범패과 교수. 전 대구종무원 범음범패연구원 강주)
  강 사 : 자운스님.혜성스님(대구종무원 범음범패연구원 연구과정 졸업)
- 입학식 및 개강일시 : 2008년 3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오전 0시부터 졸업시연회 봉행 뜻있는 분 동참바람】
- 강의시간 : 월. 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 강의 내용 ••••••

학년 \ 학기	1학기	2학기
1학년	**기초 과정** **기초** : 목탁치는법.천수경.도량석.종성 **예불** : 향수해례.사성재.칠정례(오분향례)각단예불 **불공** : 삼보통청(사시마지).퇴공.각단불공의식 **시식** : 관음시식.상용영반.화엄시식.구병시식.외 **기타** : 장의편.방생의식.각종행사의식 등...	**상주권공 과정(범음범패)** 할향.등게.합장게.고향게.개게.쇄수게 복청게(천수다라니)도량게.참회게. 천수바라.도량게.요잡바라.등 (바라.작법기본 과정)
2학년	**천도의식 본과정(재채.안채비.사물다루는과정)** 시련.대령.관욕.신중작법.상단불공(지장청외) 중단퇴공.관음시식.봉송회향.공덕게 ※ 다게작법.요잡바라.관욕바라.화의재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욕건이.운심게.가지게	**2년 과정 총괄 졸업시연회준비** 1. 실전행사에 대비한 유기적인 의식진행 (법주.바라지.목탁.태징.북.요령) 2. 작법고급과정(사방유신.기경이.향화게.법고무.옴남) 3. 모든 사물과 작법을 총괄정리 ◇ 특강 : 점안의식.생전생칠 예수재 등에 관한 의식준비와 설명

한국불교태고종 구룡사 불교대학 학장 원봉



선지식을 찾아서

진광 스님은 1962년 전북 내장사로 출가해 1964년 대구 동화사에서 김월서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前 호계원장)을 은사로 득도했다. 동화사에서 대강백 변학봉 스님을 모시고 대교과를 마친 뒤 경책을 덮고 전국 선원으로 운수행각(雲水行脚)을 했다. 소싯적에 국묵담 스님(태고종 초대 종정)의 철저한 계행을 숭상하고 내소사 해안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의연한 그 모습을 사모했다. 속리산 법주사 선원에서 금오 조실스님을 모시고 정진했고 동화사 금당 선원과 통도사 극락호국선원 등 제방 선원에서 효봉, 경봉, 향곡, 고암, 서옹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기장 묘관음사 길상선원과 불국사에서 월산 조실스님을 모시고 정진했다. 법주사 총지선원장과 현풍 도성암 선원장을 거쳐 마곡사 태화선원장을 맡고 있다.

"꽃 피고 새 우는 소식이 어찌 봄날에만 있으랴"

진광 스님(마곡사 태화선원장)

입춘은 지났어도 봄은 아직 멀다. 천년고찰을 관통하는 태극천은 한쪽은 선수행 공간으로 다른 한 쪽은 교화의 공간을 나누고 있다. 공부를 하고자 찾아 드는 수행자가 삼대처럼 빼곡했다는 마곡(麻谷). 바람 소리조차 뒷발을 들고 지나가는듯한 태화선원(泰華禪院) 앞뜰에 겨울 햇살이 곱다. 한파 속에 새 봄이 오는 소식일까? 그렇다면 봄소식의 거리는 마곡사 태극천의 얼음두께 만큼일 것이다. 해제를 1주일 앞두고 정진의 고삐를 더욱 다잡고 있는 태화선원 입방 대중들. 점심 공양 후 잠시 지대방으로 나온 선원장 진광(眞光) 스님께 마곡의 봄소식을 물었다.

기러기는 북으로 가고
산물은 남으로 흐르네.
할 일 없는 산승은
밀도 끝도 없는 허공에서
달을 찾아 헤매는구나.
꽃 피고 새 우는 소식이
어찌 봄날에만 있으랴.

답은 한 구절의 선시로 끝났다. 10여 년 전, 법주사 총지선원에서 만났을 때도 짧은 시 한 구절로 기자의 무지를 힐책하시더니…. 어느 날 마곡사 극락교를 건너다가 문득 터져 나왔다는 이 선시 '심월음(心月吟), 마음의 달을 읊다' 한 조각 말고 더 대답이 필요하냐는 스님을 졸라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다.

진광 스님은 작년 10월 동안거 입재에 맞춰 태화선원장을 맡았다. 물론 마곡사 태화선원이 좋은 수행처란 이야기는 이미 듣고 있었던 터. 정진의 인연도 좋았지만 더 큰 기쁨은 선방 맞은편 선원장실 마루에 걸린 두 개의 현판이었다.

'우화궁(雨花宮)'과 '수선사(修禪社)'. 이 두 개의 현판은 근현대 한국선불교 중흥의 기둥이었던 만공(滿空)스님의 친필이었다. "우연히 마음이 계합되어 만공 스님의 글씨임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 벅찬 환희를 느꼈습니다. 꽃이 비 오듯 내린다는 것은 생멸이 없는 무생설법이요 우담발화가 흐르는 소식입니다"

이 현판은 만공 스님이 자애로운 불조의 세계를 드러내 보이는 당처이다. 진광 스님과 만공 스님의 특별한 '인연'은 이렇다.

진광 스님이 법주사 총지선원에서 정진 하던 1997년 어느 날, 문득 홀연히 신령스러운 기운이 목전에 나타났다.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그저 뭐라 형언할 수 없는 형상이었는데 환하여 눈이 부시었다. 그런 가운데 '저 모습 정도가 되면 연세는 얼마나 될까?' 하는 의심을 가졌는데 차츰 하얀 백발의 노승으로 형상을 이루더니 한참을 보이다가 목전에서 사라져 버렸다. 다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 다시 한 번 뵈었으면 하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염원을 했더니 홀연히 신령스러운 노승의 모습으로 드러나 보여주셨다. 그 순간 놀랍게도 '혹시 만공 스님이라면 저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 순간 영락없는 만공 스님의 형상이 눈앞에 시현되어 있었다.

그런 경험을 한 뒤 진광 스님은 환희심이 일었지만 크게 마음에 담아 두지는 않았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을 뿐. 그런데 지난 연말 만공 스님의 다례식에 참석했다가 만공 스님의 상좌인 동산 노스님께 그때의 일을 말씀 드렸더니 "그 때 몽중수기를 주셨구먼"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마곡사 주지 오법용 스님과 시인 정송 스님이 함께 한 자리였다.

진광 스님은 그 보다 훨씬 이전인 1974년에 대구에서 겪은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대구 앞산 새길시장 근처 서경보 스님의 신도절에 도반의 공양청정으로 들렀는데 마당 뜰에 작은 연못이 있었다. 겨울이라 얼음이 꽁꽁 얼었고 아이들이 좁은 연못에서 썰매를 타며 놀고 있었던 흔적만 남아 있었다 한쪽에는 얼음 덩어리도 깨어져 있었다. 그 곳에 앉아서 보다가 '물이 추위에 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삼척동자도 아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진광 스님은 마음이 맑아지며 청량감이 감돌았다. "그 순간 연못가의 돌맹이들이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이야기들을 시작도 끝도 없이 하는 것이었고 나무들도 무애의 춤을 추며 한없는 노래를 하더라, 흙덩어리와 기와장도 이와 같이 무생을 하더라, 무변허공이 나와 둘이 아닌 생명이더라, 막히면 범부요 트이면 성현이라 막히고 트이는데 묘리가 있구나." 하고 감탄했다.

그렇게 우주만물이 생멸이 없는 법문을 하는 것에 계합되어 한참동안 선정에 들었다. 보름정도 지나도 경계가 성성하더니 차츰 희미해지기도 하고 관하면 밝아지기도 하였다.

동화사 금당 선원에서 선배인 성구 스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더니 '왜 일찍이 경봉 조실스님을 찾아뵙지 않았느냐'며 아쉬워했다. 진광 스님은 이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생각에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후에 경봉 조실스님이나 성철 방장스님의 법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다.

진광 스님은 얼마 후 경봉 조실스님에게 큰 가르침을 받았다. "그 때 팔공산 갓바위에서 하루속히 견성성불 하도록 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훤한 대낮 중천에 달이 두 개 떴다가 하나가 지는 꿈. 그 중 하나가 떨어져 기도객 모두가 압사하였지요. 나는 부처님 뒤에 서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경봉 조실스님을 찾아뵙고 꿈의 척도를 물었습니다. 물론 크게 경책을 받았지요. '수좌가 무슨 소리냐 마음은 달도 허공도 아니고 땅도 물도 바람도 아니다. 부처도 귀신도 아니여, 더 참구하거라.'"

이렇게 경책을 하신 경봉 조실스님은 며칠 뒤 진광 스님에게 게송 하나를 써 주었다.

성전미어전(聲前微語傳)
묵연안미소(默然眼微笑)

"소리 전에 눈썹말이 전하고 묵연히 눈으로 웃음짓네 라는 게송이었어요. 말 이전에 이미 해 마쳤는데, 이 도리를 알겠느냐는 조사의 가르침이지요."

진광 스님은 수행을 하는 사람이 득력을 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수행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있다 없다 하는 차별심을 두어서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니,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그 자체가 불성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곡사 태화선원 선원장실 마루벽에 걸린 만공 스님의 친필 액자 '우화궁'. 오른쪽 옆에는 '수선사'라는 현판도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생명
득력 하려면 온전히 수행에 모든 것 바쳐야

두두물물이 마음의 그림자요(頭頭物物是心)
태허공이 마음의 빛이다(太虛空卽是心色)
빛과 그림자가 사무치는 곳에 옛길이 열린다(色影達處古道開)

영천 기룡산 묘각사에서 정진하던 때(1983년) 지은 선시다. 금강산 유점사 출신인 남장당 혜촌 노스님께 보여 드렸는데 "공부를 제대로 해 나가고 있으니 머지않아 확연히 심안이 열릴 것"이라는 격려를 받았다.

태화산은 길지(吉地)다. 십승지지(十勝之地)로 꼽히는 마곡사 계곡에 아직 찬바람이 쌩쌩 불지만 그 바람 소리 속에는 얼음장을 녹이며 봄이 오는 소리도 들어 있다. 계절에 관계없이 공간에 상관없이 꽃피고 새 우는 소리 가득한 날을 위해 정진하는 태화선원의 정진열기.

진광 스님은 올 하안거부터는 대중을 더 받아들이고 정진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곡에 매화꽃 향기 진동할 날이 머지 않았음이다.

글·사진=임연태 기자

한국전통따주기 지도사 강좌 안내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 뼈 부러진 곳과 수술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자녀 교육에 활용
- 신도 포교에 활용
- 따주기 사회봉사
- 생활 속 비상 따주기로 활용(풍, 급체, 기절, 경기 등)
- 이웃에 건강 복 짓기 활용

강좌세부 내용 한번의 수강으로 이론,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09:00 ~ 22:00)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공해)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나. 2일차(09:00 ~ 13:00)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수치의 비밀,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수료증 수여

강좌 일정 및 장소 (선착순 12명)

-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강(교수, 공학박사)
- **일정 :** 2008. 3. 1(토) ~ 3. 2(일)〈금요일 오후 도착가능〉
- **강사 :** 충남청양교육장(충남 청양군 소재)
- **수강료 :** 40만원 (순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제공)

◇준비물 : 필기구, 편한 옷(또는 운동복)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불교-문학 통섭, 길도 넓고 희망도 크지요”

데스크 초대석 불교문학포교원장 혜관 스님

영상매체와 통신기기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 틈바구니에서 문학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실험도 아끼지 않는다. 삶의 방식이 변한다고 하여 서사(소설)와 서정(시)이라는 문학의 본령(本領)까지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자칫 안일한 것일 수 있는 시대. 한국문학 속의 불교문학도 ‘도전과 응전’이라는 가파른 상황을 거부할 수 없다. 신매체가 사람들의 감성 활동을 지배하는 이 시대의 불교문학은 과연 건강한가? 1990년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에 불교문학포교원을 개원한 이후 불교와 문학의 통섭과 융합을 이끌어 온 혜관 스님. 스님은 현대 승려문단과 재가불자들의 문학적 열정을 함께 아우르며 불교문학의 발전을 위한 발판 다지기에 20여년을 바쳤다. 1986년 <시조문학>으로 초회 추천을 받고 1989년에 추천 완료되어 문단활동을 시작한 혜관 스님은 시집 <번뇌 그리고 꽃>을 펴냈고 현재는 <불교문예> 발행인이다. 한국문인협회와 시인협회 회원,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 이사로 활동 하고있다. 혜관 스님에게 불교문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물었다.



만해축전 불교문학 저변 확대 역할 톡톡
“‘불교문예’ 전국적 조직망 완성 힘쓸 것”

–불교문학포교원은 어떤 동기로 언제 개원했는지요.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교와 문학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전하는 경전들이 문학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경전은 단순하게 구성된 가르침의 기록이 아니라 산문과 운문이 적절히 조화된 문학적 수사(修辭)로 이루어져 있잖습니까? 특히 선불교에서 선사들이 깨달음의 충만한 희열을 짧은 시구로 드러낸 오도송이라든지, 입적을 앞두고 토해내는 열반송(임종게) 등은 불교만의 독특한 문학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설화나 전기문학 분야에서도 불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연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가 없다면 한국의 고대문학이 없을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국유사>의 상당부분이 불교문학의 범주에 드는 것이라고 볼 때 한국문학에 있어 불교는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들어 불교는 문학과의 밀접한 관계성을 살려나가는데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을 쓰면서 틈틈이 문인협회나 문학 모임에 가는 기회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모임에 가보면 다른 종교계의 문학인들은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통한 포교의 공간이라도 하나 열어 보고 싶은 생각에 1990년 4월 1일 불교문학포교원을 개원했습니다. 불교와 문학의 만남을 추구하는데 뜻을 함께 한 많은 분들이 불교문학포교원과 <불교문예>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창작과 문예운동을 해보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문학포교원이라는 특징에 맞춰 매월 정기적인 문학모임(품평회 등)을 갖고 있으며 청소년 글짓기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자님들을 위한 일반 법회도 열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시대에 밀린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문학도 그 향유계층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교문학이 처한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불교문학도 시대의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구조가 인문학보다는 자연과학에 의존하고 있고 대중들의 관심 역시 ‘감성’ 보다는 ‘생존’으로 쏠려 있으니까요. 취업과 유관한 공부에 매진해도 살기가 힘들다는 게 사회적 흐름입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쁘기만 한 것이 현대인이고요. 생계의 문제가 절박한 현실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엄두를 내지 못하니까 문학도 생활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구나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통신 기술의 발달은 조용히 앉아 문학을 감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창작물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작가와 독자가 소통할 때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생산되는 문학작품은 건강하게 소통될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문학은 일반문학과 또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소외의 폭이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정신 그 자체는 문학을 비롯한 모든 예술에 깊이 천착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생산되는 창작품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적’인 분야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문학인들 사이에서도 불교문학에 대해서는 전문가 이외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그런 까닭에 우수한 작품이 창작될 확률도 낮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반적인 상황분석이 전부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불교는 그 자체로 문학적 접근성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첨단화 되어가는 과학으로 쏠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만큼 자신의 실존과 근원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을 탐색하는 불교문학이야말로 과학으로부터 소외된 인간 사회에 가장 절실하고 친근한 벗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불교에 천착한 작품을 쓰는 문인들도 늘어나는 추세고 선시(禪詩)를 연구하는 학자나 평론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교문학에 대한 문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만해축전’의 영향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해마다 성대하게 열리는 ‘만해축전’은 만해 스님의 사상을 국내 문학계뿐 아니라 세계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이란 바로 불교의 사상이고 불교문학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해축전’은 다양한 테마 이벤트와 시상식, 학술세미나, 창작발표회, 백일장 등을 통해 불교문학의 근간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좋은 잔치마당입니다. 또 <유심>과 <불교문예> 등 계간지도 불교의 정신과 문학이 만나는 좋은 공간입니다. 이들 계간지들을 통해 좋은 작품들이 소통되고 문인들이 배출되는 것만으로도 불교문학의 앞날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불교문학의 저변은 무한정 확장되리라고 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질적 향상도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를 자세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문인협회는 불교문학을 견인해 나가는 주축입니다. 현재 35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조오현(신흥사 회주) 스님께서 상임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고문으로는 청화, 정휴, 성우 스님들이 지도해 주시고 있고 수완 스님이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세영(한국시인협회장) 서울대 명예교수와 최동호(고려대) 교수, 김재홍(경희대) 교수, 나태주 시인, 문효치(한국펜클럽이사장) 시인, 이은봉 공광규 장영우 문숙 시인 등이 불교문인협회를 이끄는 중심축입니다. <불교문예>의 근원은 불교문학포교원 개원 직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포교원을 개원한 후 곧바로 불교문학에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이 모여 ‘큰수레글나눔’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의 동인시집 <돌의 탄생>을 5차례 펴내고 현대불교문인협회를 조직해 <문학법보> <삼오문학> <문학과 삶> 등의 소식지들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1995년 오현 스님(신흥사 회주)으로부터 <불교문예>라는 제호를 받아 본격적인 계간지 발행에 돌입했고 다음해부터는 ‘현대불교문학상’을 제정해 운영했습니다. 이 상은 1999년부터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인협회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교문예>는 매년 신인상을 통해 시 소설 평론 등 각 분야에 걸쳐 신인을 발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0여명의 문인이 배출됐습니다. <불교문예>는 불교와 문학의 상호통섭과 융합을 지향하며 한국학의 질적 향상과 문학을 통한 포교의 사명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시낭송회’를 개최하여 불교문학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문학계와 불교계는 물론 인문학계로부터 주목받는 주제를 선정해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불교문예>의 창간정신을 고양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불교문인협회의 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불교와 영상문화’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와 기획특집(<불교문예> 38~39호)으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불교문예>가 더 좋은 문예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문학 속에서 불교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이나 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 가운데 <불교문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조계종 총무원의 일부지원과 화주를 통해 제작비가 충당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재정구조를 이루어 더 좋은 문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교문예>는 문학의 모든 장르를 수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불교와 문학의 상호 통섭과 융합’이라는 이념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장르를 섭수하다보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운 역사를 견디며 꾸준히 발전해 온 저력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다 입체적인 기획과 좋은 필진의 확보, 편집과 디자인의 세련미를 더해가며 불교문학의 교두보를 지키고자 편집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불교문예>는 가장 엘리트 집단을 포교하는 포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본부와 경남, 대구지부만 활동하다 작년에 광주, 전라지부를 결성하여 호남지방에도 불교문인들의 귀의처가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는 부산, 경남지부와 충청, 대전지부를 결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조직망을 완성하여 불교문학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저와 현대불교문인협회의 가장 큰 발원입니다.

글=임연태 부국장 사진=박재완 기자

평생부자지갑
◆무자년 소원 성취 지갑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새해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새해 소원성취의 선물!

2008년 쥐띠 무자년은 12지신중 첫번째로 앞으로 12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첫해다. 재운이 없는 지갑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이 시작할 시점이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영험을 발하게 하는 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또한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어려웠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동산이 쉽게 팔리고 생각지도 않던 좋은 일들이 만들어 지는등 영험의 지갑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2008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 막아!!

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삼고금강저



※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뜻깊은 삼재소멸 선물로 품격이 있습니다.

2007년에 드는 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9년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각종 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 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순금금니로 제작하여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가 끝나는 2009년 말일 삼고금강저를 기도한 후 땅속에 묻으면 삼재는 모두 끝난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드린다. 가격:35,000원 (가로5cm폭2cm)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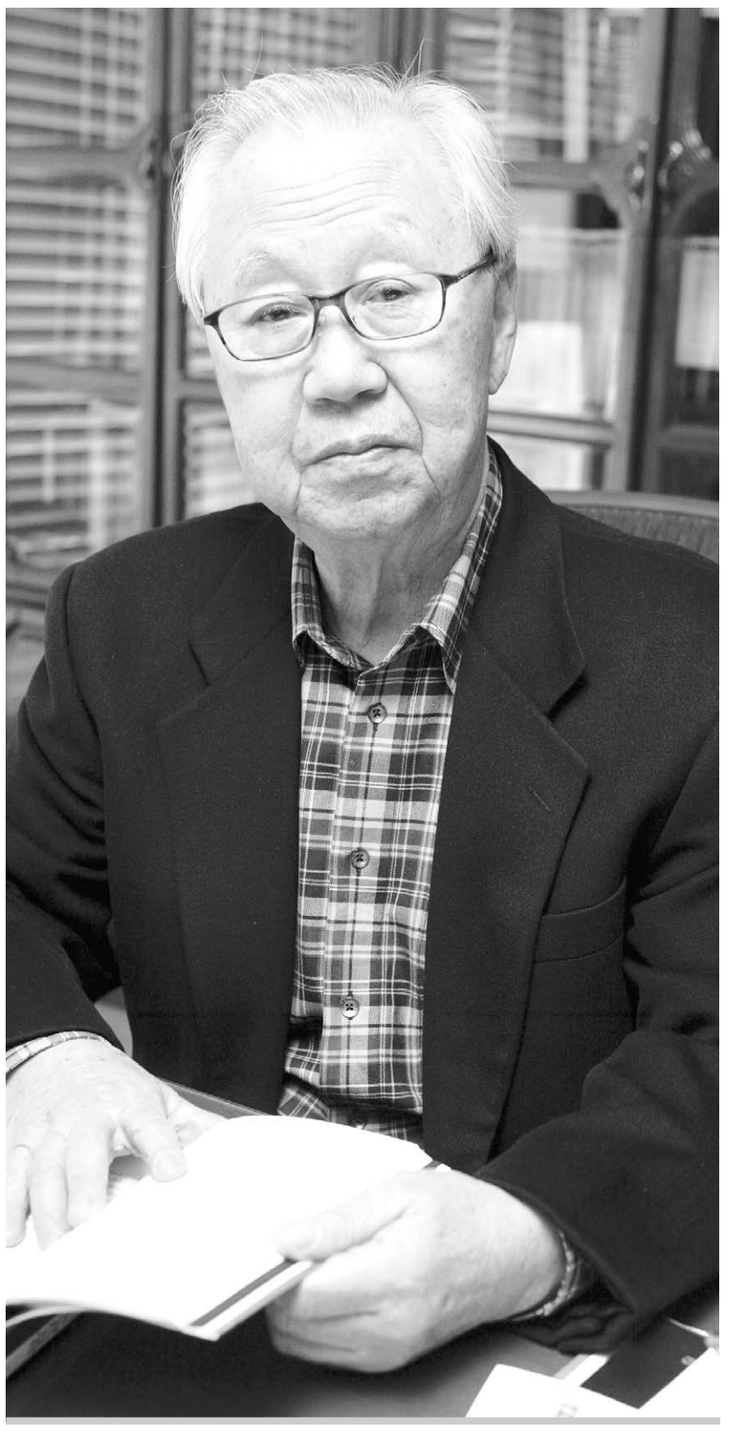


나의 삶 나의 불교학

이재창 박사

나와 함께 공부했던 황수영 박사는 동경대 경제과를 졸업했다. 고향인 개성에 돌아온 그가 첫 취직한 곳은 박물관이었다. 그는 그 인연으로 불교미술과 고고학의 대가가 됐다.
내가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도 황 박사와 비슷하다. 불교학에 뜻을 품고 공부를 시작했다기 보다 공부를 하다보니 인연에 따라 불교학을 하게 됐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 시절 대학을 다녔던 나는 대학졸업을 위해 논문 준비를 해야 했다. 당시는 학사논문 제도가 있어서 대학 졸업을 하려면 학사 학위논문이 필요하던 때였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던 나는 '경제학의 어느 분야로 논문을 준비하고 공부할 것인가' 고민했다.
당시 거시경제의 대가로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故 신태환 교수(前 서울대 총장)가 "자네 집안이 불교와 인연이 깊으니 불교와 관련된 논문을 써야하지 않겠나"하며 불교사원경제와 관련된 논문을 준비해 보라고 권한 것이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였다.

기라성 같은 제자들 키운 것 큰 보람



 # 독립운동가였던 선친, 친일 매도 안타까워

내 불교 공부의 정신적 후원자는 선친이다. 어느 자손이 조상 없이 존재함이 가능하겠냐마는 내 경우에는 더욱 그러해 선친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선친의 법명은 종욱(鐘郁)이며 호는 지암(智庵)이다. 독립운동가로도 알려진 선친은 월정사 주지와 조선불교조계종의 종무총장(현 총무원장)과 국회의원,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3·1 운동 이후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선친은 인천과 상해에 각각 한성정부와 호상정부가 세워졌을 때 호상정부에서 입법의원과 내무부 참사를 지내기도 했다. 김상옥 의사가 종로경찰서에 의거했을 때 사용된 폭탄도 선친이 주선했다. 이 때문에 선친은 3년 동안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 이후 월정사로 돌아간 선친은 많은 채무로 폐사 위기에 몰렸던 월정사를 지켰고, 일제의 조선불교 병합을 막고자 '31본산주지제'를 만들었다. 당시 한국불교는 조선조 세종 이후 선교양종이라 불렸다. 반면에 일본불교는 임제종, 조동종 등 여러 종파로 나뉜 종파불교였다. 선친의 표현을 빌자면 "일본 불교가 한국불교를 병합하려 하니, 일본 종파에 없는 이름을 찾아야 우리 불교를 흡수 못할 것"이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조선불교조계종이었다.

하지만 근래에 혹자가 선친을 친일인사로 매도하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일제 당시 총무원장을 하다 보니 발언 등은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일제 때 본사 주지는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했고, 말사 주지는 도지사 허락이 있어야했다. 독립운동은 숨어서 하니 증명이 쉽지 않고 친일 행적은 증거가 남으니 당연한 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광복 이듬해인 1946년 1월초 선친이 김구 선생 등과 만남이 있던 것은 유점사 등 여러 사찰의 재정을 모아 독립운동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해방이 돼 젊은 스님들이 몰려오자 껄껄 웃으시며 "잘들 하시게"하고 총무원장에서 물러났던 선친이, 1951년 다시 총무원장 자리에 오른 것도 선친의 애국 행적이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동국대가 종합대로 승격될 수 있었던 것도 부산 피난 시절 선친과 친분 있던 문교부 장관 故 김법린 선생의 공이 컸다.

 # 선친 권유로 진학한 동국대에서 불교학자 돼

나는 원래 서울대에 진학하려 했었다. 당시 입학원서에는 보호자 합의가 필요했다. 서울대 입학원서를 보인 내게 동국대 이사장이셨던 선친은 "애비가 동국대 이사장으로 많이 입학하라고 권하고 다니는데 아들이 다른 학교 가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고 하셨다. 결국 나는 동국대 경제학과에 진학했다.

신태환 교수의 조언으로 불교사원 경제 논문을 준비했지만 준비하는 사이 학사 학위논문 제도가 없어졌다. 비록 논문제출은 못했지만 논문 준비를 하면서 이것이 내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했다. 경제학과가 아닌 불교학과로.

1960년 전임이 됐다. 한학기 3과목 책임시간을 채우다보니 불교문화사, 영어불전 강독, 불교경전개설 등 불교사원경제 외의 과목도 강의했다. 강의를 하려면 수업시간보다 몇 배 되는 시간을 준비해야 했고, 그만큼 내 공부도 무르익었다. 1993년 정년까지 33년동안 불교학 연구에 매진했다. 불교학 연구의 즐거움은 좋은 스승과 도반들을 만나 더했다. 특히 故 권상로 박사, 김동화 박사, 조명기 박사, 김잉석 박사 등 이분들에게 사사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던 것은 큰 영광이었다.

인문계 대학교수는 예나 지금이나 궁핍하지만 이 때문에 대학교수 시절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 이공계는 외부 연구를 수주하면 거액이 지급된다. 본인과 제자가 여유있게 연구에 매진할 수 있지만 인문계는 그렇지 않다. 근래 불교계에서 연구자 지원이 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불교학자 외국어 습득에 주력해야

불교사를 연구하다보니 한문 자료를 주로 봤다. 학부시절 틈틈이 해둔 덕에 영어도 잘했지만 영어와 독어 등 서구권에는 한국불교사 관련 자료가 없었다. 내가 영어불전강독을 강의했던 이유는 불교학 공부하는 학생들의 영어가 짧아서였다. 한문에 편중된 공부를 하다 보니 다른 외국어를 접할 이유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불교학을 하려면 빨리어와 범어, 티베트어는 필수다. 1960년대 티베트어가 등장하면서 학계에는 티베트어를 배워 한문경전 번역의 오류를 찾는 트렌드가 일어났다. 범어와 티베트어는 같은 어계로 번역시 오류가능성이 적다. 반면에 범어와는 다른 어계인 한문은 번역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교학자들은 이제 영어는 물론 한문, 범어, 티베트어, 빨리어 등 다국어를 구사해야하는 시대가 됐다. 단순히 외국어 구사능력만 보더라도 5~6개 국어에 이른다. 신진 불교학자들의 노력은 대중들로부터 칭송받아야 한다. 불교학자 자신도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매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평생을 불교학자로 살아온 내 삶에 불교는 생활의 지침이었고 연구의 대상이다. 목정배, 오형근, 권기종, 서윤길 등 1980~1990년대 한국 불교학계를 주름잡던 학자들이 모두 내 제자다. 평생을 쏟아 양성한 제자들은 내 삶에 커다란 자부심과 보람이다.

 # 잘못된 불기 반드시 수정돼야

불교학자로서 당연한 신심과 수행 이야기 대신 나는 불기 문제를 말하고 싶다. 올해는 불기 2552년이다. 하지만 태국 등에서는 2551년으로 표기한다. 우리나라의 불기가 1년 빠르다. 내 삶에 가장 안타까움이 있다면 불기 오류를 정정하지 못한 것이다. 불기 오류는 1992년 세계불교도회의(WFB)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면서 처음 알려졌다. 총회 1주일 전 대회 점검왔던 태국 본부 직원들이 불기가 틀린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미 인쇄까지 마쳤으니 잘못된 사실만 알고 그대로 진행하자고 한 것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후에 한국본부회장이던 故 박동기 교수와 WFB 한국본부 이사회를 열어 이를 고치려고 했었지만 못했다. 2월 각 종단에 협조공문이 발송됐지만 이 사회가 가을에야 열리면서 잊혀진 것이 이유였다.

한국은 고구려 의연 스님이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배운 석가모니 부처 탄생해를 기준으로 불기를 사용했었다. 의연의 기준이라면 올해는 3034년이다. 불기가 대중화된 것은 한일합방 이후다. 일본 연호가 쓰기 싫어 불기를 쓴 것이 이유였다.

1956년 제4회 불교도 대회 때 남방, 북방의 불기가 모두 틀린 것을 통일하자고 해서 합의한 것이 지금 사용하는 불기다. 이런 신도간 합의정신은 개신교도 같다. 예수 탄생 시점과 서기 시작점이 실제 4년 오차가 있다는 결과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는 변함이 없다 해서 지금의 서기를 유지하는 것과 같다.

왜 우리가 사용하는 불기가 태국 등에서 사용하는 것과 1년 정도 오류가 있을까? 1956년 12월 불기를 통일하면서 2500년으로 한다고 정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당시 기준은 이듬해인 1957년 스리랑카에서 열릴 붓다 열반 2500주년 기념 준비를 앞두고 정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참석자들은 영어가 서툴러 1956년부터 불기 2500년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사용해 왔다. 이후 잘못된 불기를 바로 잡고자 몇차례 수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한 것은 우습게도 매년 여름 미리 제작되는 이듬해 달력 탓도 있다. 총회는 가을에 열리는데 이미 달력 제작을 여름에 끝내니 수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내게 바램이 있다면 불기가 바로 고쳐졌으면 한다. 당장 고치기 어렵고 혼란이 우려되면 정정된 불기를 신불기라 하면 되지 않은가?

정리=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이재창 박사는 1928년 강원도 평창 출생. 철학박사.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동국대에서 불교대학장, 불교문화연구원장, 대학원장, 불교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한국불교학회장과 금강불교대 학장 등을 지냈고,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로 재단법인 동국학원 이사로 재임 중이다. <한국불교 사원경제 연구> <불교 경전의 이해> 등 저서와 <조선조 사회에 있어서의 불교교단>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탈 종 공 고

●사 찰 명 : **성 불 암**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393-1번지
●대 표 자 : 도신(지왕연)

●사 찰 명 : **광 룡 사**
●주 소 : 경북 영천시 신녕면 매양1리 161-4
●대 표 자 : 혜광(이종필)

●사 찰 명 : **극 락 정 사**
●주 소 : 경북 밀양시 내이동 923-1번지
●대 표 자 : 혜인(김외조)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법하

삼사순례 및 정월방생

본 용연사는 태조왕건의 기도처로 알려져오다 중창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는 도량입니다.
동국여지승람에 이르길 왕건이 개성으로 진군할 당시 몸이 쇠약하여 이곳 서흥사지에 머물러 기도한 곳입니다. 도량앞엔 800만평의 호수가 있어 예로부터 방생터로 이름난 곳이며 교통의 편리성으로 불편없는 용왕제를 지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20분내에 좌불상 각원사와 보탑사, 성불사, 광덕사로 삼사순례의 최적지입니다

안 내
- 방생터내 버스 100대 동시 주차가능
- 도량내 버스 20대 주차가능
- 사전예약시 무료공양 (별도공양비없음) 일주일전 예약
- 방생터내 상과향로촛대 설치, 스님좌복구비
- 외래어종방생금지
- 독립기념관 무료입장

■ **예약전화**
041)554-8080

■ **오시는 길(방생터)**
경부선 목천 TG → 독립기념관 → 용연저수지 대주차장

태조산 서흥사지 용연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서흥리 240



히말라야 도서관

존 우드 지음|이명혜 옮김|세종서적 펴냄|1만원

한 권의 책 수 백만 달러 가치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사 중국지사 이사이자 국제시장 전문가인 우드 씨는 매일 엄청난 양의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탑출구로 입사 7년 만에 네팔 트레킹이라는 휴가를 선택했다. 그곳에서 본 네팔 학교는 그에게 충격이었다. 선생님들은 "책을 좀 가져다 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 한마디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는 계기가 됐다.

그는 책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사들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메일을 통해 친구들에게 책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차고가 꽉 찰 정도로 배달돼 온 3000권의 책을 갖고 그는 이듬해 그 학교를 다시 방문했다. 네팔 어린이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는 이어 자선단체 '룸투리드(Room to Read)'를 설립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네팔 인도 베트남의 오지에 도서관 3000곳을 지었고 150만 권 이상의 책을 기증했다. 200곳 이상의 학교도 지었다. 단 한 권의 책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주는 것이 수백만 달러의 윈도스를 파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세계의 오지마을과 개발대상국가에 책을 전하고 도서관과 학교를 짓는 단체인 '룸투리드'의 이야기를 옮긴 것이다.

우드 씨는 이 책에서 책 기증 운동에 뛰어든 이후 변화한 삶을 담담히 돌아본다. 그가 처음 책을 모아 학교에 전달했을 때 감사 인사는 "당신은 대단한 것을 선물했는데 우린 답례로 드릴 것이 거의 없군요"였다. 우드 씨는 목이 메었다. 자신이 작게나마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감정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고 회고한다.

자선운동을 시작한 지 5년 만인 2004년. 바쁜 일정에 지친 우드 씨는 다시 휴가를 꿈꿨다. 그러나 바로 그때, 쓰나미가 동남아시아를 덮쳤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룸투리드를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4	공부하다 죽어라	현각 외	조화로운 삶
5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6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7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8	무비스님의 천수경	무비	조계종출판사
9	부루나의 노래	법현	운주사
10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청화	상상예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틱낫한의 포옹

틱낫한 지음|김형민 옮김|현문미디어 펴냄|1만2000원

마음의 평화 얻는 지혜 담은 말 가득

"당신은 마음을 집중해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일에 성급하게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물을 보다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틱낫한의 포옹〉 중에서*

좋은 말이고 살아가면서 절실히 필요한 말이다. 하지만 생각처럼 실천이 잘 안되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곱씹어 사유하다보면 어느새 자꾸 따라가게 될 것 같다. 마음의 평화를 주기 때문이다.

명상운동가인 틱낫한(82) 스님이 최근 펴낸 <포옹>을 펼치면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는 지혜를 담은 말들이 가득하다.

틱낫한 스님은 이 책을 통해 경쟁 사회에서 마음의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찾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말한다. 책은 매주 한가지씩, 예를 들면 '삶과의 약속을 어기지 마십시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삶의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등 53가지의 화두를 던지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스님은 현대인이 대부분 시달리고 있는 과로와 스트레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몸이 아프고 근육이 긴장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쉬는 방법을 잊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풀 만큼 진정한 휴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대신 몸의 긴장을 풀어준다면 우리의 치유능력은 스스로 발전할 것입니다."

스님은 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을 때에는 그냥 누워 들이쉬고 내쉬는 당신의 호흡을 즐기라"며 "따뜻한 침대에 조용히 누워 지금 이 순간을 향유하면서 당신의 호흡을 즐기는 상태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잠이 들 것"이라는 처방을 내렸다.

생각에 빠져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스님은 또 "집중하고 통찰할 수 있을 때 생각은 아주 생산적인 힘을 발휘 한다"며 "호흡에 집중하면 거센 생각의 폭풍이 멈출 것"이라고 조언한다.

지난해 4월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마음속 깊이 의무감을 느껴야 합니다. 보다 나은 미래는 우리가 '지금 여기'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행복은 결코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라고. 고개가 끄덕여 진다.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이 그렇고, 국보 1호 숭례문 방화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톡톡히 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내일을 살아 갈 수 있는 건 바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짧지만 강렬하고 주옥같은 스님의 메시지는 하루하루의 번뇌와 불안, 고민을 치유해주고 희망을 갖게 해주는 감로 법문이다.

김주일 기자

푸른 화두를 마시다

이근수 지음|문학동네 펴냄|1만원

산사이야기 등 풍성한 읽을거리

저명한 회계전문가이자 '차인'으로 국내외에 한국 차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해 온 이근수 교수(경희대 회계학과)는 1990년대 이후 무용 평론과 차(茶)에 관한 글을 꾸준히 써왔다.

이번에 펴낸 산문집에서는 숨겨진 차의 명소를 탐방하는 산사 여행기, 올바른 차문화에 대한 고민과 성찰, 정겨운 차인들과의 인연 등을 풍성하게 풀어냈다.

이 교수는 "거창한 불사가 있고 주말마다 관광객을 그득 실은 버스가 들락거리는 유명한 사찰보다는 호젓한 곳에 숨어 인적이 드물고 세속의 때가 덜 탄 곳을 주로 찾는다"고 말한다.

1부에서는 차를 즐기는 산사의 스님들 이야기를 풀어놓았고, 2부에서는 미국 교환교수 시절 스타벅스 커피향으로 넘쳐나는 뉴욕 거리에서도 한국의 차향을 그리워하는 저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뉴욕 발 칼럼을 실었다. 또한 3부에서는 차 문화가 한류문화의 뿌리라고 주장하면서 동북아 중심의 '녹차문화권'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김주일 기자**

초씨역림

초연수 지음|최해성 엮음|신지평 펴냄|2만5000원

상수학 역서 이해하기 쉽게

<초씨역림>은 중국 전한말에 초연수가 찬술한 최고의 상수학 역서이다. 춘추시대 이래 발전을 거듭한 상수학의 모든 이치를 총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후세에 상수역의 모든 기틀을 활짝 열어 놓았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책이 국내에 널리 소개 되지 않은 이유는 은밀하게만 전수되던 비서(秘書)였기 때문이다.

이 책은 4,096의 괘사를 상고시대의 경사중에 문장으로 서술해 놓아 내괘, 외괘, 변괘, 호괘 등을 종합 판단하지 않아도 문장만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놓아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유학, 우리 삶의 철학

필립 아이반호 지음/신정근 옮김동아시아 펴냄/1만5000원

자아수양 방법론 소개

동양철학에서 자아 수양은 유학뿐 아니라 불교에서도 깊이 천착하고 있는 문제이다. 저자의 말대로 자아 수양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유학의 전통을 좇아가다보면 유학의 웅대한 구조를 헤아리기 어렵고 각 사상가들의 사상의 깊이나 특성을 놓칠 수 있다. 반면 그토록 복잡하고 다양한 사상가들을 전통 안에서 꿰뚫으며 그들 철학의 두드러지고 활기 넘치는 특징의 일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국 고대철학을 연구하는 미국인 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2,500년 유학의 역사에서 도덕적 자아 수양의 개념이 어떻게 진화, 발전해왔는지 간명하게 설명해 준다. 하지만 개별 철학자들의 사상을 추상적으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지적 풍토에서 자신들의 독특한 자아 수양 개념을 완성하게 됐는지 추적한다. 예컨대 맹자는 묵자와 양주학파의 공격을 받아 공자의 학설이 궁지에 몰린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다.

이외에도 저자는 이 책에서 유학사에 족적을 남긴 공자, 순자, 주희, 왕양명, 안원, 대진 등이 설파한 자아수양 방법론을 소개했다. **김주일 기자**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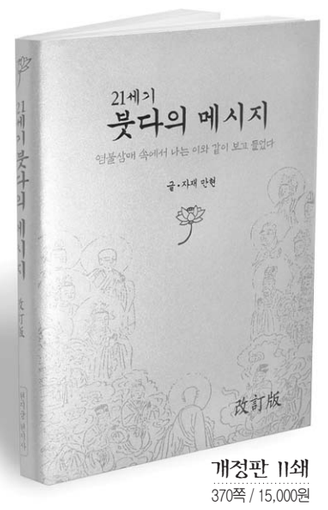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尊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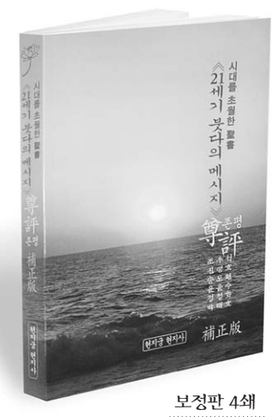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절찬리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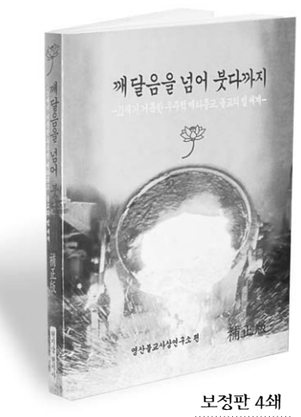
12쇄 개정판 11쇄 이어 발행!!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할까....., 나는 이제 현지사 큰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http://www.hyunjisa.or.kr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만화로 엮은 쉬운 불교책 계속 낼 터”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도서출판 솔바람



사람이 있어 즐겁고 행복한 도서출판 솔바람 식구들은 동출스님(오른쪽 두번째)과 함께 오늘도 불서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

솔바람. 이름에서 향기가 난다. 언제나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것 같은 느낌. 불서 만드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랴. 어떤 일이라도 마찬가지지만 한 자리에서 20년 동안 불서를 만들어왔다면 솔향기가 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도서출판 솔바람(대표 동출, 이하 솔바람)은 서울 종로 한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 들어서자 솔바람 대표 동출 스님이 기자를 맞아준다. 스님의 출판경력도 솔바람과 함께 20년을 맞았다.

출판사의 성격은 거의 출판사 대표나 편집장에 의해 결정된다. 동출 스님 하면, 종단 내외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틈틈이 사찰문화연구원 등에서 일하는 불교계 자원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스님이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책일까.

지금까지 출간한 책을 살펴보니 만화책만 약 5권이다. 솔바람이 1989년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출판사업에 뛰어 든 것은 불과 2~3년이다. 그렇게 보면 적지 않은 책이 만화로 출간됐다. 스님은 솔직하게 “만화가 경쟁력 있다”고 말한다. 즉 다른 불교출판사에서 쉬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만화 작가들에게 인세를 많이 주고 출판해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란다.

“만화가 보기에는 쉬워보여도 제대로 하려면 6개월~1년까지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마음 놓고 제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화로 엮은 쉬운 불교책을 약 2~30권 정도 낼 계획이라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1권이 나왔던 <부처님 생애>의 경우 현재 2 · 3권 원고를 받아 작업중이며 올해 안에 4권까지 내는 것이 목표라 한다.

만화 이외에 스님에게 의미 있는 책을 꼽아 달라 부탁하니 우선 10권으로 엮어낸 <불교설법전서>를 보여준다. <불교설법전서>는 행사설법, 교리법문설법 등을 항목별로 분류해서 발간한 책이다.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스님이나 법사들이 법문을 할 때 이 책을 많이 참고한다며 솔바람의 ‘효자’로 꼽았다.

반면 출판은 됐으나 스님이 아쉽게 생각하는 책도 있다. 번역서인 <배낭 속의 부처>다. 이 책의 경우 10대가 겪는 사랑과 성, 공부 등의 현실적 문제에 관해 고리타분한 법문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는데 생각보다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그래서 스님은 이 책을 다시 디자인해서 출판 시장에 내놓을 생각이라 한다.

동출 스님과 이야기 하다 보니 솔바람은 아주 현실적인 출판사라는 것이 느껴진다. 이는 스님의 명함을 봐도 알 수 있다. ‘솔바람 대표’라는 직함 앞에 ‘설법연구원’이라는 이름도 함께 기재돼 있다. 솔바람과 설법연구원 모두 동출 스님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곳 모두 간행물을 만들지만 약간 성격이 다르다. 솔바람에서는 단행본 서적을 주로 만들어 낸다면 설법연구원에서는 <설법>지를 펴내면서 각 사찰의 사보(寺報)를 제작한다. 즉, 단행본만 제작하기 어려운 불교계 출판 현실 속에서 매달 펴내는 <설법>지를 기본으로 한 사보 외주 제작을 함으로써 출판사 수익을 내는 것은 물론 솔바람과 설법연구원 모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 “‘보다 쉽고 재미있는 책’이 화두 ‘불교설법전서’ 솔바람의 효자”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은 힘들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사람’밖에 없다. 스님도 솔바람의 힘을 직원들과 스님이 서로 신뢰하는데 있다고 믿는다. 그러다 보니 이직률도 낮아 직원들 연차가 6~7년은 기본이다. 그래도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 김용란 편집장에게 힘든 일은 없냐고 슬쩍 물어봤다.

김 편집장은 “불교출판 기획에 고민이 많다”고 토로한다. 불교를 좀 더 잘 알릴 방법이 없을까 요즘 많이 생각한단다. 그러면서도 김 편집장의 표정이 밝다. 이유가 있었다.

“불서를 만들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 불법 속에 들어가게 돼요. 불서 출판사에 일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문득문득 느낍니다.”

출판사는 책을 만들기 위해 태어난다. 책을 만드는 데는 종이, 잉크 등의 물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사람의 땀이다. 땀 흘려 만든 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신뢰가 있고 불서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의 출판사, 앞날이 밝지 않을까.

글 · 사진=김강진 기자

도서출판 솔바람 불서 BEST 20

순위	책 이 름	저 자	출판년도
1	불교설법전서(전 10권)	사찰문화연구소	1989
2	구법	정운	2007
3	자타카의 노래	김장열	2007
4	부처님 생애	김정빈 글, 최병용 그림	2007
5	만화 백유경	김장열	2006
6	마음을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	방경일 글, 김장열 그림	2003
7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방경일 글, 김장열 그림	2005
8	하수와 고수	강병호	2007
9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양리 브뤼넬 지음, 임희근 옮김	2006
10	배낭 속의 부처	프랜츠맷캐프 지음, 진우기 옮김	2006
11	행복해지는 연습	쵸감 트룽파 지음, 진우기 옮김	2007
12	실험처럼 살아라	페마 최된 지음, 진우기 옮김	2003
13	환희	정운	2007
14	떠남	정운	2007
15	아함경으로 배우는 불교	반영규	1998
16	신묘장구대다라니 강해	임동근 역저	2002
17	뜻으로 읽는 금강경	송찬우 역저	1998
18	참회정진	도법 엮음	1998
19	불사 및 기도 안내문 모음집	편집부	2000
20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	이경애 엮음	1999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불서 읽기 캠페인

경허법어

경허성우선사법어집 간행회|인물연구소|1981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학 교수)

‘참 나’가 어떻게 생겼는가?

“법문은 술김에나 하는 것이지, 맑은 정신으로는 할 게 못 돼.”

경허 스님이 만공 스님에게 하신 말씀이다. 경허 스님이 천장사에 계실 때 사람들이 불법도리를 물으면 아무 말씀 없다가, 누구든지 곡차를 올리면 그 곡차를 드시고 난 후 법문을 종일이라도 하셨다.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에게 항의하니 말씀하셨다. 법문은 술김에나 하는 것이라고.



어느 날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을 모시고 가는데, 날은 어둡고 다리는 아프고 해는 뉘엿뉘엿 갈 길이 멀었다. 앞서 가던 경허 스님이 물동이를 이고 가던 여인과 마주쳤다.

속가 모친께서 벽초 큰 스님께 직접 받아온 책
이 책 읽고 출가해 참선입문서 내는 계기 마련

경허 스님이 느닷없이 달려들어 여인의 양쪽 귀를 잡고 입술에 번개같이 입을 맞췄다. 여인은 비명과 함께 물동이를 깨뜨리고, 동네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뛰어왔다. 정신없이 도망치던 두 스님이 마을을 멀리 벗어나자, 경허 스님이 말했다.

“내 재주가 어지간하지. 무거운 쌀자루도 잊고,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왔으니 말이야.”

이 밖에도 수많은 무애행이 적혀있는 <경허법어>는 참선에 관한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로만 읽었던 책이, 인생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시절 정신적인 방황 가운데서 마음의 지표를 제시하여 주었다.

‘몸뚱이는 송장이요 망상번뇌 본공(本空)하고,
천진면목 나의 부처, 보고 듣고 앉고 눕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눈 한번 깜짝할 새 천리 만리 다녀오고,
허다한 신통묘용 분명한 나의 마음 어떻게 생겼는가.’

나의 마음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것만 알면 세상사 고민이 모두 해결된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과연 이 마음, 본마음 ·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참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경허 스님께서 저에게 내리신 화두가 되었다.

결국 <경허법어>로 인하여 참선에서 생사일대사의 궁극적 해결책을 찾게 되었고, 선학을 전공하여 석 · 박사 학위를 따게 되었으며, 결국은 출가해서 강원과 선방에 다니고 참선입문서까지 내는 계기가 되었다. 책 한권의 역할이 이토록 엄청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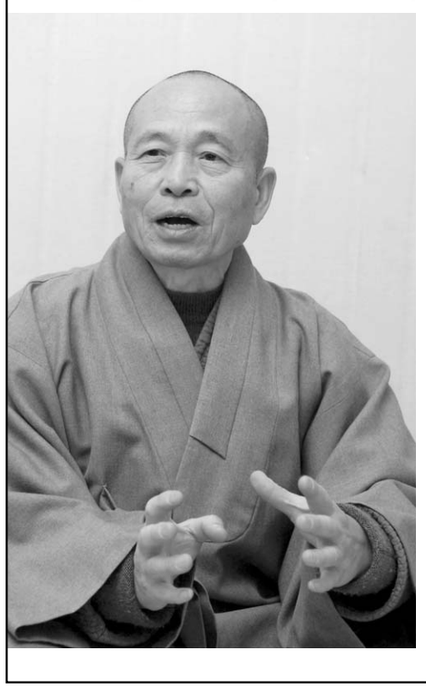
이 책은 속가 모친께서 정혜사 벽초 큰 스님께 직접 받아온 것이다. 집 책장에 꽂아둔 것을 찾아내 읽은 것이다. 처음에는 알쏭달쏭한 내용들이라서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뒤로 가니 경허 스님의 일화들이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결국 인생의 지표가 되었던 것이다.

책이야말로 또 다른 선지식이 아닐까. 나는 비록 경허 스님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경허법어>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다. 간접적인 만남도 때로는 직접적인 만남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책을 만나면 혼자서 즐길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권장해야한다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수십 권씩 사서 주위 분들에게 권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륜을 굴리는 것이다. 직접 설파할 수 없다면 간접적이라도 선지식의 가르침을 전달해야하지 않을까. 나아가 본인이 읽지 않더라도 책장에 꽂아두기라도 하면 아이들이 읽어보고 평생의 지침서로 삼을지 알 수 없는 일 아닐까 싶다.

불교강원과정 3기 수강생 모집

부처님법을 만남은 삼천년에 한번 피는 우담바라꽃을 보는것과 같다고 하듯이 경허, 한암, 탄허 큰스님의 법맥을 이으신 각성스님은 팔만대장경의 정수를 막힘없고 완벽하게 강해하신 한국불교천육백년에 핀 동양학의 대 선지식이십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큰스님의 법보시를 받아 불법의 종지를 증득하시기 바랍니다.



1. 강의과목 : 강원 사교과정중심
(금강경, 능엄경, 대승기신론, 원각경, 유식론, 선가귀감, 육조단경, 화엄경, 반야심경 약소)
2. 교 수 진 : ◆서대원 박사(북경대 철학박사),
◆한승조 교수(전 고대명예교수),
◆조흥식 박사(전 성대불문과학장)
3. 개강일시 : 2008년 3월 15일(토) 오후 3시
4. 강의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5. 제출서류 : 입회원서 1부, 사진 1매
6. 접 수 처 : 보명선원
TEL 02)2273-8484 / FAX 02)2276-0108
011-774-1416 / 011-9021-1680

[재가불자들의 탁마수행도량]

보 명 선 원

서울 종로구 종로5가 182-7 대화빌딩 5층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5번출구 10M전방 첫 우측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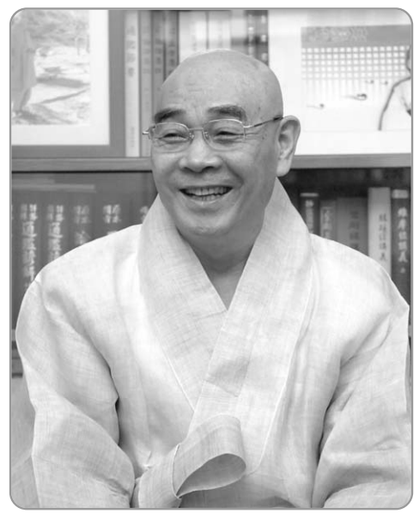
혜거 큰스님께 듣는 금강경

금강경 개강

개강 불기 2552년 3월 6일(목)
시간 오전 10시 30분

관음보살 점안식

날짜 불기 2552년 3월 9일(일)
시간 오전 10시 30분
장소 공생선원 대법당



※ 참선입문 · 경전반 · 참선반 3월 개강 大모집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층 ☎ 02)900-2448
http://cafe.daum.net/zenmaster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23>
(修習止觀坐禪法要)

제3장 기개(棄蓋) ②

'진심'은 불법의 근본 송두리째 파괴

二棄瞋恚蓋 瞋是失佛法之根本 墮惡道之因緣 法樂之寃家 善心之大賊 種種惡口之府藏 是故行者於坐禪時 思惟此人現在惱我 及惱我親 讚歎我寃 思惟過去未來亦如是 是爲九惱 故生瞋恨 瞋恨故生怨 以怨心生故 便起心惱彼 如是瞋恚覆心 故名爲蓋 當急棄之 無令增長

여기에서는 진심(嗔心)의 불길이 사람을 태우는데 있어서 가장 해롭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고인은 말하기를 "한 생각 진심이 일어나면 백만의 장애문이 열린다"고 하였다. 또 "진심의 불길이 일어날 때마다 법신 공덕을 무더기로 다 태운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심이 불법의 근본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것이다. 또 진심이야말로 악도에 떨어지는 인연이며, 법에 대한 즐거움을 마치 원한 맺힌 집안처럼 대하며, 선심에 대한 큰 도적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평소에 갖가지 악한 말로 상대방을 꾸짖거나 비방하는 것 모두가 진심이 구업으로 발현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진심이야말로 나쁜 말로 악업을 간직하는 창고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할 것은 꾸짖고 욕하는 말이야말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과오라는 점이다. 이를 두고 고인은 말하기를 "한마디의 말이 나라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한마디의 말로 인해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구업으로 죄 짓는 것을 삼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행자는 좌선할 때 정념이 일어나기 이전 스스로 사유해야 한다.

진심은 현재의 시간대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내 감정을 위배했던 환경을 인식하고 진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현재의 시간에 나와 친척까지도 괴롭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와 원한이 맺힌 집안을 찬탄하면서 이간질 시키는 경우 등이다.

또한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시간대에서도 나와 나의 친척을 괴롭히는 등 세 종류의 진심이 있었고, 미래에도 역시 그럴 것이다.

이와 같이 세 종류의 진심을 과거 · 현재 · 미래 삼세로 유추해 계산해보면 바로 아홉 종류의 진심이 성립하게 된다.

이 같은 아홉 종류의 진심을 따라서 노여움이 일어나고, 노여움을 따라서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를 따라서 원한이 일어나고, 원한과 노여움이 무더기로 일어나 마침내 우리가 본래 지니고 있는 진실한 마음을 거의 다 덮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진심이 본심을 덮는다고 해서 '진에개'라고 이름을 붙였다.

모든 독의 근원으로 일체 선공덕 제멸시켜
세종류 진심, 세종류 자비심으로 멀리해야

진심의 해독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았다면 수행자는 이를 급히 버리고 진심이 다시는 증가하면서 자라나지 못하게 해야만 한다.

如釋提婆那以偈問佛
何物殺安樂
何物殺無憂
何物毒之根
吞滅一切善
佛以偈答言
殺瞋則安樂
殺瞋則無憂
瞋爲毒之根
瞋滅一切善
如是知已
當修慈忍以滅除之
令心淸淨

이 게송은 그 의미를 도치법 문장체로 나타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안락하지 못함은 생사의 세계이고, 근심이 있다고 함은 번뇌에 비유한 것이다. 어떤 물건이 탐진치 삼독의 뿌리이며, 어떤 물건이 일체 모든 선 공덕법을 소멸시키겠는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게송으로 답변하셨다.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 여래께선 크게 자비하시어 중생이 구하면 반드시 감응하신다. 이는 마치 거대한 종이 쳐주기를 기다렸다가 종을 치는 만큼 소리가 울리는 이치와도 같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즉시 답변으로 말씀하시기를 "진심을 없애면 안락하고, 진심을 없애면 근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처음 질문에서 "어떤 물건이 안락함을 죽이고 어떤 물건이 근심 없음을 죽이는가" 라고 말하였다.

안락은 열반에 해당되고, 근심 없음은 보리를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위없는 열반적정의 즐거움이고, 위없는 깨달음의 법락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청정한 열반의 이치에 도달한다면 항상 고요한 지혜 광채 속에서 안온하고 쾌락할 것이며, 그 자리는 삼계 내의 견혹(見惑) 사혹(思惑)과 삼계 밖의 진사혹(塵沙惑))과 근본무명혹(根本無明惑)인 오주지(五住地)번뇌를 멀리 여읜 곳이다.

만일 안락함을 살해한다면 그와 반대로 안락하지 못함을 얻게 되고, 근심 없음을 해친다면 다시 근심이 있게 된다.

바로 진심이 번뇌임을 지적한 것이다. 만일 진심을 제거할 수 있다면 청정한 열반의 이치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근심하는 마음까지도 멀리 떠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진심은 모든 독의 근원이며, 그러한 진심이야말로 일체 선 공덕을 제멸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 문제를 두고 옛날 큰 스님은 말하기를 "진심은 마음속의 불과 흡사하여 모든 공덕림을 태울 수 있다. 수행자가 보리도를 행하고자 한다면 진심을 경계하고 진실한 마음을 보호하라" 고 하셨다.

수행하는 사람이 이를 알았다면 마땅히 자비와 인욕의 마음으로 수행하여 진심을 제멸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만 한다.

이상에서 말한 진심은 비록 많기는 하지만, 그것을 총체적으로 요약하면 세 종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올바른 이치가 아닌 데서 일으키는 진심이고[非理瞋], 두 번째는 이치를 순종하는 데서 일으키는 진심이고[順理瞋], 세 번째는 시비 논쟁의 진심[諍論瞋]이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비와 인욕도 역시 세 종류가 있다.

중생을 인연으로 한 자비[生緣慈]를 닦는다면 올바른 이치가 아닌 데서 일어난 진심을 대치할 수 있고, 정법의 인연으로 닦는 자비[法緣慈]라면 이치를 순종하는 진심을 대치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아무런 조건 없는 자비[無緣慈]를 닦는다면 시비 논쟁에서 일어나는 진심을 대치할 수 있다.

이처럼 세 가지 자비심을 닦는 방편에 의해서 '진에개'를 멀리할 수 있다.

진심이 다한다면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고 지관을 성취하지 못할까 근심하겠느냐.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모든 번뇌의 근원은 아집

우리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간고통의 원인이 번뇌임을 알았다면, 번뇌를 어떻게 끊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번뇌는 마치 난마처럼 얽히고설켜, 번뇌가 이쪽에서 사라지면 동시에 저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시이래로 간단없이 상속하는 번뇌를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번뇌를 끊는데 훌륭한 수행관찰, 즉 선교방편이 없다면 이고득락의 안온한 해탈의 경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부처님은 번뇌의 사슬을 끊으려면 가장 먼저 아집을 끊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번뇌, 즉 '탐진치만의악견' 이 한결같이 아집을 따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집이 모든 번뇌의 주범인 것입니다.

중생들은 아집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아소집을 일으키게 되고, 아소집을 집착하는 만큼 탐진치 등의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아집이 없다면 아소유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아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다면 무슨 탐욕[貪]의 대상이 따로 있겠으며, 아집이 없으면

탐진치 한결같이 아집따라 일어나
아소집 집착없애면 미혹도 사라져

'아'를 거슬리는 역경계가 없는데 무슨 진심[瞋]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아집을 떠난 상태에선 자타가 평등한데, 그곳에 무슨 교만심[慢]이 있겠으며, 제법무아(諸法無我)의 이치를 통달하여 미혹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무슨 어리석음[癡]과 의심[疑]이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번뇌는 아집을 따라서 일어나며, 아집의 견해만 제거된다면 그에 따른 미혹도 영원히 사라져, 열반적정(涅槃寂靜)의 경지가 현전(現前)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유정들은 아집 때문에 실재하는 '아'는 단멸이다, 또는 상주한다는 등의 변집견을 일으키고, 이를 따라서 모든 사견까지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그 사견이 이 세간에서 가장 훌륭한 진리라고 여기고, 그 견해만이 진실한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굳게 집착하게 됩니다. 이같은 견해에 대한 집착이 견고해지면 다시 견취견과 계금취견을 일으켜, 그 번뇌집착의 모습이 간단없이 상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치를 명쾌하게 통달하면서 아집의 견해를 없앨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도 사라질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본 종단에서는 석가세존의 자비사상바탕으로 수행정진에 힘쓰는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사찰등록 및 승려자격 ◎ 타종단에서 사미계 이상 수지한자
◎ 법당에 본존불(석가모니불,아미타불,약사여래불)을 모신 법당이어야 함

※본 종단에서는 무속인은 일체등록을 불허합니다.

▫사찰등록서류 ◎ 입종 신청양식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증사본(앞뒤) 1매, 승려증 사본 1매,
◎ 종단 간부 소임을 맡을분은 자기소개서 1부 제출

※행자모집(스님이 되고자하는분) : 일체 교육비 없음(6개월간 무료 교육) 스님 양성
※동자모집(불우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대학까지 책임지고 교육)

입 종 비 : 일십만원

▫유관단체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세계불교무술총연합회,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세계불교고승연합회, 영남범음범패 교육원

※본 종단 입종후 종도연수교육 수료한후 승려증을 발급합니다.
※본 종단은 강원 및 율원 선원 불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범음범패 이수 받으실분은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고원사
TEL : 054)382-3363,3397 / FAX : 054)383-5005 www.gowonsa.com

출강 및 통신

2008학년도 제17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7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8학년도 제17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교육원 • 제주 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8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사무국(우편 · 팩스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오늘의 禪語

⑦ 참선 수행자의 조건

'의문' 있는 곳에 답도 있다

'대신근·대분지·대의단' 3가지 요건 갖춰야 깨달음 도달
"깨달음에 대한 확신으로 열정을 다해 강한 의문 품어야"

서산 대사(西山, 1520~1604)는 <선가귀감(禪家龜鑑)>에서 "참선하는 자는 반드시 세 가지 요건(三要)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요>를 지은 고봉원묘(高峰原妙, 1234~1295)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란 '대신근(大信根)' '대분지(大憤志)' '대의단(大疑團=疑情)'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고는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근(大信根)은 '큰 믿음'으로 화두를 참구하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사업이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깨달음을 체득하는 일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화두를 참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분지(大憤志)는 '분발심'입니다. 확신을 갖는다고 해도 마음을 다하여 떨쳐 일어나려는 분발심, 즉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없다면 곤란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에겐 성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대의단은 줄여서 '의단(疑團)' 또는 '의정(疑情)'이라고도 하는데 흔히 '의심'으로 풀이합니다. '대(大)'자가 있으므로 '큰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른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대의단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단' '대의단'을 일반적으로 '의심' '큰 의심'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는 '단(團)'자가 있으므로 '의심 덩어리' '큰 의심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은 화두참구에 있어서 첫째로 꼽는 필수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두를 참구할 적엔 의심을 크게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흔히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게 되고, 작게 의심하면 작게 깨닫게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크게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의심하라'는 이 말은 참으로 애매모호합니다. '의심을 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의심'이라고 하면 그 말의 밑바탕에는 불신이나 회의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심'이라는 말 대신에 '의문제기' 또는 '문제의식'으로 바꾸어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두는 해석하지 말고 무조건 참구해야 한다는 말과 비교할 때 '의문제기'나 '문제의식'이라는 말 역시 상반되는 말로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두를 참구할 적엔 '의심을 크게 하라' '의문을 크게 가지라' 또는 '의문제기'나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말은, 다름 아닌 자신이 참구하고 있는 화두에 대하여 '왜?' '어째서?' 하고 강하게 의문사를 던지라는 뜻입니다. '무자화두'를 참구한다면 '어째서' 또는 '왜 무일까' 하고 의문사(?)를 던져서 참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무일까?' 하고 깊이 의문만 제기해야지, 갖가지로 머리를 굴려서 '왜 무라고 했을까' 하고 분석, 분별(알음알이)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심이나 의문은 분별심에서 나오는 지적(知的)인 의문이 아닌 직관적인 의문입니다. 말하자면 탐구정신을 수반하고 있는 의문구조를 통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정을 통해서 긍정 즉 깨달음을 얻는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되는 말장난 같은 말로 들릴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이해되지 않으면 한 장의 차이가 천양지차로 벌어집니다.

오늘날에는 '의단'이나 '대의단'을 '의심'이나 '큰 의심'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의문 덩어리'로 표현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대의단(大疑團)'에서 '대(大)'와 '단(團)'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대'와 '단'은 보편적인 의문을 큰 의문으로 '덩어리화(化)' 하는 것입니다. 알음알이를 끊고 '왜 무일까' 하고 끝없이 의문을 던지다 보면, 그 의문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큰 돌덩어리처럼 됩니다. 빵빵하게 압축될 대로 압축되어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커다란 풍선이 됩니다. 그 풍선이 '빵'하고 터지는 날이 바로 깨닫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의문 덩치'가 자그만 했는데 "왜" 하고 자꾸만 의문사를 던지다 보니 급기야는 점점 커져서 '탁' 하고 터진 것입니다.

일구월심 화두를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머리엔 큰 응어리(疑團)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다름 아닌 '왜'라는 응어리입니다. 이때 저명한 고승의 파격적(격외의 언어)인 말 한 마디는 일순간에 빵빵한 '큰 응어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또는 일상적인 어떤 일에서 순간적으로 '아!'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기연(機緣: 깨닫게 되는 인연, 계기)이라고 합니다. 깨닫는 순간 의문 덩어리는 저절로 해체됩니다. 이것을 선승들은 마치 '물통 밑이 확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如桶底脫相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大信根)이 가득차면 분발심(大憤志)은 저절로 생기게 되고, 분발심이 가득차면 의문(疑團)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단이 키가 되어서 깨달음의 자물통을 자꾸 자극하다 보면 끝내 화두라는 자물통은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선을 하는 자에게 이 세 가지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는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참선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문이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16관법' 설법 듣고 무생법인 증득

❼ 위제희 왕비

극락왕생 기원하는 왕비 처소 왕림
'정선 13관·산선 3관' 수행법 설법

부처님께서 만년에 기사굴산에 계실 때 왕사성에서 큰 비극이 일어났다. 태자 아사세가 제바달다의 사주를 받아 왕위를 빼앗기 위해 부친 빈바사라(頻婆娑羅) 왕을 가두고, 아버지를 옹호하는 어머니 위제희(韋提希) 왕비마저 가두어 버렸다. 위제히 부인은 간절히 부처님의 왕림을 기원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즉시, 아난 · 목련존자를 데리고 신통력으로 부인의 처소에 나투셨다. 그리고 당신의 광명 속에서 시방세계의 정토를 나타내시어 부인에게 보였는데, 그녀는 괴로움이 없고 안락한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을 바라고 그 곳에 태어날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애원하였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부인을 위하여 16관(觀)의 수행법을 설하셨는데, 그것은 정선(定善) 13관과 산선(散善) 3관이다. '정선'이란 산란한 생각을 쉬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극락세계의 국토와 불 · 보살님들을 점차로 관조함을 말한다.

①일상관(日想觀)-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정토의 아름다움, 자기 죄업을 관함 ②수상관(水想觀)-맑은 물을 보고 물을 변화시켜 유리와 같은 정토의 대지를 관함 ③보지관(寶地觀)-유리와 대지 위에 있는 황금의 길, 누각 등을 관함 ④보수관(寶樹觀)-칠보의 나무와 그 광명을 관함 ⑤보지관(寶池觀)-8가지 공덕수가 충만한 칠보의 연못을 관하고, 그 물이 흘러 개울이 되고, 연꽃이 피고, 흐르는 물소리는 무상 · 무아의 법을 설하고 있음을 관함 ⑥보루관(寶樓觀)-칠보 누각에서 천인이 연주하는 음악이 삼보를 염하도록 설하고 있음을 관함 ⑦화좌관(華座觀)-부처님이 앉아 계신 연화좌가 찬란하게 정토를 비추고 있음을 관함 ⑧상상관(像想觀)-큰 연화 위에 빛이 찬란한 아미타불이 앉아 계신 모습을 관함 ⑨진신관(眞身觀)-아미타불의 상호에서 광명이 비춰 중생을 섭수하고 계심을 관함 ⑩관음관(觀音觀)-관세음보살의 몸이 광명으로 빛나는 영락을 두르고 있음을 관함. ⑪세지관(勢至觀)-아미타불, 관음 · 대세지보살의 3존이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 설법하고 인도하심을 관함 ⑫보관(普觀)-불보살이 허공에 가득한 정토에 왕생한 것을 관함 ⑬잡상관(雜想觀)-여러 불신을 관하는 것으로, 정토의 보배 연못에 있는 불상이 시방세계에 몸을 변형시켜 여러 가지 몸으로 일체를 교화함을 관함.

부처님께서 일곱 번째 화좌관을 설하실 때, 홀연히 아미타불이 허공중에 나투시니 부인은 환희에 넘쳐 아미타불께 예배하고 깊은 신심을 일으켰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산선 3관을 설하셨는데, '산선'이란 산란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은 채, 악을 범하지 않고 선을 닦는 것을 말한다. 산선은 3복(福)이라 하여 세간의 선(善)과 소승 · 대승의 선을 가리킨다. 부처님께서는 이 3복을 중생의 근기에 배당하여 9품(品)으로 구분하셨는데, 선행을 닦고 염불하여 극락왕생하는 수행과 그 과보를 설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거듭 '아미타불' 염불을 찬탄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수승한 극락왕생의 길이니, 지성으로 믿고 간직하도록 간곡히 당부하셨다. 부처님의 설법이 끝나자, 부인은 진리의 실상을 깨닫는 무생법인(無生法忍)을 훤히 통달하고, 500명의 시녀들도 또한 깊은 신심을 일으켰다.

이것은 <불설관무량수불경>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경은 "모든 부처님은 바로 온 세계인 법계(法界)를 몸으로 하시니,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 계신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이루고 또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니라.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바른 지혜는 마음에서 새기는 것이니, 마땅히 일심으로 생각을 골똘히 하여 저 아미타불과 그 지혜 공덕인 여래 · 응공 · 정변지(正遍智)를 깊이 관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천여유칙(天如惟則) 선사는 "아미타불 넉자를 화두 삼아 자나 깨나 분명히 들어 쉬지 않고 한 생각의 분별도 나지 않는데 이르면, 차서를 밟지 않고 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뛰어오르리라" 하였다. 염불은 진여자성을 여의지 않는 '자성선(自性禪)'이기에, 선(禪)과 둘이 아님을 확신해야 한다.

김성우 객원기자

신행게시판

●**공생선원 혜거 스님 금강경 강의**=공생선원(주지 무각)은 3월 6일부터 6개월간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을 초청법사로 '혜거 큰스님께 듣는 <금강경> 강좌'를 개설한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금강경> 강의와 함께 무각 스님이 강사로 나서는 매주 화요일 <법화경>, 수요일 <선문촬요> 강좌도 진행된다. 한편 2월 24일 수계법회, 3월 9일 공생선원 관음보살 점안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02)900-2448

●**강남포교원 단기 좌선 프로그램**=서울 강남포교원이 2월 21~23일 단기 좌선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앞으로 하안거 동안거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개설된 것이다. 점심공양 후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등산 또는 양재천 걷기도 한다. 토요일 저녁공양 뒤 평가 후 회향하는 과정이다. 매월 마지막 주 목~토요일 1일 6회, 2박3일 과정으로 단기 좌선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3층 수선당에서 선착순 16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동참금은 3만원. (02)539-2631

●**흥국사 불교대학 개강**=고양 흥국사는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 근본교리, 불자예절, 기도, 참선 등에 불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기본기를 4개월간 배우는 불교대학을 개설한다. 3월 4일 오전 11시 30분 개강하는 흥국사 불교대학은 매주 화요일 강의가 열린다. <불교입문>을 교재로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이 강의한다. 1년 과정의 <아함경> 경전반은 3월 7일 오후 2시 개강한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를 강사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설된다. (02)381-7970

●**우곡선원 참선교육 강좌**=우곡 일산선원과 우곡 부산선원이 참선교육 강좌를 개설한다.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3주간 열리는 참선교육은 선 입문부터 시작해 좌선과 호흡, 우곡 선기공, 날숨 호흡, 만다라 명상, 실상관법 및 좌선실수, 108정진 등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만행 정진이 이루어진다. 일산선원(031)975-3127, 부산선원 (051)740-6288

●**미황사 참사람의 향기 '서울대중법회'**=해남 미황사가 매월 한 차례 서울 법천사에서 미황사와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서울대중법회-금강 스님의 육조단경이야기'를 개최한다. 2월 3일 첫 법회를 봉행한 이래 3월 9일, 4월 13일, 5월 4일, 6월 8일, 7월 6일, 8월 10일, 9월 7일, 10월 12일, 11월 9일, 12월 14일 오후 2시 서울대중법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02)745-6939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초로 전등록 1,700여 공안을 총평하고 시송한 바로보인 전등록 전30권의 출판비를 보시 받습니다.
바로보인 출판사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번역하고 공안 하나 하나마다 평창과 송을 붙인 바로보인 전등록을 전 30권으로 새롭게 출간합니다.
전 30권 출간비는 5천만원 내외인데 보시하시는 분은 바로보인 전등록 30권 각 권마다 기록되어져 세세생생 정법을 부촉하여 널리 알린 공덕이 기려질 것입니다.
또한, 법보시의 큰 공덕을 지으신 분들이 불보살님의 옹호와 가피력을 입어 모든 악연을 뒤집어 정법을 깨달아 구경성불할 인연으로 회향되기를 육조정맥선원 사부대중 일동이 천일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전화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한글 한문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한 적게 하고 실무차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 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1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 성>
• 제 1권:예경:각청편 • 제 2권:천도:시식편 • 제 3권:수계:방생편
• 제 4권:장의편 • 제 5권:점안편
◎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배송비 포함)
〈문의〉 전화 031)448-5065 / 핸드폰 011-277-8024
(농협 :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판매 사절

환상의 경계 제거 하는 순간, 인간은 진실이 된다



강사 : 민승기 교수(경희대 영문학과)
주최 :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철학아카데미
일시 : 2008년 2월 1일
장소 : 동국대학교 학술관

르네 마그리트 作 '기쁨'

함께가요~ 강의실로!

슬라보이지젝(Slavoj Zizek)의 "사랑의 윤리학"

한국이 정치 경제를 비롯한 문화의 전환기인 까닭일까. 슬라보이지젝(Slavoj Zizek)의 첫 느낌은 여느 철학자와 남다르다. '문화이론의 엘비스' 라는 별명을 지닌 유럽 변방의 철학자 지젝.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운명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만남의 순간 경험' 을 강조한다. 처음 지젝을 접하는 이들에게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의 이론은 만만치 않다. 한국인이라는 공업(共業)중생의 위력을 인정하게 된다고 할까. 그나마 통쾌한 것은 닫힌 사고를 향하여 퍼붓는 지젝의 호통이다. '경제를 살리겠노라' 는 차기 정부의 공약을 지젝이 들었다면 그의 입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당신들 행위의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한 부분의 개선이 전체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라는 도발적인 질책이 나왔으리라는 상상을 해본다. 낯설고도 새로운 철학자 지젝이 제안하는 사랑의 윤리학. 만약 지젝이 여래장(如來藏)을 알았다면 '모두 아님(NotAll)' 안의 모든 것(All)을 재해석 해야만 하지 않았을까. 다시 인간 지젝이 껴안은 습(習)으로 되돌아간다.

#변방에서 대중을 흔드는 슬라보이지젝 (Slavoj Zizek)

라캉주의자. 유럽의 정신분석학 철학자로 인정받는 지젝은 1949년 지금의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동구권에서는 헝가리와 함께 '자유의 숨결' 을 느낄 수 있는 국가였죠. 락음악은 노동자의 음악이라는 인식과 리바이스 청바지는 암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당시였습니다. 프랑스 유학을 마친 후 슬로베니아로 되돌아와 동유럽 개방을 경험한 그는 1990년 최초 자유선거가 진행됐을 때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지젝 철학의 대상은 독일의 관념론입니다. 칸트에서 헤겔에 이르는 흐름을 복원하고자 했죠. 스스로 밝혔듯이 독일 관념론의 회복을 위해 라캉을 활용합니다. 또한 자신의 철학의 많은 부분을 마르크스에 의존하는 좌파 철학자임과 동시에 좌파에서 보일 수 있는 위선 마저도 비판합니다. 지젝은 미국의 세계화 전략에도 비판적일 뿐 아니라 유럽 중심주의적 전망에도 찬성하지 않는 주변부 철학자입니다. 더욱이 지젝이 자본주의 영화에 주목하면서 인간 정신의 깊은 내면에 대해 분석한 저서들이 대중에게 주목받는 요즘. 오늘 강연은 지젝의 텍스트를 읽는 준비 자세를 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욕망과 충동의 마주보기

욕망은 윤리학이지만 미학 쪽에 가깝습니다. 충동은 거리 없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충동과 마주해야 하는데 그 마주함이 끔찍해서 '거리를 취하는 것' 이 욕망이란 것입니다. 거리가 있으면 환상이 만들어지는 까닭입니다. 지젝은 텍스트에서 히치콕의 <밧줄>을 거론합니다.

수업시간에 선생은 나치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약자는 사회에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한 학생을 밧줄로 죽입니다. 이 사실을 안 선생은 당혹스러워 합니다. 살 이유가 없다고 말 한 핵심은 이데올로기적인 거리를 계산한 것인데 학생들은 그 거리를 없애고 문자 그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거리를 이야기 하는 미학이 당혹스럽게 된 순간입니다. 비난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 간극을 지적하는 이가 무서운 자가 아니라 그대로 실행하는 이가 무서운 자입니다.

주체에게 정말 두려운 것은 대타자에 의해 주체 자신이 정말 결핍되어 있음을 들키는 순간입니다. 내 욕망을 모두 알고 있는 자를 'All' 이라고 합시다. '신' 이라고도 하고 '실체'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핍된 사람들의 집합을 일종의 거세된 사람들의 세계. 'NotAll'. 내부적 분열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 사이의 거리는 환상을 만들고 인간은 그 환상 속에 안주합니다. 현재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떠한가요.

 # '오이디푸스 콤플랙스' 가 없는 유일한 자는 오이디푸스이다

오이디푸스의 행동은 무의식적이었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후의 인간은 죄의식을 지니게 됐지요.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모든 것을 다 지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보다 모자란 다수가 모여 모의를 합니다. "그를 죽이자." 살해를 하고 심지어는 사체를 먹습니다. 벨기에 출신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중에 '기쁨(1926作 · 그림)' 이라는 작품이 좋은 예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정신분석학 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통일성을 좀으로써 동일화(identification)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애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살해자의 자식들이 본인들에게 똑같이 자행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을 만들어 부친살해를 금기했습니다. 아버지 살해가 금기된 세계. 그 법의 예외 대상은 오직 아버지뿐입니다. 아버지는 법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향유하는 절대자가 됐습니다. 원초적인 아버지는 절벽이라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예외적 공간이 됩니다. 여기서 욕망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 우리가 사는 법의 세계와 아버지의 낙원 사이에 거대한 환상이 만들어 집니다.

#윤리학의 조건: 낙원이 불가능한 것은 낙원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금기만 없어지면 우리는 예외적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환상이 생깁니다.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는 낙원을 향한 욕망이죠. 인간은 타락한 천사라는 환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젝은 반론합니다. "우리는 타락했다. 구원을 받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낙원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기는 불가능이라는 거리두기로 방어를 형성합니다. 점차 신이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인간은 신에게 근접함이 금지되었다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 즉 거리두기의 환상이 바로 윤리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언젠간 먹고 말거야." 치토스를 먹고자 하지만 결국 먹지 못하는 TV-CF 주인공처럼, 욕망이 지속되는 접근 불가능함의 전제는 그것 자체가 실현되지 않도록 지연시키며 끊임없이 연기됩니다.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단절의 거리가 있어야만 사랑 또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필요는 우연의 방식으로 (헤겔의 말을 빌리자면) 실현되는 것이다

충동은 예외적 공간에서 법의 세계로 하강합니다. 욕망의 상승에 대한 해결이죠. 단절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욕망은 질식하게 되고 환상은 소멸됩니다. 결국 예외적인 공간이 없어진 충동은 'Not All' 의 세계에서 항상 갈등하고 분열하는 에일리언의 세계가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예외를 통해서 'All' 을 성취해야 하는가. 예외적 공간을 없애고 All이 되어야 하는가. 사랑의 윤리학이란 충동윤리로서 진리란 이미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핍 없는 실체가 인간에게로 와 결핍된 주체가 되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불완전의 결핍과 완전의 결핍이 겹치는 곳. 실체의 결핍을 주체가 알게 되는 순간 모든 분석은 종결됩니다. 이렇게 신은 죽습니다.

#하나의 울림. 그것은 진리 자체가 인간들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인간의 세계는 기표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로 진리가 들어오는 순간 실체는 주체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윤리학입니다. 인간 속에는 실체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실체가 될 수 없는 주체가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낙원이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daum.net

2008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전기 신(편)입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 · 의식 · 범음(범패)를 계승 · 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8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 · 범패 · 요잡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 불자님 포교사님들의 많으신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산 合掌 -

① **모집학과**

학 과	교육내용	모집인원	비 고
기본과정	예경의식 및 조 · 석 예불, 불공시식	20명	6개월
전통의식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천도재, 점안 및 제공의식, 전통교육	20명	1년
요잡 · 작법과정	바라춤, 나비춤, 법고 등 사물 다루는 법, 호적	10명	6개월

② **응시자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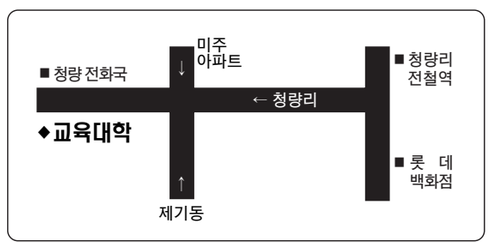
③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④ **합격자발표** : 개별통지

⑤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木)
▶ **접수일자** : 2008年 2月 21日 ~ 3月 5日
▶ **입 학 일** : 2008年 3月 6日

▼ 찾아오시는 길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임명수(혜산)

재단법인 한·중·원 금강불교 조계종 입종안내

● 총본산 : 경남 통영시 용봉사

본 종단은 금강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고 부처님 정법을 널리 홍보하고 각 寺,庵의 주지가 책임지고 총무원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함.

■ 입종구비서류

- 입종신청서(총무원 비치, 요청 시 팩스 혹은 우편 발송)
- 주민등록등본 2통
- 승적서류, 타종단 승려증 사본 2통
- 사찰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각2통
- 여권용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각 한장씩

※ 입종시 사찰등록증,주지임명장,승려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예비승 · 행자모집

- 구비서류 : 이력서,주민등록등본 각1통 (서류전형후 면접)

■ 처사 · 공양주 하실 분 모집

- 문의처 : 재단법인 한,중,원 금강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 소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740번지
  TEL 055)649-5959 / FAX 055)649-5974
- 담 당 : 총무국장 011-857-1865

총무원장 혜명 합장

본원 불교 의식(범음범패)대학 수강생 모집

[본, 본원불교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교의식(범음,범패)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1.개 강 일 : 2008년 3월 5일 오후 6시 30분
2.출 강 : 매주 수요일 ·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3.교육내용 : 송주, 도량석, 조석예불, 불공의식, 시식등 모든 재의식, 바라춤, 나비춤(도량계,다계작법)
4.교육기간 : 속성단기 3개월, 장기 6개월
5.원서접수 : 2008년 3월 3일까지
6.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여권용 4매)
7.자격요건 : 승려가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 또는 사찰(포교원)을 개설하고자하는 자로, 연령,학력 제한없음

◆ 특 권 :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승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미계 수계득도 하도록하여 승려증을 발급함.
사찰(포교원)을 창건시 등록과 함께 초심자라도 여법히 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재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을 집중적으로 치도함.

사단법인 **대한불교본원종본원불교의식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17-3
TEL 02)391-4376 / FAX 02)379-2746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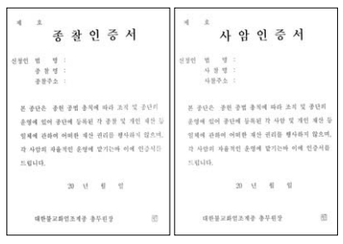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창종주 011-228-7813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불교정통꽃꽂이수강생모집

불교정통꽃꽂이과정

- 개강일시 : 2008년 3월 6일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50분
- 정 원 : 초급반 10명(초보자기준)
  중, 고급반 10명
  (타 會에서 3급이상 사법자격증 취득자)

화훼기능사자격시험대비과정

- 개강일시 : 2008년 3월 6일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5시 50분
- 정 원 : 15명

※ 교재 판매 : 불교꽃꽂이 예작집 가격 35,000원

- 문의전화 : 학 교 02)2260-3728
  담당교수 011-730-6845

(2학기 수료후 총장명의의 수료증 발급)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패교육원에서 2008학년도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 범패 · 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1년)

◆ 초급과정
도량석, 종송,각단예불, 삼보통청, 각단불공 등

◆ 중급과정
49재 의식 및 천도의식,지장청,시왕도청,상용영반, 관음시식,화엄시식,전시식

◆ 고급과정
천수바라,사다라니,화의재바라,오공향,유원승,요잡작업, 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다림,예수재 등

2.입 학 식 : 2008년 3월 6일
(수업-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강의장소 : 경북교구종무원 설법전
6.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전화접수가능,상시모집)
8.연 락 처 : 053)857-4339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교육원

불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불교상담학과와 불교학 법사과정 모집(2년과정)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바르게 배워 불국정토를 세우는 불교 상담을 배워야 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 불교의 포교와 상담의 선봉이 될 학인을 양성하는 도량입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과정	입 학 자 격	모집인원
A과정	불 교 학	2년 과정 매주 화요일	• 불심이 돈독하신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 수료 후 법사활동을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출강00명 통신00명
	불교상담 심 리 학	2년 과정 매주 화요일		출강00명 통신00명
B과정	불교의식	2년 과정 매주 수요일		출강00명 통신00명
	불교서화	2년 과정 매주 수요일		출강00명 통신00명
	명 리 학	2년 과정 매주 수요일		출강00명 통신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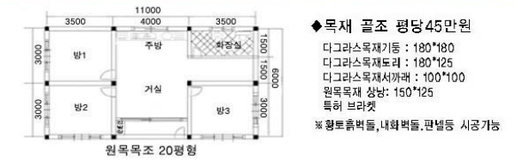
원서접수 : 2008년 2월 28일까지
개강일시 : 2008년 3월 4일 오후 5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주민등록등본 1부,반명함판 사진 3매
전형방법 : 서류 심사 및 면접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 1동 법륜사 종무원
☎ 02)2208-6097
정토불교법사대학 사무처 ☎ 02)2208-6098

특기사항 :
- 본 대학은 불교종도 전문교육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 맞춤형 교육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합니다.
- 본 대학은 종파를 초월한 도량으로 수료증과 불교법사 자격을 품수합니다.
- 본 대학 수료자로 포교당개원(산사 개원)할 경우 지도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서신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립니다.

淨 土 佛 敎 法 師 大 學





◆목재 골조 평당45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 180*180
다그라스목재도리 : 180*125
다그라스목재서까래 : 100*100
원목목재 상남: 150*125
특허 브라켓
※황토흙벽돌,내화벽돌,판넬등 시공가능



◆등평상 : 2100×1800×750(mm) | 가격 : 450,000원 | 할인가 : 350,000원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마루판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조립식평상
TEL:(063)323-3010~1
FAX:(063)323-3012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곽영호
전품목 부가세별도 전국대리점모집

설법 무료특강

15년의 전통을 지닌 한국설법연수원에서는
"맞춤식 설법 개인지도" 연수생 모집 합니다.

■ 교육목표
◇나의 발견 ◇나의 계발 ◇나의 실현

■ 교육내용
◇ 대인불안 공포증해소, 대담한 성격 배양, 자신감, 열정, 호소력, 화술 · · · 설법실기
◇ 인사말, 축사, 주례사, 토론, 회의진행법 등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최면(催眠)도 활용합니다.

■ 일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6시
무료강좌 / 선착순 15명(신청자에 한함)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나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나를 만들자

한 국 설 법 연 수 원
한 국 인 성 개 발 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2008년 무자년 제1회
대보름 계룡산 氣 한마당 축제

행사개요
무자년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가까이는 지역주민 , 공주사민, 모든 도민이 열망하는 보다나은 경제와 지역 간 화합을 도모하여 서로의 안녕과 건강을 빌어주는 한마당 잔치

행사내용
◆ 氣 그림 등 선화 약 50점 전시 (전시실)
◆ 氣 그림 퍼포먼스 (전시실 –가로3m×세로5m)
◆ 호두나무에 소원 리본달기 (선화예술원 광장)
◆ 입춘대길 새해 기 그림 그려주기 (전시실)
◆ 살풀이 춤 (전시실)
◆ 농악대 공연(선화예술원 광장)

기간 : 2008년 2월 20일 (음력 1월 14일) ~ 2월 24일 까지 (음력 1월 18일)
장소 : 공주시 반포면 온천1리 선화예술원
주최 : 선화예술원
후원 : 계룡산 지역 번영회, 5都2村 추진위원회, 선으로 가는 길 (월간)
행사문의 041)858-2666 (석주 이종철)



2008년도 영남범음범패 및 작법무
제 5기 수강생 모집

영남범음범패 (통도사소리)
◇ 매주 : 토요일 오후 3시 회비 월10만원 (녹음기, 필기구 준비)

첫개강 2008년 3월 15일

▶기초반 안채비 ~ 불공의식까지 (1개월)
(요령, 목탁치는법, 도량석, 새벽종성, 조석예불, 각단불공)
▶중등반 안채비 ~ 천도의식까지 (5개월)
(상용영반, 종사영반,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다비문(초상집염불))
▶전문반 바깥채비 ~ 불공,천도재 (1년)
(범패, 징, 강쇠, 북, 호적(태평소))
▶연구반 바깥채비 ~ 제반의식 모든과정 (3년)
(점안식, 예수재, 수륙재, 영산재 등 모든 과정)
▶불교무용반 통도작법 – 나비춤, 바라춤 (1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회비 월10만원

◇ 자 격 :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이 있는분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영남에서 사찰의 규모가 큰 범음범패 교육도량으로 전통 그대로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불 광 사**
종무소 055)364-4747 / 주지실 055)364-4848

동국대사회교육원 육임학 강좌

국가사, 기업사, 인간사 모두를 통찰케하는 六壬學!
이론과 임상사례를 병행하는 생동감 넘치는 강의!

1.담당교수 이우산, 고려육임학회장, 육임입문 저자
2.강좌특징 국가와 기업 운영자에게는 제갈공명의 지혜를, 인생상담업 종사자에게는 핵심을 찌르는 피흉추길을, 일반인에게는 사회생활에서의 슬기를 통찰케 한다.
명리학이 인생을 조망하는 망원경이라면 육임학은 한 가지 사안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길흉을 결론짓는 현미경이다.
또한 육임학은 출생 년월일시와 무관하게, 묻는 즉석에서 즉문즉답하는 돈오학(頓悟學)으로, 음양오행학의 꽃이요 열매이다.
3.교육특전 동국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4.개강일시 초급반 : 3월 4일 오후 2시
중급반 : 3월 4일 오후 7시
5.교육기간 각 강좌 1학기 15주 과정 (2008. 3. 4 ~ 6. 10)
6.교육장소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7.접수기간 2008. 2. 1 ~ 2. 29
접수안내 02)2260-3728
8.강좌내용문의 고려육임학회 02)816-2115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의 법문을
환홀한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고
추억을 마음에 남기면서
잊지못할 한순간 한순간을
작은공간에 가득히 담아
소중히 담아
영원히 남기세요.
풍경영상과 함께...
풍경영상기획사업부

사찰홍보, 사찰행사, 자서전(다큐멘터리)
단체 사찰성지순례, 스님 강의, 법문

풍경영상기획 055)867-0776 010-3546-0776



※ 신문구독 신청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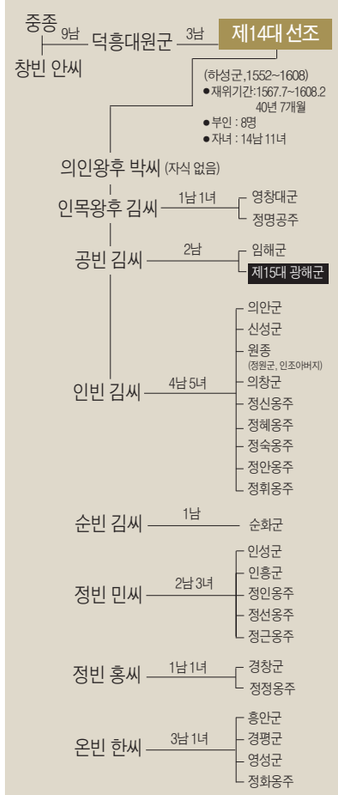
국가적 시련기에 더욱 빛난 불교의 저력



14대 선조 - 목릉

선조 1552-1608(57세)
재위 1567.7(16세)-1608.2(57세)

제14대 선조 가계도



목릉(穆陵)은 조선 14대 선조(1552-1608)와 원비 의인왕후(1555-1600) 박씨, 계비 인목왕후(1584-1632) 김씨의 능이다. 정자각 뒤로 세 개의 언덕이 보이는데, 동원이강 형식의 변형이다. 왼쪽이 선조의 능, 가운데가 의인왕후, 오른쪽이 인목왕후의 능이다. 처음에는 건원릉 서쪽 다섯 번째 산줄기에 안장되었는데, 물기가 있고 불길하다 하여 지금 자리로 옮겼다. 의인왕후는 건원릉 동쪽 셋째 산줄기에, 인목왕후는 건원릉 동쪽 다섯째 산줄기에 안장되었다. 사적 제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산 2-1 동구릉 능역 안에 있다. 동구릉 전체 면적 191만5891㎡(57만9557평).


선조릉에서 본 계비 인목왕후 능의 전경

임진왜란 · 정유재란 등 조선 최대의 국난 시기
전국 사찰서 승군 봉기 평양성 탈환 등 큰 활약

명종의 유일한 혈육, 순화세자는 13세에 요절했다. 왕후와 6명의 후궁 중 누구도 잉태하지 못했다. 그래서 중종의 아홉째 아들 덕흥군의 3남 하성군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가 선조 임금이다. 하성군의 즉위로 조선은 후궁에게서 태어난, 서얼 출신 혈족이 왕위를 잇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부자연스런 즉위만큼이나 선조 대는 조선 최대 국난의 시기다. 임진왜란 · 정유재란은 최대의 국가적 위기였다. 온 나라가 초토화된 전란이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쳐 왜국이 조선을 침범했다. 1차를 임진왜란, 2차를 정유재란이라 부른다.

전란 이전, 배불사상은 여전히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었다. 산중 불교로 만족하며 고된 수행에 전념하는 것이 전부였다. 극심한 탄압은 없었으나 불교를 멸시하는 행위는 여전했다. 정업원 비구니가 금강산 유점사에서 불사를 하려다가 체포되자, 유생들은 정업원의 개혁을 요구했다. 국내외 정세는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대내적으로 붕당간의 권력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대외적으로는 여진족과 일본의 외침이 있었다. 선조는 1590년 황윤길 · 김성일 · 허성 등을 파견하여 일본의 동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륙 침략을 계획하고 있었다. 서인인 황윤길은 일본이 많은 병선을 준비하고 있어 멀지 않아 병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한 반면, 동인인 김성일은 침입할 조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했다. 대신들은 김성일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통신사와 함께 온 일본사신이 "1년 후에 조선의 길을 빌려서 명나라를 칠 것"이라고 통고하자 조선 정부는 크게 놀라 뒤늦게 경상도 · 전라도 연안의 여러 성을 수축하고 각 진영의 무기를 정비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했다.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 파죽지세로 보름 만에 서울까지 쳐들어왔다. 선조는 개성으로, 이어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몽진(피난)했다. 왕이 적의 포로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실록에는 수군 이순신, 의병, 명나라 원군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의승의 역할은 미미하게 여기는 당시의 세태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이 허술하다고 그 활약마저 덮여지지는 않는다.

선조는 묘향산 보현사에 머물고 있던 서산 대사 휴정에게 팔도도총섭의 직함을 내리고 승군을 일으켜 적을 물리치라는 칙명을 내렸다. 배불사상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멸시 당하던 승려들이 임진왜란이 터지자 갑자기 국가의 유용한 자원이 되었다. 휴정은 73세의 노구를 이끌고 결연히 일어났다. 전국 사찰에 격문을 보내 승군의 봉기를 호소했다. 서산 대사는 순안 법흥사에서 의승 1500명을 모았다. 사명 대사는 건봉사에서 의승 700명을, 뇌묵 대사는 전라도에서 1000명을, 기허 대사는 공주 갑사에서 700명을 모았다. 전국에서 의승군이 봉기하니 그 수가 5000여명이 되었다.

의승군은 생사를 잊고 왜적과 싸웠다. 말을 타고 석장을 휘두르며 선두에 서서 분전했다. 명나라 군대와 합세하여 평양성을 탈환했다. 왕이 환도할 때는 휴정이 지휘를 맡고 정예 의승군 700명을 뽑아 어가를 호위했다. 의승군의 활약상은 화려하게 실록에 기록되지 못했지만 국난극복에 기여한 공로는 빛이 바랠 수 없다.

이순신 · 권율 등이 이끄는 관군도 왜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왜군을 격퇴했다. 1593년 4월 왜군이 남쪽으로 퇴각하자 그 해 10월 선조는 서울로 돌아왔다. 이후 1594년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조총과 탄환을 만드는 기술을 연마하도록 했다. 1597년 일본은 명과의 강화회담이 깨지자 다시 침입했다. 그러나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과의 전투에서 연이은 패배와 도요토미의 사망으로 총퇴각함으로써 임진왜란은 7년 만에 끝났다.

그 후 사명 대사는 일본에 건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강화를 맺었다. 왜관을 열어 시장을 여는 것을 허락하고 조선인 포로를 데리고 귀국했다. 7년 동안 지속된 전란이 끝나자 선조는 전란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민심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스스로 의복을 검소하게 입고 사치를 배격했다. 농토를 개간하고 식량증산을 독려했다. 백성들의 사기를 돋우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전란 중 공을 세운 사람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상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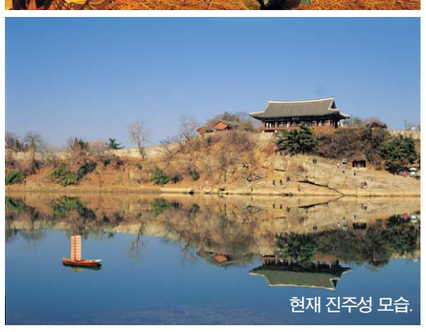
그러나 전란 복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흉년과 조정의 당쟁이 악화되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란의 수습과 복구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채 선조는 59세(1608)를 일기로 41년간의 치세를 마감했다. 이후에도 불행은 이어졌다. 승하하기 전 신하들에게 계비 소생 영창대군을 부탁한다는 유훈을 남겼으나, 광해군에 의해 영창대군은 아홉 살에 살해되었다.

선조는 8명의 부인에게서 14남11녀를 얻었으나, 그 많은 자식들의 삶은 순조롭지 못했다. 정비 의인왕후는 자식이 없었고, 계비 인목왕후는 너무 늦게 영창대군을 낳았다. 적실이 아닌 공빈 김씨가 낳은 광해군으로 왕위가 계승되면서 험난한 역사를 예고한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665호 20면에 게재된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㉘' 기사 중 '제12대 인종 가계도'를 '제13대 명종 가계도'로 바로 잡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도


현재 진주성 모습.

2008 학년도 불교범패작법전수원
신입생 모집
불교의식을 기초과정부터 전문과정까지 체계적으로 배우실분 모집합니다.

기초과정 (1년) 개 강	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12시〉 **3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전문과정 (1년) 개 강	천도재(49재), 범패 · 작법, 사물다루는 법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월 6일 목요일 오후 1시**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수강신청서(소정양식)1부. 사진 2매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태징. 목탁. 요령

송원사불교범패작법전수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50-1(문막I.C~문막방향 3분거리)
☎ 033)731-7759 / 011-269-4168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사찰신축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정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명리.육효 수강생모집
명리 .육효란
단 하루를 배우셔도
올바르게 배우셔야 합니다
용덕사
문의 051)506-4038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 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 개인지도
정통으로 배워야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정안내 : 정규반 / 전문가반 각 개인지도
◇위 치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2호선, 8호선 잠실역) 주공 5단지
◇원장소개 : 미래예측학 박사과정 5학기(논문과정)
역학입문 18년, 역학지도 10년, 법학 석사
청하미래예측연구원 · 청하명리학당
02)2202-3632
017-723-5808

전국 어디든 암자, 사찰, 사찰터
무료보시 해주실 큰마음,
큰사랑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 스님은 청정비구로서 (세속 50대중반)
도심속에서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는 바,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부처님을 옮겨 모셔야
할 딱한 처지에 있어 스님들과 불자님의
큰사랑과 따뜻한 관심, 인연을 기다립니다.
051)816-3562
누구나 힘든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
연락주세요.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미국(L.A.)에서
수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외국비자 있는
스님에 한함
042)282-9270

스님이 타시던
갤로퍼(상태 A급)
투벤 2000년(11월)식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액은 3천 9백만원
010-8850-2946

비구니스님 되실 분과
남은 여생을 부처님과
함께 지내실
보살님을 기다립니다
▷경남 김해
017-543-7200

출가에 뜻을 둔
여(女)행자
인연을 찾습니다
(대구 팔공산)
011-825-318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천년고찰)
011-527-063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소재사찰)
019-515-5158

부전스님
모십니다
영천 신녕 개원사 총림
053)981-0664
016-515-0664

비구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이상)
010-6385-301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011-9723-0967
031)584-1541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를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깊은 산중 전기도 없는
작은 암자 명상 기도처에
장기 기도하실
비구니스님이나 보살
님 2분만 모십니다
▷경남
011-9323-4478

비구,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8819-8988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양평군 천인사)
031)773-7746

처사님
모십니다
016-9697-222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경주
011-744-1650

조용한 암자에서
신심있는 처사님과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55)863-4143
011-392-6885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월·일·시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천년고찰
도선암선원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3)614-91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산중)
55세~65세
033)482-3382~4
011-764-3661

운전기사
모십니다
(대형 면허 소지자)
숙식가능분
031)459-310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기도
010-9469-662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6-748-3004

건강하고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처사님도 모십니다
(50~60대)
011-483-5639

산세수려한 도량입니다
기도 공부 요양하실분
모십니다
▷경남 합천 청강사
055)932-5706
016-9506-5706

이혼녀 보호센터
오갈데 없는
이혼녀를 보호해
드립니다
031)753-8484
011-354-8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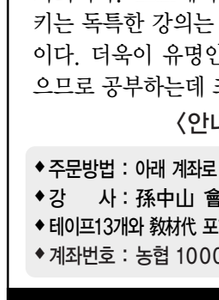
한국(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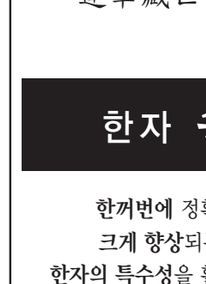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역 학 공 부
● 사주초·중급 : 월요일 18:30
●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 양택 풍수 인테리어: 3월 첫째 화요일 개강
주역, 풍수금낭경, 마의상법
수요일 18:00 수강생 무료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풍수,관상,육효,자미두수,수상 / 수료증 자격증, 졸업생 재택근무가능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02)2264-0258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시인, 한글,
한문, 난, 매
016-478-5545

실전 사주 명리학
제2기 수강생 모집
① 인원 : OO명
② 교육개강일자 : 2008년 3월 8일(토) 오후 1시
③ 교육기간 : 6개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5시
④ 신청방법 :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문과
1기수강생들의 교육후기를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 본회의 실전 사주명리학 강의는 이제까지 어느 고서, 어느 곳에서도 익힐 수 없었던 실전 지식 체계로서 고급편부터는 철저히 팔자술 실전의 첨단기법을 다루고 있으며 그 중 물상의 결합, 나들이, 허귀, 허합자, 공협, 도충, 오운육기, 공망비약 등의 비법과 형충회합 스킬에 대한 고도의 실기묘법은 그 누구도 명확하게 풀지 못한 천기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6개월간의 교육기간을 마치게 되면 누구나 더 이상의 틈이 없이 적중시키는 필살기를 다듬게 되어, 실제상황에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족집게추론을 하게 됩니다.

성 지 관 음 회
회장 혜천 법사 합장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704-1
전화 031)768-8414~6 / 팩스 031)768-8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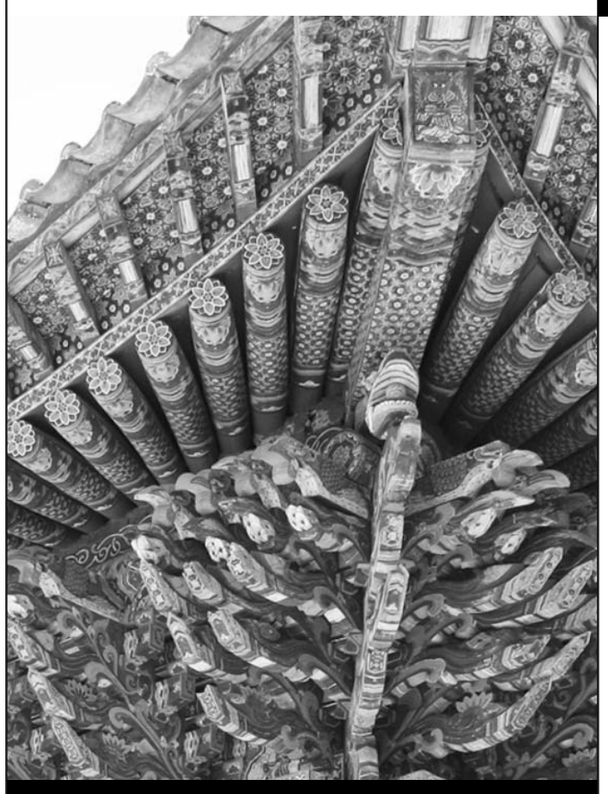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四柱는 감정이 기본이요 핵심이다.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 위주로 풀이하고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난다. 10년을 공부해도 용신잡기가 어려운 四柱를 녹음-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30여년간 연구와 임상을 총정리한 太極四柱는 운명의 진리를 거울처럼 밝힘으로서 일사천리로 판단하고 감정할 수 있다. 성격과 지능과 적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무엇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확실하게 감정할 수 있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청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초보에서 최고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더욱이 유명인사들의 사주를 실제 감정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안내서 무료배부〉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강 사 : 孫中山 會長 (74세) 太極四柱 著者
◆테이프13개와 敎材代 포함 : 20만원 (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예금주 :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53)326-4585

初發心自警文 강좌안내
◇ 개강 : 매주 금요일
◆1 - 2시 30분 自警文(야운스님) 4개월
◆3 - 4시 30분 誡初心學人文(지눌스님) 2개월
◆5 - 6시 30분 發心修行章(원효스님) 2개월
출가수행자는 진리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 두눈 똑바로 뜨고 곧장 나아가 어떤 집착도 남기지 않는 열반의 경지를 얻기 위해 출가한다고 했다.
오직 이 경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 이는 드물다.
蓮華藏世界 初發心專門講堂
彌 昊 합장
한자 속독 한글
한꺼번에 정확하게 습득되면서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는 세계 최초 속독의 원리와
한자의 특수성을 활용한 획기적인 과학적 속독교육
(발명특허출원 56648호)영재교육
010-2831-8426 / 02)723-8426 (조계사부근)

육임 수강생 모집
무자년 운세는 육임으로 보세요.
어떤 것보다 정확하고 명쾌합니다.
운세뿐 아니라 일의 성사 여부와
해결까지 명확한 판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매매에 성사 여부와 가격,
결혼에 시기, 임신여부와 남·여 판단,
시험 운, 이혼 여부 등
「육임 수강생 모집」
■ 육임을 기초에서 백법까지 과정을 함께 공부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를 익힌 다음에는 720 국수자료로 그때그때 알고자하는 질문에 답으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강의 홈페이지)
www.unsemaru.com(운세상담 홈페이지)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찰 · 사찰터 전문안내

(대구 · 경북권)

011-528-82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문현동
- 대지 200평, 건평80평
- 법당 20평
- 아미타불 삼존불, 지장호신불 108불, 신장, 산신, 아미타후불탱화
- 요사채 60평 : 접견실,공양간
- 사찰전자 비품 일절
- 보증금 천만원, 월70만원 (전세가능)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8877-7913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종각, 요사채 40평
  총 880평(대지 380평)
- 가액 : 4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전세도 가능

011-875-3513

사찰 안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2동
- 평수 : 100평, 밭 200평
- 법당, 삼존불, 각단탱화
- 등산로 입구
- 보증금(권리금 합)2500만원, 월35만원. 즉시법회가능
- 스님 종단일로 급 안내함

010-3900-138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 대지 : 330평
- 법당1, 방4, 창고
- 법당 집기일체 6500만원 몸만오시면 됨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7340-8765
054)733-7225
010-7484-6885

사찰 안내

- 전철 1호선 동두천 중앙역 앞
- 평수 30평(여유면적 약20평)
- 보증금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 3개월 되었음
- 사정상 급 안내함 시설비 약간

010-5019-8356
010-3902-3294

사찰 안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마산,진주,고성,통영,함안30분거리
- 가액 : 상담 후 결정(대출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3996-203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 305평(전부 대지)
- 건물 : 2동(법당, 요사)
- 가액 : 내방 후 결정

011-9638-8229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200평
- 법당 30평, 산신각10평 요사채 30평 2동 납골탑 100기 시설
- 가액 : 1억8천만원

010-9115-6831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야산 해인사 부근
- 부지 : 754평
- 대웅전 20평(조립식 건물) 삼존불, 약사불, 칠성탱화, 신중탱화
- 산신각 6평 조립식(산신탱화) 요사채 45평 (나무 기름 겸용보일러 설치)
- 가액 : 1억9천5백만원

010-6835-7370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망리동 대로변 (전철 2분)
- 2층 40평
- 법당, 주방(大), 방3, 욕실2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 스님 건강상 안내함

011-9342-979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 종교부지 : 250평
- 법당 : 22평(현재 불사중)
- 요사채 : 32평(현대식으로 완성)
- 기타 : 창고, 산신각 공사금 부족으로 급히 양도하고자함
- 가액 : 1억3천만원

010-3553-7897

사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
- 요사 : 30평
- 가액 : 10억
- 위치 : 서울산아래
- 대지 : 국유 300
- 법당 : 45평기와
- 요사 : 25평
- 가액 : 9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부산신도시 대형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포교의 중심지 아파트 밀집지역 (대도로옆, 전철역 입구)
- 평수 : 150평
- 법당, 요사, 주방 등 현대식 최신식 최상급시설. 냉,난방 등 일체 시설 완비
  ※ 시설비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하겠음
- 보증금 1억, 월 200만원 (월세를 전세로 전환가능)
- 신축불사 관계로 급 안내함

011-594-1526

포교당안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경기도체육관 앞
- 포교원 : 45평,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300만원
- 시설 A급, 즉시법회가능

011-9762-2286

사찰 안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 법당 : 20평
- 요사 : 15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0억
- 위치 : 제주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억7천
- 위치 : 충주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부지 : 280평
- 가액 : 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 안내

임법당 안내 (30년생)

- 위치 : 경남 의령읍(10분)
- 총평수 : 3,000평 (밤나무산 포함)
- 법당(조립식)1동
- 요사 : 약 37평(방3칸,주방,욕실,마루)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만 연락요함
- 가액 : 6,000만원

- 위치 : 김해
- 부지 : 1200평
- 법당 : 27평(목조)
- 요사2동, 산신각, 주차장(200평)
- 좌우 청룡백호(뒷산 홍송 수백주)
- 동남향, 탁트인 전망
- 가액 : 7억

※부산 대형사찰 및 임법당 · 포교원 ·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에서 부터 세무상담 및 소유권이전 대행 무료 상담 서비스

사찰전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 부지 : 약 520평
- 건축물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40평
- 보증금 : 1억원, 사글세 년6000만원

051)782-0033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포신도시
- 45평 법당, 사무실, 스님방, 대중방, 공양실 주차장있음
- 보증금3천, 시설비절충 건강상 급양도

011-763-1080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 땅1천평 중 종교용지 450평 법당 20평, 요사채 60평
- 바다가 잘 보이는 수행도량
- 가액 : 3억원 (분할양도가능)

010-7109-6074
054)293-207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동
- 평수 : 70평
- 2층 건물중 2층(옥상 사용가)
- 법당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천만원 (상식선에 절충가)

010-3120-100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인천 부평구 부평동
- 4층 건물중 3층
- 35평
- 법당, 방2, 주방, 욕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700만원(가격절충)
- 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010-9469-2325

사찰 안내

-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형산 황용사
- 대지 : 406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심야 보일러, 에어컨 설치됨
- 가액 : 3억2천만원

011-542-0982

사찰 안내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법당에 부처님 5분 모셔져 있음
- 산신탱화, 신중탱화, 후불탱화(홍탱화)
- 시설비 1천만원 보증금 1천만원, 월20만원

010-8289-0038

5평 영가마을 협업체 모집

인등납골 공양
5평에 가족납골묘 12기설치

- 인등납골:(50만원).
- 개별 수목장:(200만원)
- 집안,화단및옥상,베란다 안치

※부동산. 중개업자. 지역 협업체 접수
영가마을 문의

041)541-2202
041)544-4441

포교원 안내

- 위치 : 제주시 외도 1동 부영2단지. 2천세대 대단지 앞
- 굿당으로 최적지
- 법당 15평, 요사완비
- 주차공간 300평 및 채소밭으로 활용가능
- 시설비품 집세 합 700만원

017-393-1127

(특)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신도시부근
- 부지 : 680평(실제 1300평이상 활용) 납골당 가능
- 대웅전 20평, 요사채 2(100평, 20평), 창고 2동
- 도시 속 노송 우거진 풍치 수려한 절

두개의 신도시(차로 5분) 서울(차로 25분) 교통요지
포교와 신행의 최적지, 시설좋음

- 창건주 건강문제로 부득이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5290-3709
019-594-3522

포교원안내

- 위치 : 구미시내 최고요지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
- 법당 40평, 요사채 25평, 총 65평, 방3개, 거실, 주방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금 1500만원
- 꼭하실분 가격절충가능 스님 사정상 급매

010-7511-8474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4호선 상계역 부근
- 평수 : 2층 34평(법당.주지실) 3층에 방3,주방,욕실
- 삼존불,신중단,영가단, 각단탱화 모셔져있음
- 보증금 1,100만원/월100만원 시설비 절충

02)952-8131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대조동
- 지하철 6호선 2번출구 (로터리 대로변)
- 평수 : 60평(4층 건물중 4층)
- 법당, 삼존불, 칠성단, 신중단, 산신각, 영가단, 각단탱화
- 거실, 공양간, 집무실 등 시설완벽
- 보증금 1천만원, 월110만원 시설비 5천만원

010-6287-355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평수 : 46평
- 방2, 법당, 공양간, 최신시설완비
- 즉시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금 3천만원(절충가능)

055)337-8600
011-834-8545

사찰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 당고개역 10분거리)
- 총평수 : 807평(전,답)
- 건물 : 조립식 47평,임법당,방3개 욕실, 화장실(실내 2개)
- 하우스 2동, 50평, 15평
- 가액 : 5억6천(내방 후 절충가능)

※오솔길 100m 들어옴

011-9110-7659

탈종공고

- 사찰명 : 영통암
- 성 명 : 강학문
- 법 명 : 원성
- 주 소 :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강천리 지리산 백무동 270번지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0일

(사)한국불교 미륵종 총무원장 법하



콩 고기로 차린 '웰빙' 식단 어때요

"절밥은 맛이 없어요. 고기가 없으니 밥 먹을 맛이 안 나요."
가끔 사찰을 찾아 공양이라도 하려면 육식을 즐기는 사람은 당혹스러워진다. 절에서 고기를 찾을 수도 없거니와 고기 맛에 길들여진 입맛에 사찰 음식은 영 밍숭맹숭하기 때문이다. 나물 음식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어쩌랴, 입에서 자꾸 고기를 찾는데. 알고 보면 "아침부터 고기를 먹는다"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지나친 육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그들도 잘 알고 있다. 동맥경화, 심장병 등 무시무시한 병명을 늘어놓지 않더라도 말이다.

요 몇 년 사이 사찰음식과 같은 채식 식단이 '웰빙' 바람을 타고 각광받고 있다. 채식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생명존중 사상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된다. 절집에서는 종교적 철학에 따라 채식을 하고 있지만 일반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의 위험성, 자원절약, 환경보호라는 의미를 갖고 채식을 권장한다. 동물을 사육하기 위해 소비되는 막대한 양의 곡식소비, 좁은 우리에서 사육되는 동물에 필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항생제, 가축 사육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등은 사실 심각한 사회문제다.

채식주의의 이면에 이런 뜻이 있다 할지라도 채소라면 딱 질색, 콩이라면 밥에 든 것도 골라내는 사람들에게 채식식단을 무작정 권장하는 것이 좋을까. 결코 즐겁지 않을 것이다. 지금껏 살아온 습관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육식에 길들여진 입맛을 조금씩 바꾸면서 채식을 즐기기 위해서 고안된 음식이 바로 '대안음식'이다. 대안음식이란 채식을 하면서도 고기 맛을 즐길 수 있는 식물단백 식품에서부터 채식조미료 등을 다양하게 아우르고 있다. 실제 채식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찾으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상품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버섯가루 등의 천연조미료야 잘 알려져 있지만 콩가스 · 콩스테이크 · 양념 콩불고기 · 동그랑땡 · 콩소세지 등 생각지도 못한 상품들이 이미 판매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오징어포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채식진미포'도 시중에서 판매 중이다. 가격도 고기를 사는 것에 비해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다.

이런 음식에 무슨 맛이 있을까 생각할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 몇 군데 음식점이 '채식주의'를 표방하며 꾸준히 손님을 끌어 모으고 있다. 서울 역삼동의 한 채식전문 뷔페는 점심과 저녁 모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빈다.매주 계약재배한 유기농 채소로 만든 완전 채식 요리가





채식으로만 식사하면 허전하지 않을까? 콩·밀고기 등을 활용하면 고기 맛도 느낄 수 있고 허전함도 채워진다. 사진 왼쪽은 채소로만 만든 요리들. 오른쪽은 콩고기로 만든 불고기의 모습.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의 종류도 꽤 여러 가지다. 고기를 빼고 만든 피자, 샐러드는 물론 유기농 빵과 직접 만든 땅콩 · 무화과 잼이 이곳에서 인기 메뉴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느껴질 때쯤에는 '불고기' 쪽에 눈길이 간다. 콩으로 만든 고기라 진짜 고기맛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고기 질감은 확실히 느낄 수 있다.

불자들도 절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 장충동의 불광산사다. 대만 불광산사의 분원인 이곳은 요일마다 다른 음식을 준비해 불자들에게 특별한 '절맛'을 안겨준다. 대만이 식물단백을 이용한 음식이 발달한 영향도 크지만 불광산사에서도 콩 · 밀가루 고기로 만든 음식들이 사찰 방문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불광산사에서는 지하2층에 '적수방'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일반 대중에 콩·밀고기 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불광산사의 한 대만 스님은 "스님들 음식에는 콩고기도 일절 쓰지 않지만 일반 신도들 중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콩고기로 만든 '콩가스밥' 등의 메뉴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입맛에 맞는 '고기 맛' 대용음식들이 있어 채식이 좀 쉬워질 듯 한데, 그래도 걱정되는 점이 하나 남는다. 과연 채식만 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20년째 채식만 이어오고 있다는 한국채식연합 이원복 대표는 "지금까지 감기도 안 걸리고 종합검진 외에는 병원에 가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사실 콩 · 밀고기도 가공식품이어서 권장하지 않지만 고기 맛의 향수가 느껴질 때, 채식에 갓 입문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된다"면서 "채식의 마음가짐은 기본적으로 자연에 가깝게 가는데 있으므로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채식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한국채식연합(www.vege.or.kr)에서 채식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 채식관련 정보 및 식당 소개 등이 있다.
동영상자료와 서적자료도 각각 380건씩 등록돼 있고 회원수도 2400명이 넘는다. 각종 온 • 오프라인 모임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정보교류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채식주의자면 다 같은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계란과 유제품을 먹는 채식주의자(lacto-ovo vegetarian), 계란만 먹는 채식주의자(ovo vegetarian), 유제품만 먹는 채식주의자(lacto vegetarian), 완전 채식만 하는 채식주의자(vegan) 등이 있다. 우유와 유제품을 인정하는 채식주의자들은 이들 '완전식품'으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한다고 생각하지만 완전 채식주의자들은 이것마저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부정한다.

채식주의 식품 구입하고 싶어요!

대체식품 구입은 일단 인터넷 베지푸드(www.vegefood.co.kr)나 베지랜드(www.vegeland.com)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사고 싶다면 이들 매장에서 전국 각 지역 판매처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자.



19. 눈의 건강 지키는 음식

우리들의 식생활에서 눈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인 눈의 충혈은 니아신이나 비타민A의 결핍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따라서 눈동자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타민 A B C E와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다. 특히 비타민B군이 결핍되면 심한 경우 안구 근육마비까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눈의 충혈을 막으려면 가공하지 않은 견과류 즉 호두나 땅콩, 해바라기씨, 참깨, 잣 등을 많이 먹도록 한다. 이외 보리나 귀리 미나리 당근 배추와 참외 딸기 살구도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데 좋다.



비타민A 부족하면 야맹증·시력 감퇴

칼슘은 결막·색소층 염증 치료에 효과

비타민A는 눈의 비타민이라 불릴 정도로 눈에는 최고의 영양소이기에 평소에 비타민A가 함유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할 것이다. 비타민A가 부족하면 시력감퇴뿐만 아니라 야맹증, 눈이 뻑뻑하고 쉬 피로하며 아픔을 느끼게 되는 안구건조증과 결막염 등 각종 안질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심하면 각막연화증 등으로 실명하게 된다.

비타민A는 봄나물 중 냉이나 호박 토마토 사과 부추 칠성장어 당근 효모 해조류 쑥갓 시금치 파슬리 등의 푸른 잎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B1, B6, B12는 신경비타민을 불릴 만큼 신경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중요한 영양소이므로 시신경에 꼭 필요한 것이다.

비타민B12는 망막이 빛을 느낄 때, 비타민B1은 참밀의 눈, 돼지고기 김 깨 땅콩 현미 콩 등에 많고 비타민B2는 김 간 말린표고버섯 미역 청국장 달걀 녹색채소에 많으며 비타민B6는 콩과 콩제품 간 고등어 연어 등에 많고 비타민B12는 간 고등어 정어리 청어 등에 많이 들어 있다.

비타민B군은 물에 잘 녹는 비타민으로서 몸속에 저장해 둘 수 없으므로 한꺼번에 대량 섭취하는 것보다는 필요량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타민C는 녹색채소 캐비지 감자 고구마 딸기 감 감귤류 등 과일에 많이 들어 있는데 물에 녹기 쉽고 열에는 약한 비타민이므로 장시간 삶거나 조리는 요리보다 생식하거나 튀김처럼 기름으로 잠깐 동안 가열해서 요리하는 쪽이 손실이 적다. 그러나 데치거나 삶으면 비타민C가 파괴되는 대신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비타민E는 식물성기름 뱀장어 다랑어 참치 고등어 깨 아몬드 콩 현미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어 산화예방작용에 비타민C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이다.

칼륨은 눈의 조직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고 사과에 많이 들어 있으며 바나나, 꿀에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다.

칼슘은 몸 골격을 이루는 주요 구성 요소지만 이보다 다른 무기물을 조정하며 모든 인체 조직 회복에 큰 도움을 주는 영양소이다. 특히 눈을 지나치게 자주 깜박인다거나 물기가 많은 경우, 색소층의 염증, 결막염과 광성공포증 등을 없애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칼슘은 전유 치즈 달걀 생선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단백질은 수정체와 모양근의 주성분이므로 모자라면 노안을 촉진하게 된다. 단백질은 육류 생선 알 간 치즈 콩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한 종류의 단백원으로부터 섭취하기보다는 종류가 다른 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것이 단백질로서의 효과를 높이게 된다. (02)755-0055

■ 김준헌(소중한안과 원장)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92) 가지산 보림사

겨울잠 깬 너구리 봄 마중 나왔네

주종은 굴참나무 등 온대 활엽수·난대수종은 희박
보림사서 겨울 나는 물까치 봄철에는 산으로 회귀

전남 장흥 가지산은 해발 500m를 겨우 턱걸이 하고 있지만, 산을 아는 이들에게는 큰 산으로 불린다. 백두대간에서 갈려져 나와 정읍 내장산–광주 무등산–순천 조계산–광양 백운산을 거쳐 남해로 침잠하는 호남정맥의 마루급 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지산이 우리 역사에서 갖는 높이는 그보다 훨씬 더 높고 장엄하다. 이 땅에 선불교의 횃불이 처음 피어오른 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선문(禪門)은 당나라에서 서당(西堂)의 남종선을 전수받은 도의(道義) 선사가 신라 헌덕왕(821년) 때 귀국하면서 처음 열렸다. 당시 교종(敎宗)이 판을 치고 있던 상황이라 선사는 설악산에 은거하면서 선지를 염거(廉居) 선사에게 전했다. 그의 선지는 다시 3대인 보조(普照) 선사 체징(體澄)에게 전해져서 가지산에 보림사를 중창하기에 이르렀다. 이름 하여 가지산문이다.


참마자.


보림사 대웅전 앞 괘불지주에 피어난 지의류.


검은등할미새.

보림사는 장흥읍내에서 30km 가량. 국도와 지방도를 바꿔 타며 장흥호와 탐진천 상류를 끼고 달린다. 장흥호는 탐진강 중류를 막은 장흥댐으로 생긴 호수이다. 장흥호가 만수위가 되면 보림사까지는 불과 3km 남짓, 수몰을 막기 위해 설계 과정에서 댐의 높이를 낮추었다고 한다. 대형 댐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습적인 안개 피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아직 의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숲 가꾸기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벌목해야할 나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 살리는 나무은행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얼마 전 강진군에서도 보림사 입구 용문에다 소나무 80여 그루를 옮겨 심었다. 이제 사찰에서도 방생 차원에서 나무은행 제도를 운용해봄직하다.

용문을 지나면 근래 새로 세운 일주문이 서있다. 예전에는 사하촌이 절 입구에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으나, 최근 모두 이전해 눈맛이 맑다. 보림사 주변 생태모니터링은 보림사 경내, 보림사 주변 산자락, 그리고 보림사 앞 탐진천 수변구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때 일주문 기능을 했던 외호문(外護門) 좌우로 돌담이 가지런하다. 흙이나 시멘트를 쓰지 않고 막돌로만 쌓아서 독특하다. 색깔도 자연 그대로라 부드럽다. 사천문을 지나면 대개 누문(樓門)을 만나게 되는데, 보림사는 실상사와 태안사 등 인근 구산선문과 마찬가지로 통과누문 없이 사천문을 지나면 곧바로 드넓은 마당이 펼쳐진다.

보림사 마당에는 대부분 냇가의 자갈들을 깔았다. 여러 그루의 늙은 느티나무와 단풍나무도 서 있어서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준다. 담장 주변으로 동백을 주욱 심어놓았다. 보림사 가람배치는 큰 전각들이 마당을 가운데 두고 넓은 ㅁ자 형태를 이루며 사방에 흩어져 있다. 1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에 비해 가람에 고색이 덜하고, 다소 산만한 느낌을 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유서 깊은 전각들이 한국전쟁 과정에서 소실되고 근래에 새로 복원되었기 때문이다.

국보 비로자나철불상을 모신 대적광전은 사천문에서 마주 보는 자리에 있다. 대적광전 불상은 9세기 신라 철불의 전형을 보여준다. 당시 야철지(冶鐵址)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대웅보전 앞에 있는 괘불탱주는 붉은 빛을 띤 역암이다. 적색역암은 중생대 백악기의 신라통(新羅統) 하부에 속하는 퇴적암의 일종으로, 가지산 일대에 분포한다. 산사태와 홍수 등으로 떠내려 온 적색역암은 보림사 앞 탐진천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고 있다.

미타전 뒤에 우람한 장송들은 가지산 토박이가 아니라 미국에서 들여온 테다(taeda)소나무로 보인다. 바늘잎이 리기다소나무처럼 3개씩 뭉쳐나기 때문에 '미국삼엽송'이라고는 별칭이 붙었다. 우리 육송보다 생장이 빠르고 펄프 제조용으로 경제성도 우수하지만, 추위에 약한 편이다.

대웅보전 앞마당 가운데 수각이 있고, 사시사철 샘이 흐르고 있다. 전설이 깃든 명수(名水)이지만, 현재는 마당의 지표수가 지하로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질은 명성에 못 미칠 것이다. 샘물 안에 물고기들이 여러 마리 살고 있는데, 갈겨니로 보인다.


물까치 <사진제공=정윤영>

경내 한갓진 곳에 보조 선사 부도인 창성탑과 탑비가 있다. 창성탑과 탑비 주변은 사자(死者)의 공간이라 잔디를 곱게 깔았다. 안타깝게도 창성탑 탑신을 지의류가 마치 오랜 벽화처럼 덮고 있다. 절 동쪽 산자락에 7기 부도를 모신 동부도전이 있다. 절을 한 바퀴 도는 숲길도 거기서 시작이 되고, 정상으로 오르는 산행길도 거기서 시작된다. 정상까지는 1km 남짓, 대개 보림사–동부도–야외학습장–약수터–팔각정–선돌–정상 주봉으로 이어지는 길을 이용한다. 장흥군에서 보림사 뒤 비자나무숲과 소나무숲에 개설한 삼림욕장도 이 구간에 있다.

보림사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비자나무 군락은 면적이 3헥트아르에 이르고, 수령은 대개 30~100년 정도에 이른다. 개체수는 200여 그루이지만, 여러 종류의 온대남부수종들과 함께 자라고 있어서 우점도는 다소 떨어진다. 비자나무는 상록침엽수이지만, 편백이나 삼나무에 비하면 피톤치드 방출량은 크게 떨어진다. 삼림욕장 입지로는 면적도 좁고 경사도 상당하며 너덜도 많이 깔려 있어서 부적당하다. 그런데도 장흥군에서 보림사 주변 관광개발 차원에서 무리하게 삼림욕장을 조성한 듯하다. 더욱이 도시의 야산공원도 아닌 이 산중에 의자와 탁자를 비롯해 안락의자며 발지압길 등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래도 지나침이 있다. 야외학습장도 숲속에 자리하고 있어서 초본들의 생육이 좋지 못하다.

비자나무삼림욕장 일부 구간에는 왕대밭이 비자림을 반분하고 있다. 왕대는 원래 아열대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바다가 가까운 지역에서 왕성한 생육을 보인다. 대나무의 마디수는 줄기의 길이에 비례하는데, 대나무 종류 가운데 왕대가 71개로 가장 많다.

오솔길이 '산책로'라는 이름으로 삼림욕장을 횡단하고 있다. 원래 '오솔길'은 '오소리가 다니는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겨울이라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자 겨울잠에서 깨어난 너구리들이 이 길을 다니는 모양이다. 너구리 배설물이 말랑말랑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삼림욕장 산책로를 한 바퀴 돌아 내려오면 다시 절 앞 탐진천 봉덕계곡에 닿는다. 뒤돌아보면 절 뒷산 능선 너머 가지산 정상이 보인다. 가지산은 보림사 주변의 비자나무 군락 외에는 소나무와 활엽수가 반분하는 혼효림이다. 한때는 소나무 전성시대가 있었고, 노송들도 상당했으나, 한국전쟁 통에 거의 희생되고 지금은 봉덕송(鳳德松)만 산행로에 남아서 옛 영화를 머금고 있다.

다른 선문구산도 마찬가지이지만, 보림사 산림생태 역시 특별한 식생적 특징은 없다. 다른 남부지역 일반 산지와 마찬가지로 굴참나무를 비롯한 참나무류와 느티나무, 산벚나무, 굴피나무 등 온대활엽수가 주종을 이룰 뿐 특기할 만한 종은 눈에 띄지 않는다. 날씨가 따뜻하고 바다가 멀지 않다고 해도 난대수종은 비자나무와 먼 옛날 인공식재 된 차나무 정도에 불과하다.

탐진천은 영암군 금정면 궁성산(484m)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장흥군 군계를 넘어 보림사 앞으로 내려와 구강포 강진만으로 빠진다. 총길이가 56km, 국가 하천치고는 매우 짧지만, 주변 산수가 좋고 물이 맑아서 일찍이 남도의 3대 명천(名川)으로 손꼽혔다. 풍수 하는 이들도 보림사 형국에서 태극처럼 감싸고 돌아나가는 탐진천을 가지산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보림사 앞 봉덕계곡은 탐진천의 상류이다. 봉덕계곡의 강폭은 20~30m 정도이다. 갈대와 물억새가 군락을 이룬 아래쪽은 강폭이 40m 이상 되는 곳도 있다. 수심이 2m를 넘나드는 소(沼)도 있지만, 대개 수심은 50cm 정도이다. 겨울철 갈수기인데도 물이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다.

보림사 윗마을에서부터 용문에 이르는 봉덕계곡은 군데군데 큰 바위들이 흩어져 있고, 하상에는 자갈과 모래가 구간에 따라 확연히 나누어져 있다. 서부도가 있는 구석마을 앞개울에 어도(魚道)가 설치되어 있다. 봉덕계곡에는 우점종으로 피라미와 갈겨니, 버들치, 참마자, 참몰개, 돌고기, 꺽저기 등이 서식하고 있다. 봄철이 되면 일부 물고기들은 장흥호에서 보림사가 있는 상류쪽으로 이동을 한다.

참마자는 물이 맑고 바닥에 모래나 자갈이 깔린 하천의 중상류에서 사는 어종이다. 등은 암갈색이고 배는 은백색이다. 몸의 양측에 작은 점들이 줄을 잇고 있어서 특이하다. 물속 곤충이나 돌에 붙어있는 미생물을 먹기 때문에 주둥이가 길고 입이 아래쪽으로 나있다.

물가에 검은등할미새가 여기저기 포르륵 옮겨 앉으며 꽁지를 까딱인다. 검은등할미새는 이름 그대로 머리, 등, 가슴, 꽁지 등이 검은 색이다. 예전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분포했으나, 근래에 들어 겨울이면 우리나라 전역에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알을 낳고 번식하며 텃새로 살기도 한다.

이 밖에 겨울철 보림사 주변에서 관찰되고 있는 조류로는 박새와 딱따구리 종류를 비롯해서 직박구리, 때까치, 꿩, 어치 등등 텃새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 가운데 물까치는 겨울이면 보림사로 떼를 지어 내려와 살다가 봄이면 다시 산중으로 돌아가는 회유성 조류이다.

봄을 앞당기는 햇살이 탐진천에 물살 짓고 있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cafe.daum.net/templeeco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카필라"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국가이름

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있다.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고,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게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벅" 사용

것이 독특하다. 성불화"카필라"는 남여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추운 겨울, 더운 여름을 이겨내십시오!

산양삼 직판 특별할인공급

지리산 산양삼 먹어보면 느낌이 확 옵니다.

산삼은 노루나 멧돼지 새 등이 산삼씨앗을 먹고 다른곳에 배설하여 싹이나 자라는 것이고 산양삼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 산삼의 종자를 뿌려놓고 자연상태에서 10~20년을 기다린후 채취한다.


산양산삼

인삼은 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 2~3년만 지나도 손가락 굵기로 크지만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위치한경남 함양군에 있는 지리산산양삼은 울창한 수림속에 잔볕이 드는 산삼이 자라는 토양과 같은 조건에서 자라므로 10년이 지나도 손가락 굵기정도밖에 자라지 않으며 토양속 무기질을 영양으로 흡수하기 위해 잔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그동안 삼이 좋은줄 알면서 높은 가격 때문에 선뜻 구입하지 못한 분들께 지리산 산삼영농조합에서 직가로 특별공급하고 있다. 공복에 생삼을 바로 먹어도 좋고 다려 먹어도 좋은 산양삼입니다. 많은 애용바랍니다.

- 자주 나른함을 느끼시는 분
- 연로하신 부모님
- 일이 많아 업무에 시달리는 분
- 손, 발, 몸이 찬 주부
-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타는 분
- 공부로 늘 힘든 수험생
- 몸이 약한 아이들
- 체력소모가 많은 운동선수

※삼령, 생산자, 원산지가 표시된 산양삼 증명서가 동봉됩니다.

※시중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겨울철이므로 통신으로 직판만 합니다.

■8년산 3뿌리 ~~300,000원~~ 200,000원
■8년산 6뿌리 ~~600,000원~~ 300,000원
■12년산 1뿌리 ~~200,000원~~ 150,000원

문의 1566-3378
지리산산삼영농조합
농 장 (055) 963-3375
농협 1285-02-028081 임지영

가족, 부모님, 고마운 분께 산양산삼은 평생 잊지못할 건강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대행스님

세상의 모든 일은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스님이 이렇게 물었죠. "모르는 어린애들은 업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요. "어린애가 세 살 네 살인데 어떻게 업보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어요. 모르고 짓는 거는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짓는 거는 알고 받게 마련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끼리끼리 모이니까. 지금 현 세상을 잘 보시면 아시듯이, 무쇠전에 무쇠가 모이고, 아니 쌀전에 가보면 죄 알겠군요. 팥은 팥대로 콩은 콩대로 쌀은 쌀대로 놨죠. 그렇듯이 인간의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잘 쓰는 사람끼리 모이고,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그런 사람끼리 모여.

그런데 마음을 잘 쓰고 못 쓰는 건 무슨 영향을 받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을 잘못 쓰면 행도 잘못 나가고 말도 잘못 나가. 신경질을 부리고 말이야. 안되고 걸리니까 신경질을 부릴 수밖에. 조건이 걸리지 않는데 왜 신경질이 납니까? 만사가 신경질을 낼 일이 하나도 없는데,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질서대로 그냥 순응해서 무난히 흐르고 있는데, 그 법칙을 따라서 닥쳐오는 대로 놓고, 닥치는 대로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걸릴 게 뭐 있겠습니까? 부자로 만들어놓고 죽은들, 가난한 집안을 두고 죽은들, 그런 걸 염두에 두지 말라 이겁니다. 엽전 한 푼 가지고 있어도, 내 몸뚱이를 이렇게 지니고 있어도, 내 몸뚱이 끌고 갈 수도 없고 엽전 한 푼 끌고 갈 수도 없고, 또 자식들이 근중하다 하지만 자식들이나 부부지간에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알아야 자식도 가족도 조상도 다 서로 가고 옴이 없이 에너지를 서로 나누어서 공생(共生)할 수가 있고 공용(共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거는 무심하고 그게 아니라고 우기고, 안 된다고 우기고 그렇습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없다는 그 뜻은, 모든 것에 구애받지 말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디서 하는가? 한자리에서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한자리에 모든 것을 놓고 마음을 잘 쓴다면 그게 뭔 걱정이 있습니까? 응? 무쇠도 녹을 겁니다, 아마. 스스로 봄이 와서, 스스로 물은 녹아서 청청하고, 아니 날은 밝아서 휘영청하니 꽃은 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열매 열리고.

모든 생명들은 자기가 지은 대로 소임을 맡아서 살고들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다니는 이 땅도, 흙도 살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고마운 줄을 몰라서는 안 되죠. 그러니 모든 걸 깔볼 필요가 없고 깔봐서도 안 되고 자만심을 가져도 안 되고 건방져도 안 되고, 겸손하고 마음은 꿋꿋하게 주인공을 세우면서도 거죽으로나 행으로나 말로나 어디로든 겸손하고 건방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래야만이 모든 만물만생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대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도 버리지 말아야, 하나도 버리지 않는 까닭에 하나도 없으므로 모든 걸 통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 떼놓으면 무얼 통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급해서 한 마음을 낼 때는 만 명도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뜻을 알고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만 명, 한 명의 한생각에 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오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오천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 다 내 마음이 될 수 있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급한 일에도 걱정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쳐준 뜻이지 개별적인 어떠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왔으면 배고플 땐 그냥 집어먹어야지, 절차를 따져서 누구 누구 누구 이럭하다 보면 다 없어지니, 닥치는 대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경(經)이나 뭐를 보지 말고 의례 의식을 지키지 말고 계율(戒律)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그래서 이런 말도 했죠. 시주할 돈이 없는데 빚을 내다가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게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지켜야 돼.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분수를 지켜서 해라 이겁니다. 세상법에 의해서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마음은 쓰지 않고 그저 '이거 이럭하면 된다더라' 하고 남의 말 생각하듯, 남의 말을 듣듯 하지 말고 들어서 약이 될 것도 놓고 들어서 약이 안 될 것도 다 놔. 그러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체질이 돼서 나쁜 거는 흘러나가고 좋은 거는 거기서 생산이 돼서 나와. 금을 캐면 금만 일렁일렁해서 나오고 흙은 다 밑으로 빠져서 물로 들어가 다 소화를 시키듯이, 우리 밥 먹으면 대변으로 소화가 되듯이, 그리고 영양분은 다 몸으로 오장육부에서 인체로 돌아가듯이.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입니다.

그때에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면 후세 오백 년 후나 천 년 후나 부처님을 찾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른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배우는 이때나 부처님이 계신 때나, 오백 년 후나 삼천 년 후나 마찬가집니다. 부처님의 뜻을 한 번 읽고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대로 보살이죠.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은, 어떤 때는 "나는 꿈을 이렇게 꿨는데…." 그것도 공부거든. 생시도 꿈이요, 꿈도 꿈이야. 꿈도 생시고 생시도 꿈이야. 이걸 까뒤집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말입니다. 미래에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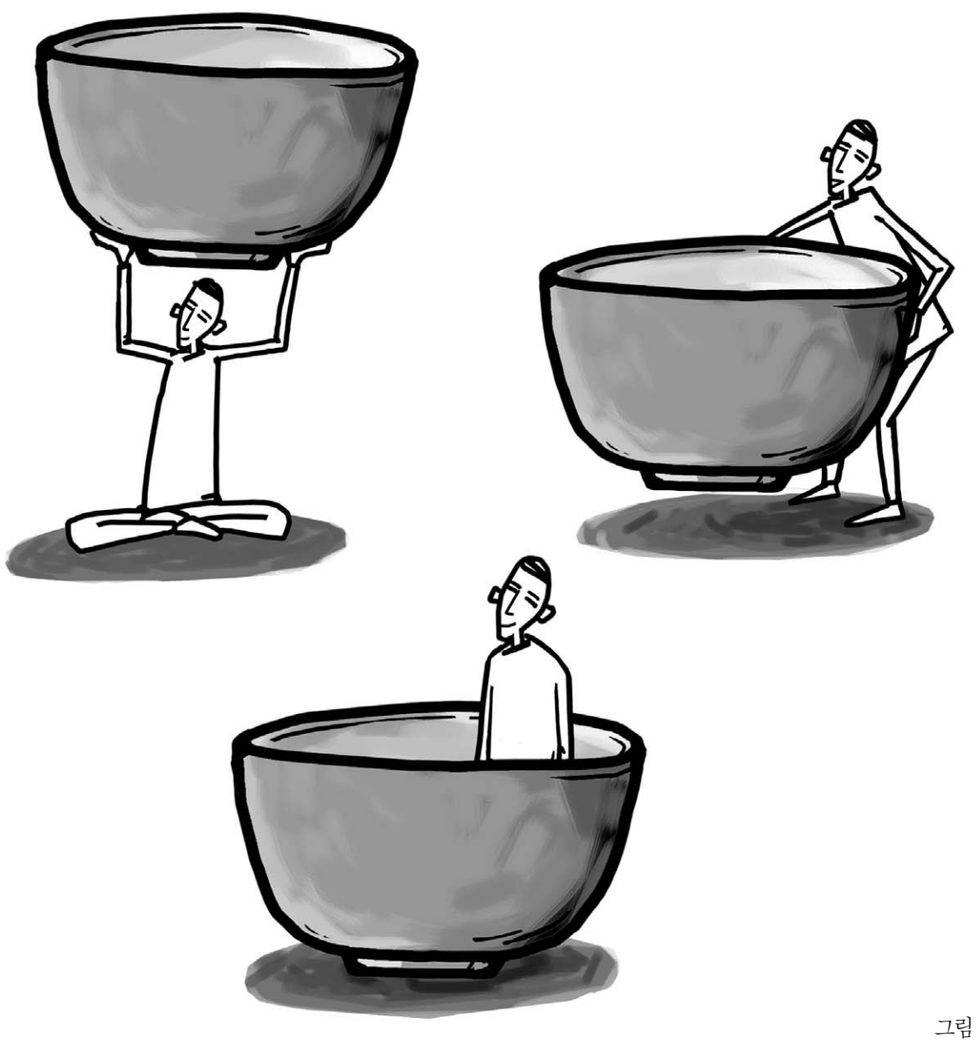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I · N · V · I · T · A · T · I · O · N

음악과 함께 하는 월간「불광」 400호 발행

축하·나눔의 밤

항상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은덕으로
월간「불광」이 지령 400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월간「불광」과 소중한 인연을 맺고 계신 사부대중을 모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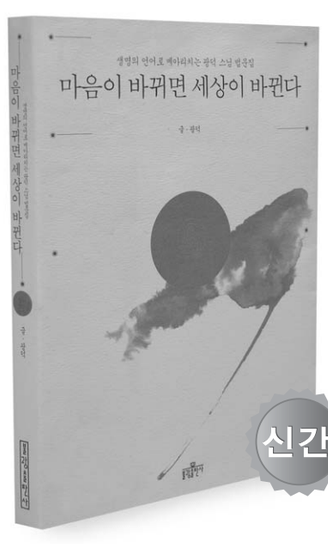
식순
- 인사말 _ 지홍 스님
- 축하 법어 _ 지관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축사 _ 명성 스님 (민족바구니회 회장)
- 축사 _ 김의정 (중앙신도회 회장)
- 기분 좋은 369후원
- 축하공연(선무도,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김성녀,장사익,유기준 (해금 연주),불광 합창단)
- 축하 케익 및 다과

- 일시 _ 2월 27일(수) 오후 6시 30분
- 장소 _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 주최 _ 월간「불광」· 불광출판사
- 문의 _ Tel. 02) 420 - 3200 Fax. 02) 420 - 3400

월간「불광」구독문의 _ 02- 420- 3200 ● 1년 구독료 :38,000원 ● 2년 구독료 :70,000원 ● 3년 구독료 :100,000원

생명의 언어로 메아리치는 광덕 스님 법문집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신국판, 280쪽, 값12,000원

마음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게 하는 종자이며 힘입니다.
마음에 깊이 생각한 것이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은 창조력을 가지며 신념을 가진 말이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항상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을 이어갑시다.
젊고 활기찬 아름다운 꿈을 그립시다.
우리 생명의 위대한 힘이 우리의 육체도 환경도 아름답게 가꾸어 갑니다.

— 본문 중에서

광덕 스님 열반 9주기를 기해 발행(2008. 2. 18)된 이 법문집은 스님의 법문 중에서 미출간된 주옥같은 말씀들을 담았습니다. 우리 몸이 소중한 까닭, 죽지 않는 법, 최상의 기도법, 미운 사람이 있거든…, 마음이 일체를 이룬다, 원인 없는 병은 없다 등등.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 마음의 법칙과 행복의 법칙, 우리의 진실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불광출판사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5-14 | 전화 (02)420-3200 | 팩스 (02)420-3400 | http//www.bulkwang.or.kr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광덕 스님 책들

01 경전강의서 _ 반야심경 강의 | 보현행원품 강의 02 경전번역서 _ 금강반야바라밀경 | 천수관음경 | 부모은중경 · 관음경 | 지장경 03 법어집 _ 메아리 없는 골짜기 |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04 광덕 스님 명상언어집 _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생명은 밝은 데서 성장한다 05 삶의 지혜를 여는 칼럼집 _ 행복의 법칙 | 빛의 목소리 06 구도문답집 _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 삶의 빛을 찾아 07 불교의식집 _ 우리말 법회요전 | 우리말 축원문 · 연화의식문 | 불자 수행일과요전 | 지장기도집 08 선어록번역서 _ 육조단경 | 선관책진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더라도 탁 놓을 수 있어야!

☞25면에서 계속

가서 보면 미래에 가본 대로 한 찰나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게 해놓고선 그거를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보고 '아, 이렇게 돼야겠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 법에는. 그러나 중생들은 미래에 가보면 그 세계에서 그렇게 보고 있죠. 한 찰나예요. 꿈과 같은 거죠.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 듣는 건 초보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걷고 있나를 잘 알면서도 말 못하는 거죠. 또 그것을 여러분 앞에 가르쳐주려니까, 생각을 잘하라 이겁니다. 과거의 모든 업을 녹여버리는 것도 현재의 생각이고, 미래를 가져오는 것도 현재의 생각이다. 네가 지금 사는 거 보면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미래에 어떻게 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다는 얘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만히 볼 때 과거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때에 미래는 틀림없이 알게 됩니다. 하고 있는 걸 볼 때 잘하든 못하든 말입니다, 올 겁니다. 그러니 살아서는 살아서 대로의 과거 미래가 있고, 죽으면 죽는 대로의 과거 미래가 있습니다, 현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주인공을 꼭 믿어라! 진짜로 믿는다면 '당신, 나 이런 것 좀 해주시오.' 이러지 않아도 내가 잘못되고 잘된 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인공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부탁할 것도 없고, '당신밖엔 못하겠군.' 혼잣말이야, 뜻으로 말하는 거지.

병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가난도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야. 괴로움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지옥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 거쳐 오면서 수만 가지의 날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또는 물에서 사는 짐승들이나 저 땅속에서 사는 애벌레들이나, 딱정벌레, 무당벌레 이런 것들이 다 주고 먹고, 주고 먹고 이렇게 합니다. 자연계의 질서란 너무도 팽팽하게 질서정연합니다. 여러분도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게 질서정연하게 자기가 한 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다 전장(傳掌)할 길이 없어요, 서로가. 그러니깐 자기한테서 만들었으니 자기한테서 그것을 녹이고, 자기한테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콩씨가 콩싹으로 됐는데, 그 콩씨를 찾아가지고 보이는 물질적인 콩씨가 아닌 콩씨가 된다면, 그 콩씨 하나에서 보이지 않는 콩씨의 마음이 우주 전체를 구르고도 남아. 이렇게 광대무변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대견스럽고 지혜롭게 잘 쓰십시오. 부모가 몸뚱이의 부모만 되지 말고, 뿌리의 부모도 돼서 그 뿌리 있기 이전을 발견함으로써 부처님의 뜻과, 하다못해 무당벌레도 내 말을 듣게끔 해야 됩니다.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와 둘이 아닐 때 무당벌레를 쓸 수도, 급할 때는 무당벌레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딧물을 다 먹기 때문이죠. 그럼 진딧물을 죽여서 되겠느냐? 둥글지 않지 않느냐. 진딧물은 무당벌레와 둘이 아니게 만들면 되고, 또 무당벌레와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같이

> 그냥
> 싱긋이 웃고
> 그저 묵묵히
> 걸어가는 자세로써
> 항상 즐겁게
> 봄이 온 듯이
> 삽시다!

돌아가기 때문에 또한 죽이고 살리고가 없단 얘깁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한 행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공용(共用)하고 공식(共食)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스님네들이 가르치고 경전에도 있고 그렇지마는, 현실에서 말씀해드리는 것이 경전에도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인공을 타파 못하면 경을 보되 자꾸 글씨를 보고 이론으로 따져. 그러니 저승에 가긴 틀렸죠. 허허.

그래서 모든 것을 보되, 내공을 타파해야만이 나중에 경을 봐도 그게 거름이 된다는 얘깁니다, 전부. 보더라도 그 자리에서 보는 거지. 그 자리에는 한 자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만 개의 생산처가 생각나는 대로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제발 진실로 믿고, 가정의 괴로움을 덜고, 내 마음의 괴로움을 덜고, 자식들의 업보나 괴로움을 덜어서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앞전에 겪었던 일을 스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렀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지장보살을 세 번 염했는데 하도 가슴이 답답해서 친척집에 전화를 거니까 그 친척이 돌아가셨답니다. 그 후로도 그런 일이 수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좋은 법문 부탁드립니다.

스님: 그 마음을 가지나마나 그분의 육체는 없어지고 사대(四大)로 흩어지겠죠? 그리고 처사가 마음으로 그렇게 착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처사 마음하고 그 마음이 결부가 돼서 그것이 녹아버리는 거야. 둘이 아니게 녹아버리는 까닭에 눈물이 흐르는 거거든. 그것이 봄이 오는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그냥 그냥 녹아. 고드름이 녹아서 물 떨어지듯이, 눈물이 그렇게 녹아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은 그대로 천도라.

여러분은 주저하면 주저하는 대로 한 발도 떼어놓지 못해.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대신에 부탁할 것은, 겸손하세요! 알면 안다고 건방지지 말고.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드문드문 발을 떼어놔요. 아는 사람은 남들이 안다고 법석을 해도 모르는 척하고 옆에서 구경만 하는 그런 태도, 겸손함을 가집니다. 정히 내 앞에 닥쳤을 때, 말 한마디 해줄 수는 있지만 말 한마디로 떨어져서도 아니 됩니다. 그건 자연 법칙에 의해서 법에 접촉이 돼야 돼. 즉 말과 뜻과 행이 그대로 그 사람한테 에너지가 되어 가야 돼. 말로만 가서 안 되고, 에너지와 말이 같이 가야 돼. 이것이 "네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법에 접촉이 돼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라." 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을 한마디 누구한테 해줄 때 말 한마디가 법이 돼야 돼.

어떤 때는 여러분이 찾아와서 꼭 말로 대답을 해달라고 합니다. 대답을 해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난 듣기만 하면 됩니다.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고 가면, 용건만 얘기하시고 자기한테 믿고 놓고, 믿으신다면 그게 백발백중이지마는, 여러분은 말뜻도 모르고 대답만 해달라고 애를 쓰니 그거는…. 그러니 여러분에게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에 달려 있어요. '아이구, 병원에서도 내버린 건데 이거 할 수 없어. 절에서 무얼 해? 그런데 남의 소릴 들으니깐 뭐 그냥 정성들이고 그러면 된다는데….'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해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든 살든 난 당신을 믿는다. 너무 늦어서 죽더라도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마음 태세를 갖는다면 죽든 살든 뭐 결판이 나지 않겠느냔 말이에요.

거기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라 모든 일체가 다 그래요. 어떠한 일이든지 용건을 얘기하고선 "마음 좀 내주십시오." 아니, 마음 내달라고 하지도 말고 "도와주십시오." (합장하시며) 하고 얘기하고 가면 그뿐이지 날더러 무슨 대답을 하랍니까? 저 부처님께서 대답하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대답했지. 해가 그냥 비춰줬지, 그래 해더러 지금 우리 방이 추워서 죽겠으니 햇빛 좀 이 방으로 들여보내서 뜨뜻하게 해달라고 이러고 대답해달라고 그러면 대답해 주겠습니까, 저 해가?

그래서 꿈을 꾸고도 그렇고, 스스로서 눈물이 나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서 생각나는 것도 그렇고, 좋게만 생각을 하세요. 얼토당토않죠? 꿈은 얼토당토않게 꿨는데 얼토당토않게 좋게 생각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렇게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다가 규정이 돼서 대놓은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해서 거기다 붙이면 돼.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이렇게 꿨대요. 아, 그냥 큰 거미줄에 얽힌 암흑 속에서 자기 아들이 둘둘 말려서 송두리째 들어가더라는 거야. 암흑 속으로, 꿈에.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부처님이 계신데 암흑이 어딨고 밝음이 어딨나? 아이구, 승진하겠구나.' 그랬는데 아들이 승진을 했대요. (대중 웃음) 하하하. 그러니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생각 그렇게 내주는

> 부처님의 뜻을
> 한 번 읽고
> 그것을 그대로
> 행할 수 있는
> 사람은
> 그대로
> 보살이죠!

게 나도 고맙고, 그쪽도 고맙고 얼마나 좋습니까? 응?

세상의 모든 일은 생각하기에 달렸다, 이성계처럼. 이성계가 다섯 가지의 꿈을 꿨는데 그걸 누가 못 쓰게 인도를 했다면 임금도 못 되고 아무것도 못 됐을 거예요. 무학 대사가 그만큼 휙 돌려서 얘길 해줬기 때문에 임금이 되고 길잡이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모든 거는 생각에 달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기쁜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싱긋이 웃고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자세로써 우리는 항상 즐겁게 봄이 온 듯이 삽시다.

나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럴 뿐이지, 가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여러분이 그걸 아세요. 어떤 때는 뭘 하려다가도 세태로 보면 꼭 이게 될 거 같은데 마음에서는 그게 석연치 않아. 마음에서 석연치 않은 건 하지 마세요! 아무리 바깥으로 돌아볼 때 이익이 있을 만한 것 같아도 안에서 석연치 않으면 하지 마세요. 안에서 자신이 있을 때 탁 쥐어야 문제가 안되지, 남들은 그냥 잘된다고 하지만 안에서는 석연치 않거든. 그럴 때 잡으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사는 데 고초가 좀 덜어질까 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아신다면 내 마음 속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나 아닌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그렇게도 뼈저리게 깊은 사연들이 많아서, 눈물 속에 피가 섞여서, 여러분과 같이 흘리는 그 눈물은 기가 막힙니다. 내가 말로만 이런다면 벼락을 맞게요? 허허. 정말입니다! (합장하시며)

간절히 여러분한테 말씀 한마디 해드릴 때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알았소." "알았소." 이러고선 돌아설 때, 그 알았다고 하는 말 한마디를 꼭 말로 '알았소'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이거 참, 중노릇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입이 써서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쓰면서도 싱긋이 웃으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 대신에 근심하지 마시고,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더라도 탁 놓을 수 있는, 믿고 놓을 수 있는 그 마음만 가지신다면 훨훨 날 겁니다, 아마.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바람결같이 이 세상에 왔다가 바람결같이 가는 세상에.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짊어질 것도 아니니 무겁게 짊어지지 마세요. 가볍게 아주 탁탁 털어놓으세요. 마음에 무겁게 짊어지면 몸도 아주 무겁고 아프고 모든 절차가 전부, 인간이 살맛이 안 납니다. 탁탁 털어 놓으십시오. 주인공에 놓으라고 일러드렸는데도, 맡겨놓고 사시라고 간곡히 일러드렸는데도 그걸 놓지 못하고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낸들 어떡합니까? 허허허.

※위 법문은 1988년 2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스님께 드리는

사과(참회)문

귀의삼보하옵고
소승이 무지한 소치로 종단의 종헌 · 종법을 따르지 않고, 또한 의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불교 법화종 종단의 대표자라는 이유 하나로 총무원장 김용대(혜륜)스님을 상대로 하여 검찰 및 수사기관에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 등으로 공갈죄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오히려 소승의 크나큰 잘못이 밝혀져 고소취하는 물론이고 용서를 구하는 각서까지 제출 하였기에 우선 소승의 크나큰 잘못을 인정하고 지면을 통하여 정중히 사과 드리고 용서를 구하며 참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어떠한 경로로 이러한 허위 고소사실들을 신문은 물론 인터넷, 언론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유포하게 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이는 소승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종단과 총무원장스님의 명예를 실추와 훼손하기 위해 제 삼자 등이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이를 유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소승의 크나큰 잘못으로 대한불교법화종 종단과 총무원장스님에게 크게 누를 범한 것을 진심으로 정중히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바라오며, 앞으로는 종단에 적극적 참여하여 종헌 · 종법 준수는 물론 종단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 2. 4

경남 사천시 대방동 44번지

대한불교법화종 대방사 곽병학(도안) 합장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봉황을 위하여

화려하고 강렬한 음색을 지닌 날라리라는 전통악기가 있다. 날라리는 농악마당에서도 한판의 굿마당에서도 불교전통 음악인 범패에서도 가락의 주도권을 잡아 한 마당 가득 생명감을 불어 넣는다. 그것이 궁중 전통 제례악으로 가면 '태평소'라는 이름을 얻고 그에 걸 맞는 장엄한 선율을 뽑아낸다.

2월 25일 치러지는 17대 대통령 취임식에 그 태평소와 큰북을 합쳐 둥그런 곡선으로 처리한 '태평 고'라 이름 붙인 엠블럼이 등장한다. 대표적 전통 리듬 악기와 멜로디 악기가 합쳐 '함께 가요'라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목말라하는 조화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부풀려준다.

그동안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시대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멋진 엠블럼이 등장했고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 출발하는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지니곤 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지난 취임식들에 비해 이번 취임식에서는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될지 모른다.

봉과 황, 암수 한 쌍의 그 봉황이 무궁화 꽃 한 송이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까지 대통령 문장(紋章)으로 쓰이고 있는 그 봉황문장을 취임식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당선인이 평소 권위적으로 보아온 그 문장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인 모양이다.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는? 당선인이 개인적 신념이나 호오(好惡),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에 절대군주시대 지배자를 상징했던 것을 왜? 라는 식의, 당선인 자신의 '해석의 폭'을 가늠하게 하는 거부반응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 추측해 보면 그동안 그 문장을 후광으로 참다운 권위가 아닌 꼴불견의 권위주의를 휘둘렀던 몇몇 전직들 때문에 봉황문장이 도매금으로 함께 꼴불견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한 당선인의 거부감이라면 여기에 동의할 사람은 많을 것이다.

거룩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쓰는 사람에 따라 말씀이 거룩해질 수도 더럽혀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안다. 문장(紋章) 역시 마찬가지다. 문장이 상징하는 인물이 어떻게 처신해 왔느냐가 그 문장을 빛내기도 하고 더럽히기도 한다. 하켄크로이츠가 나치 때문에 이미지가 더럽혀졌다면 같은 문양이라도 불교의 법륜이나 기독교의 갈고리 십자가는 성스러운 기호가 된다.

봉황은 서양의 불사조인 피닉스, 불교의 성스러운 새 가릉빈가와 같은, 인류가 상상의 나래를 펴 만들어 낸, 오색 깃털에 아름다운 음색으로 노래하는 최고 최선의 상징물이다. 이 새들 만큼 아름다움과 평화, 상서로움을 드러내는 신조(神鳥)도 없다.

봉황문장은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 대통령 문장으로 태어나, 역사와 전통을 만들며 나름대로의 권위를 만들어 왔을 것이다. 지금 청와대 곳곳에 새겨져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사용하는 집기며 선물용으로 제작되는 물건들에도 새겨져 있을 것이다.

다행히 취임식 이후 그 문장을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는 아직 결정내리지 않았다 한다.

그러할 리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 이를 폐기한다면 공연한 참언(讒言과 讒言)의 온상을 만드는 어리석음이 될 것이다. 아니 벌써 일각에서 터무니없는 말이 들리기도 한다.

몇몇 전직들로 하여 봉황문장의 권위가 우습게 되었다면 새로 취임하는 분 스스로 경멸받아 마땅한 권위주의 아닌 진정한 권위를 회복해서 문장의 권위도 함께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적으로 낮은 데로 임하고, 불교적으로 하심(下心)해 그 초발심을 잊지 않고, 그리고 천성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려 그 천성을 십분 발휘한다면 당연히 대통령도 봉황문장도 '진정한 권위'를 찾을 수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게 믿는다.

불자의 눈

사찰건축문화재 개방 옳은가?

국보 제1호 숭례문에 불이 붙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나 그 어이없는 상황은 5시간 만에 억장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의 전말이 밝혀지고, 뒤처리를 하는 당국의 안일과 무지가 보도되는 동안 불자들은 또 다른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사찰의 목조건축물 가운데 상당수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화재에 대비한 설비나 전문 인력이 태없이 부족한 현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당국은 사후약방문 격으로 고궁이나 사찰의 목조건축문화재들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 현장에서는 그간 문화재 관리에 대한 국민적 무성의가 얼마나 컸는가를 반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

사찰의 목조건축 가운데 국보는 13개 보물은 67개 시도유형문화재는 149개 등 지정문화재는 모두 229개에 이른다. 지정문화재 외에도 사찰의 목조 건축 가운데 문화재급에 해당하는 수가 상당할 것이다. 물론 화재 등 방재 설비나 시스템은 일부를 제외하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진단되고 있다.

숭례문의 전소를 보며 불교계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 적어도 국보나 보물급 건축문화재에 한해서 이대로 개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수 백 년의 역사를 지닌 목조건축에 전기설비를 하고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문화재의 개방이 추세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관리가 허술할 바엔 문을 닫는 것이 낫다. 문화재는 문화재라는 이름에 걸맞게 특별한 관리가 따를 때 가치가 빛날 수 있는다. 국보 보물급은 물론 사찰건축문화재에 대한 '관리의 합리성'을 종단과 정부가 함께 깊이 고민할 때다.

불교대학에서 참불자의 길 찾자

졸업 시즌이 지나고 바야흐로 입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학교 뿐 아니라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대학에서도 졸업과 입학 법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불자(佛子)라고 부르는가? 불자와 비불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같은 질문을 해 놓고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불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도 쉽게 나온다. 우선 불자라면 반드시 수계(受戒)를 해야 한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도 5계와 10계 등을 받고 법명을 받음으로써 불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불자에게 의식절차로서의 수계가 필수라면, 부처님의 생애와 기본교리를 익히는 것은 교양의 측면에서 필수라 할 수 있다. 입으로 <천수경>과 <반야심경> 등은 좔좔 외우면서 그 뜻은 모른다면 올바른 불자라 할 수 없다. 삼천배를 밥 먹듯 하면서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것은 또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러나 아는 것이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지식의 창고가 가득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빈 깡통에 지나지 않는다.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불자의 기본이다. 불자와 비불자의 차이는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피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알고 믿고 행하는 길을 안내하는 곳이 바로 불교대학이다. 올 봄엔 불교대학에 등록하여 참불자의 길을 찾아보길 권한다.

감사할 줄 알면 감사해야할 일은 더 많아질 것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51 감사하는 마음

박군의 이야기

대학생인 박군은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배우고 많은 반성을 하였다. 살아오면서 감사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박군도 감사하는 마음을 입력해 보고 싶다고 한다. 다음은 박군의 이야기이다.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니 제일 먼저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떠오른다. 불교신자이셨던 선생님께서는 직접 우리 반 학생들을 하나씩 불러서 잘 되라고 기도를 해 주셨다. 항상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해 주셨다. 그 때 선생님께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삶을 대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흘려듣고 말았다. 이제 보니 그것이 소중한 삶의 진리였는데.

스무 살이 넘도록 내가 태어난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한 적이 없고 가끔은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었다. 건강하다는 사실도 당연하게 여길 뿐이었다. 이제 4학년이 되어 우리 집 형편은 별로 넉넉하지 않아 꼭 취업을 해야 하는데 여유가 없다. 그래서인지 예전보다 부모님께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가끔 날씨가 우울한 날이면 내 마음도 같이 우울해지는 현상을 겪곤 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려고 한다.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에너지가 바뀐다는 것을 믿고 싶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알면 내가 감사해야할 일은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 나도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해야겠다.

박군의 감사계획

우선 나에게 감사하고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나를 둘러싼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싶다.

- 오늘 당장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기
- 나와 인연을 맺은 초, 중, 고, 대학교 친구들에게 감사하기
- 우리 집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안내를 하시는 노인 분께 '감사합니다'고 말하기
- 내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운전기사 분께 감사하기
-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해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하기
- 운동화를 생일선물로 사준 동생에게 감사하기

나 자신에게 감사하기

- 나는 나를 사랑한다.
- 건강한 내 몸에 감사한다.
-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취업을 하건 못하건.
- 나는 원하는 것을 해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
- 무엇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나 자신에게 감사한다.
- 그리고 앞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감사할 일들을 만들 것이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불자라면 일체 생명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한 큰스님께서는 "물 한 모금 마시고 밥 한 술 떠 넣어도 더불어 먹고 더불어 감사하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일부러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회향합니다' 하는 생각을 지어서 회향치 않아도, 깊은 감사와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행이 일체 중생, 일체 부처님과 같이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회향인 것이다"라고 하시며 일상생활을 감사하며 회향하는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04-중-1788호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듦에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쇠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써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 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증(輕症), 중증(中症), 중증(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 박사는"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로 가능하며 중증(中症),중증(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래교수)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귀의 삼보하옵고

무자년 한해도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함께 하시어,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되시길 합장 발원합니다. 동안거 수행 정진하시는 대덕스님 및 재가불자님께 **고무신코 만행화**를 소개합니다.



영하 10도에서도 발이 시렵지않고 초극세사 방수원단 콜크中창, 보아털 10mm 지압식 실리콘 동 깔창, 미끄럼 방지 논슬립 깔창, 수작업으로만 고집하여 만들었으며 이미 대덕스님, 불자님들이 신어보시고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불교의 예절에 있어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로 인한 몸건강을 생각하며 우리고유의 **설 명절, 동안거 해제**를 맞아 **만행길에 만행화**신발을 보시, 선물로써 좋은 생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무자년 한해도 건강 하세요.

대표 박 벽산 합장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법보시 상담 환영
■ 본사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종각역 2번출구 100m거리)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산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효타 비결서"

(상 · 하권)

아직도 5년 10년씩 역학을 공부하십니까?
역학을 전혀 모르거나 한자를 몰라도 1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효타비결전서가
완전 한글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 **정가 : 각 50,000원**

역학강좌안내

· **초급 및 중급 과정 6개월**
4월 첫 주부터 매주 월요일 18시 - 21시

· **효타비결 전수반 2개월**(스님에 한함)
4월 첫 주부터 매주 화, 수 18시 - 20시

· **무료 강좌**
3월 한달은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효타비결전서를 무료로 강의하여 혼자서도
역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수비결"

토정비결의 괘를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 각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2008년의 직업 운, 사업 운,재물 운,이성과의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일진 및 외출하는 날 등
· 한글전용으로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운세를 쉽게 볼 수 있고,
적중률이 높아서 잘 틀리지 않습니다.

▷ **정가 : 각 30,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어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하여
· 개명,작명,법명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작명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 하십시요.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 **정가 : 각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 · 각종 마이크 · 스피커 · 앰프 설치 · 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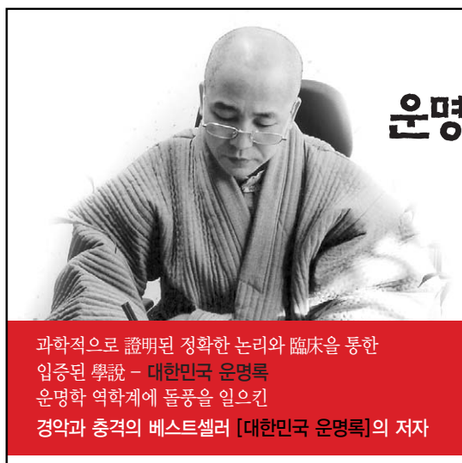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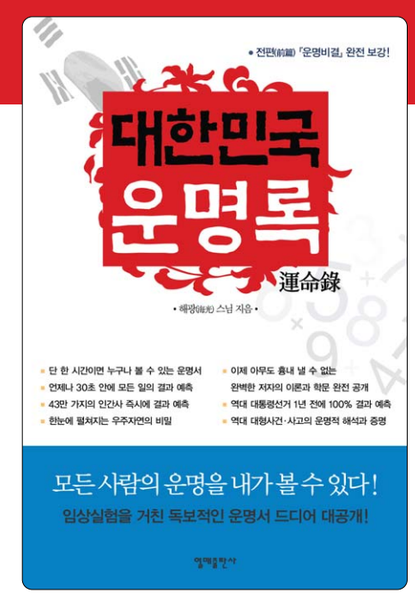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운명록 전수생을 모집 합니다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해광스님 직강

과학적으로 證明된 정확한 논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자 격 : 정규종단에 승적이 있는 스님,
법사나 불자로서 포교원을 개원하여
포교에 진력할 분

서적구입문의
032)665-8472, 교보문고 외 인터넷서점 · 불교서점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032)665-8472 / 010-3730-5247
경기도 부천시 상3동 533-7

연료비 90% 절약

전자파 없는 보일러식 온수매트

11년 전통 **국내 유일 온수전문** 업체



(보급형 1인용) **시판 6주년 기념 첫세일 129,000원 100개 한정판매**

웰빙 온돌방의 특장점

● **국내산** 온수매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100% 국내산입니다. 품질이나 A/S면에서 아주 우수하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과는 비교를 거부합니다.
● **경제성** 사용이 편리하고 사용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며, 유사제품과 비교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하루 10시간 기준, 한달 전기료 약 4,000원)
● **안전성** 온수매트는 전선이 아닌 호스를 사용한 온수난방식이기 때문에 유해전자파가 전혀 없습니다.
● **쾌적성** 인체에 해가 없는 내열호스를 사용, 제품의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쾌적한 난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건강소재** 금사 원단처리로 청소가 간편하고, 일반 전선매트는 전선부분만 따뜻하나 온수매트는 매트 전체에 훈기가 있어 비싼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으며, 주무시고 나면 몸 전체가 가뿐한 웰빙온돌방입니다.

■ 고급형 규격
1인용 : 950×2000×40 (±5)
2인용 : 1400×2000×40 (±5)
■ 보급형 규격
1인용 : 950×2000×20 (±5)
2인용 : 1400×2000×20 (±5)

MBC 불만제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2007년 11월 29일 TV 방영

▶ 전자파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방출되어 플러스 에너지를 가진 사람 인체에 에너지 회전을 방해하며 뇌파침전도 검사 결과 수면방해로 숙면을 취할 수 없음.
▶ 인체를 피곤하게 만들며 면역력에 문제가되는 전자파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음.
▶ 대한민국환경부에서 2005년 5월 『전기장판은 임산부와 어린이는 사용금지 권고』를 발표해 그만큼 인체에 미치는 유해 영향이 큼.

특허청
제0271605호 제0002626호
제0347807호 제0008462호
제0347808호 제0000097호
제0335837호 제0027500호
제0002625호 제0002661호
등판 : 제 2007-3210121-30-2-10717호

침대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번 구입하면 10년 이상을 사용하실 매트

일반 전선매트는 전선 부분만 따뜻하지만 온수매트는 매트 전체에 훈기가 있어 좋습니다.

대진하우징은 지난 11년간 온수침구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자파 없는 보일러식 온수매트를 업계 최초로 개발하여 6년전부터 시판하고 있는 우리나라 온수매트의 선두주자이며, 시스템은 같아도 타회사와의 기술력의 차이는 큽니다.

보급형 (한정세일가) 1인용 ~~158,000원~~ ➡ 129,000원 / 2인용 ~~178,000원~~ ➡ 149,000원

고급형 1인용 178,000원 / 2인용 198,000원 고급형 지로분할가 1인용 : 41,000×5회 / 2인용 : 46,000×5회

대진하우징 주문전화 **080-338-3388**

■ 입금계좌(농협) : 1285-02-011378 이 현 실